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2

2학기 · 전과정

동아

최두호



내신에 날개를 달아 주는 100발100중!

1 한국 문학의 흐름

01 이별의 정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9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②	07 ③	08 ④
09 ③	10 ②	11 ③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①
17 ②	18 ⑤	19 ②	20 ④	21 ⑤	22 ③	23 ②	24 ⑤
25 ③	26 ①	27 ④	28 ①	29 ③	30 ④		

01 화자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기(1연)–승(2연)–전(3연)–결(4연)'로 구성되어 있다. ② '나ᄂᆞᆫ'과 같은 여음구와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와 같은 후렴구를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시리잇고', 'ᄇᆞ리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시리잇고'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이별의 안타까움과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는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라며 이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라며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라며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라며 임이 떠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나 수난을 겪을 것이라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화자는 임이 자신을 떠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④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ᆫ'에는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으나 임이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다.

03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ᆫ'의 주체는 화자로, 임을 붙잡고 싶지만 잡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임이 화자를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이므로, 'ᄇᆞ리고'의 주체는 임이며,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ᄇᆞ리고'는 화자가 임에게 애원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② '엇디 살라 ᄒᆞ고'는 임과의 이별 이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말하는 주체는 임과의 이별을 한탄하는 화자라 할 수 있다. ④, ⑤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여 임을 보내기로 하는데, 이어서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보내ᄋᆞᆸ노니'는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는 화자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도셔 오쇼셔'의 주체는 임이다.

04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각 연의 끝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후렴구이다. 그러나 '대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한 시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다.

오답 해설 ① '가시리잇고'는 임이 화자를 떠나가는 상황을 나타낸 구절로, 이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와 관련 있다. ③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는 임이 자신을 떠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구절로, 이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와 관련 있다. ④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자신이 임이 떠나는 것을 막았을 때 임이 서운해할 것을 염려하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 구절로, 이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와 관련 있다. ⑤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는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구절로, 이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와 관련 있다.

05 화자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임을 보내며 임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므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ㄱ) 1연과 2연에서는 '–잇고'를 활용하여 슬픔과 안타까움의 심정을, 3연에서는 '–셰라'를 활용하여 염려와 체념을, 4연에서는 '–쇼셔'를 활용하여 당부와 기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ㄴ: 색채어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ㄹ: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보기〉는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묏버들'이라는 사물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으나, 이 글은 화자의 마음을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을 뿐 재회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보기〉의 화자도 임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의 내면과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는 임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화자의 내면과 반대되는 표현은 아니다. ④ 이 글은 3·3·2조, 3음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기〉도 3·4조, 4음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Plus 〈보기〉 묏버들 갈히 것거_홍랑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연정가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해제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재를 통해 자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함.

07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서운하면 안 올 것 같은' 임의 반응에 대한 염려 때문에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화자의 행동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화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가시리잇고'라는 물음을 거듭 반복하며 자신의 바람과 달리 자신을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이를 만류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떠나는 임을 잡아 두고 싶어 하는데, 이는 자신을 떠나는 임의 행위를 막아 사랑을 지키고 싶은 화자의 욕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임이 떠나가는 행위를 '보내ᄋᆞᆸ노니'라고 하여 화자가 보내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가 바라는 임의 행위를 '오쇼셔(오십시오)'라는 명령형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임이 돌아오는 것은 화자와의 재회를 의미하므로,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에는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08 C에서 화자는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ᆫ'이라고 하여 임을 붙잡고 싶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데,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라고 하여 임을 붙잡을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ᄇᆞ리고 가시리잇고'를 통해 임이 화자를 떠나가는 이별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② B에서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는 임이 자신을 떠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임과의 이별이 화자에게 준 심리적 충격으로 볼 수 있다. ③ A와 B에서 'ᄇᆞ리고 가시리잇고'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임과의 이별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D에서 '셜온 님 보내ᄋᆞᆸ노니'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를,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는 떠나간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9 3연에서 화자는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ᆫ'이라고 하여 떠나는 임을 막고 싶으나,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라고 하여 현실적으로 임을 막

을 수 없는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가시리 가시리잇고', 'ᄇᆞ리고 가시리잇고'라고 하여 이별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이별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2연에서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라고 하여 자신을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있으나 임이 화자가 겪을 고통을 외면하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4연에서 '셜온 님 보내웁노니'라고 하여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임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이별의 상황이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체념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별에 대한 수용과 체념의 태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10 이 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드러내지 못하는 속마음은 임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간직한 채 떠난 임이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는 자세도 드러내고 있다. 임이 서운해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조심하는 화자의 마음과 태도로 볼 때, ㉡와 같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임에게 불평도 많이 했다는 내용은 글의 분위기와 화자의 심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라는 부분에서 자신을 떠나가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③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ᄂᆞᆫ'에서 임을 붙들고 싶어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 '셜온 님 보내웁노니'에서 임을 붙잡으면 오히려 임이 서운해하며 다시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에서 임이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1 화자는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라며 이별의 상황에 절망하며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ᄂᆞᆫ'이라고 하며 임을 붙잡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라고 하며 임이 서운해 할 것을 염려하여 '셜온 님 보내웁노니'라고 하며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한탄하고 있으나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② 화자가 이별의 이유를 대상인 임에게서 찾거나 임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는 있으나 임과 재회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다.

12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는 떠나간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ᄂᆞᆫ'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악률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여음구에 해당한다. ②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는 임이 자신을 떠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절망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구절이다. ③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자신이 임이 떠나는 것을 막았을 때 임이 서운해할 것을 염려하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 구절로, 이는 화자가 임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④ '셜온 님'에서 '서러운'의 주체가 화자라면 자신을 떠나는 임에 대한 서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화자 자신을 서럽게 하는 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시를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는 음보를 의미하는데, 이 글과 〈보기〉는 모두 3음보의 율격에 따라 운율을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의 행위를 과장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가시리잇고'를, 〈보기〉는 '아리랑'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자신을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으나, 〈보기〉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Plus 〈보기〉 신아리랑_작자 미상

갈래	민요
성격	애상적
주제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
해제	자신을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과 함께하자는 소망의 간절함을 부각함.

14 '위'라는 감탄사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렴구로, 주제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증즐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② 같은 구절이 매 연의 끝에 반복되어 통일성을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③ '대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한 시대를 뜻하는 것으로 송축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전체적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매 연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연과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15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재회를 소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평민들의 소박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희망에 찬 미래를 예견하고 있지는 않으며 삶을 긍정하는 인식도 엿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고려 가요는 주로 평민층에 의해 창작, 향유된 노래로 순우리말로 노래한 작품이 많다고 하였다. 이 글은 후렴구를 제외하고는 순우리말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이 글이 평민층에 의해 창작, 향유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고려 가요는 3음보의 율격을 형식적 특징으로 가진다고 하였다. 이 글은 각 행을 주로 세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는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어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고려 가요는 이별의 상황에 대한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 많다고 하였다. 이 글은 임과의 이별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솔직하게 노래한 작품으로 고려 가요의 내용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고려 가요는 분연체의 형식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글은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가 매 연 반복되는 후렴구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6 (가)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참담함을 담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이별의 상황이라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실과 단절된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에는 이별이라는 부정적 현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17 (가)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마음을 '청산'에 빗대고, 가변적인 임의 마음을 '녹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청산'과 '녹수'는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시어이나, 대상 즉 임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은 가변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초장인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정이'에서 서로 대응되는 구절을 나열하여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나)는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열거의 방식으로 나열하여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④ (나)는 임과 이별한 '내 안'과 '가토릐 안', '도사공의 안'을 비교하여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는 '청산이야 변ᄒᆞᆯ손가' 등에서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엇다가 ᄀᆞ을 ᄒᆞ리오'에서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8 (가)의 '못니져'는 화자가 추측하는 임의 심정으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표현이 아니다. 또한 (나)의 '엇다가 ᄀᆞ을 ᄒᆞ리

오'는 이별의 상황에 참담해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 ② (가)에서 임을 상징하는 '녹수'도 울며 흘러간다는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도 이별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③ (나)에서 '나모'와 '바히돌'은 '가토리'가 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인데, 이들이 없다는 것은 '가토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④ (나)에서 사공은 '노도 일코 닷도 일코 ~ 치도 싸'진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바람 불어 물결도 치고 안개까지 뒤섞여 자욱한 날은 사공이 처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 '청산'은 불변성을 지닌 대상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한다. '뫼'는 '가토리'가 매의 위협로부터 피할 수 있는 나무나 바윗돌도 없는 공간으로, '가토리'가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청산'은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뫼'는 매에 대한 '가토리'의 두려움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은 아니다. ③ '청산'이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며, '뫼'도 '가토리'의 강한 생명력을 환기하지 않는다. ④ '청산'은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지만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호소하고 있지는 않으며, '뫼'는 매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가토리'가 선택한 공간이 아니다. ⑤ '청산'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불변성을 상징하지만 화자가 임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뫼'는 나무나 바윗돌도 없기 때문에 '가토리'가 매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20 화자는 자신을 '청산'에 빗대고, 임을 '녹수'에 빗대고 있다. 그리고 '청산이야 변ᄒᆞᆯ손가'라고 하여 임이 흘러가는 물처럼 자신을 떠나더라도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청산'처럼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임이 '녹수'가 흘러가듯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변하더라도 자신은 '청산'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할 뿐, 임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임이 '녹수'처럼 자신을 떠나더라도 임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으나 임을 따라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녹수도 청산을 못니져 우러녜어 가ᄂᆞ고'라는 구절은 임 역시 자신을 잊지 못해 울면서 떠나갈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화자가 흐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21 〈보기〉에서 '가마귀'는 간신을, '야광 명월'은 충신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도 '청산'은 화자를, '녹수'는 임을 상징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으므로, 〈보기〉만 시적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중장의 '청산이야 변ᄒᆞᆯ손가'에서, 〈보기〉는 종장의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에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가)와 〈보기〉는 모두 3·4조, 4음보율의 정형적 율격을 지닌 평시조라는 점에서 형식상 공통점이 있다. ③ (나)는 중장이 초장, 종장에 비해 길어진 사설시조로, 평시조인 (가), 〈보기〉와 구별되나, 세 작품 모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④ (나)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 작자를 평민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가)는 '황진이', 〈보기〉는 '박팽년'으로 작자가 특정되는데 이는 (나)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Plus 〈보기〉 가마귀 눈비 마자_박팽년

갈래	평시조
성격	풍자적, 의지적
주제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해제	색채 대비와 설의법을 활용하여 임(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함.

22 (나)에서 화자는 임을 여읜 상황에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별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여기는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토리'는 나무도 바위도 없어 몸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으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절박한 심정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도사공'은 배가 손상되고 악천후로 고전하고 있는데 급기야 수적까지 만나는 상황이므로 절망감을 느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토리'와 '도사공'은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자신이 처한 이별의 상황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3 〈보기〉에서 (가)는 화자의 마음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형상화한 시조라고 하였다. '녹수도 청산을 못니져 우러녜어'는 임도 화자와의 이별을 슬퍼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 구절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러한 임을 떠올리며 임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가)는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청산'은 불변성을 지닌 자연물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녹수'는 가변성을 지닌 자연물로 임의 마음을 나타낸다. (가)는 이 자연물들을 대조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나)는 임과 이별한 참담한 심정을 열거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한다고 하였다. (나)에서 노, 닻, 용총, 돛대 등이 고장 나고 유실된 상황을 열거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배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공의 열악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비교 등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임과 이별한 참담한 심정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가토리 안', '도사공의 안'을 임과 이별한 '내 안'과 견줄 수 없다고 하여 이별 후의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보기〉에서 언급한 이별의 정한을 다룬 작품들로, (가)는 임을 빗댄 '녹수'가 흘러간다고 표현함으로써 이별한 상황을 드러내고, (나)는 '엇그제 님 여흰'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4 (가)는 '청산은 내 ᄯᅳᆺ이오'에서 화자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ᄒᆞᆯ손가'에서 임이 자신을 떠나더라도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엇그제 님 여흰 내 안'에서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자신의 마음을 변함없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인 청산에 빗대고 있으나 여기에서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며, (나)에서도 자연물의 속성에서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상황에 대한 대립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절충적 인식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에는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고 있지 않다.

25 (가)는 '청산이야 변ᄒᆞᆯ손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엇다가 ᄀᆞ을 ᄒᆞ리오'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별 후의 참담한 심경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종장에서 '녹수'가 울면서 간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시적 정서를 자연물에 투영시킨 것이다. (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화자의 마음인 추상적 대상을 '청산'에, '님의 정'을 '녹수'라는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에 빗대고 있지 않다. ④ (나)는 '갈 길은 천리만리 나믄듸' 등에서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여 도사공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과장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나)는 배의 기능이 손상된 상황에서 기상도 악화되고, 수적까지 만나는 상황을 열거하여 도사공이 느끼는 압박감이 고조됨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악화되는 상황을 열거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26 (가)에서 '청산'은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나타내는 자연물이고, '녹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임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이 자연물들을 각각 화자와 임에 대응시킴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녹수'가 '우러녜어' 간다고 한 것은 임이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와 임이 마음이 같다는 것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③ '나모'와 '바히돌'이 없다는 것은 '가토릐'가 매로부터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가토릐'와 매가 치열한 싸움을 할 것을 예고한 것은 아니다. ④ '가치노을 ᄲᅳᆫ듸'는 사나운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는 도사공이 처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시련 극복의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임을 여읜 상황을 직접 제시하고 있으나 화자가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27 (나)의 화자는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ᄀᆞᄋᆞᆯ ᄒᆞ리오'라고 하여 '가토릐 안'과 '도사공의 안'보다 자신이 느끼는 심정이 더욱 참담할 것이라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까투리의 마음이 자신 못지않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목숨을 위협받는 '가토릐'나 '도사공'도 자신에게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나)의 화자에게 임과 이별한 상황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 이상으로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을 '청산'에 빗대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녹수도 청산을 못니져 우러녜어 가ᄂᆞᆫ고'라고 하여 임이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내비치고 있다.

28 (나)에는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열거법 등의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기〉와 (나)는 모두 '가토릐'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화자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 내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종장에서 'ᄀᆞᄋᆞᆯ ᄒᆞ리오'라는 물음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심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 ③ 〈보기〉와 달리 (나)는 중장에서 '도사공'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과장적으로 열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④ 〈보기〉에 비해 (나)는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중장을 길게 늘여 놓고 있다. ⑤ '가토릐', '도사공'과 화자를 비교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나)와 〈보기〉 모두 활용하고 있다.

29 엇그제 임을 여읜 '나'는 자신의 심정이 '가토릐'나 '도사공'의 마음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나'가 자신이 '가토릐'나 '도사공'보다 나은 여건에 있다며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토릐'는 몸을 피할 곳이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처지에 있으므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도사공'은 파선 직전의 배의 상태로 수적까지 만난 상황이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토릐'와 '도사공'은 생명을 위협받는 부정적 상황에 있으며 '나' 역시 임과 이별한 부정적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④ '도사공'은 배가 손상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상도 악화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적까지 만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심화되면서 도사공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소중한 임과 헤어졌으며, '도사공'은 배의 운행에 필요한 도구인 노, 닻을 잃은 상황으로 둘 다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을 상실했다는 유사점이 있다.

30 '가토릐'는 '매'에게 쫓기는 존재이고, '매'는 '가토릐'를 쫓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들이 화자와 임 사이의 긴장 관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활용된 자연물은 아니다. (나)에서 화자와 임 사이의 긴장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자연물의 속성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형상화하는 데 활용된다고 하였다. '녹수'는 가변성을, '청산'은 불변성을 지닌 자연물로 이는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태도를 부각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② 〈보기〉에서 자연은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못니져 우러녜어 가ᄂᆞᆫ'의 주체는 '녹수'로, 자연물인 녹수를 의인화하여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시적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드러낸다. ③ 〈보기〉에서 자연 환경은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된다고 하였다. '나모'와 '바히돌'이 없는 '뫼'는 몸을 피할 공간이 없는 자연 환경으로, 이는 대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⑤ 〈보기〉에서 자연은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ᄇᆞ람 부러 믈결 치'는 '바다'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의 공간적 배경으로, 이는 도사공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20~025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③ 07 ④ 08 ④
09 ③ 10 ③ 11 ② 12 ① 13 ③ 14 ⑤ 15 ⑤

▸ (라) 이별 이후_문정희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애상적
주제	이별의 고통과 슬픔
해제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 후에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고통과 슬픔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01 (가)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임을 붙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다)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절망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이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라) 모두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에서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으나 (나)~(라)에는 임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라) 모두 이별의 상황이 화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라) 모두 이별의 상황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가)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을 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라) 모두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청산'과 '녹수'는 각각 화자와 임에 대응되는 자연물일 뿐, 화자가 의지하고자 하는 자연은 아니다.

02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는 임이 자신을 떠나더라도 곧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구절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임과의 이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못니져 우러녜어 가ᄂᆞᆫ고'는 임이 자신을 잊지 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임이 자신을 잊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는 '가토릐'가 몸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토릐'가 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④ '일천 석 시른 ᄇᆡ'의 상황이 배에 문제가 생긴 원인인지는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⑤ '숨 막혀 나 죽으면 / 원도 없으리라'는 이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너'를 잊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03 (가)의 1연, 2연의 둘째 행은 의문형 종결 어미로 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2연 첫째 행은 둘째 행과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있으며, 3연의 첫째 행은 둘째 행과 연결 어미로 연결되었고, 둘째 행은 감탄형 종결 어미가 쓰였다.

오답 해설 ① (가)는 1연, 2연, 4연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여음구인 '나ᄂᆞᆫ'을 반복하여 음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은 3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과 연이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나)에서 '청산'과 '녹수'는 각각 화자와 임에 대응되는 시어로, 초장, 중장, 종장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⑤ (가)는 '가시리∨가시리∨잇고', 'ᄇᆞ리고∨가시리∨잇고'와 같이 3·3·2조의 음수율과 3음보율이 나타난다. (나)는 '청산은∨내 뜻이오∨녹수는∨님의 정이'에서 3·4조의 음수율과 4음보율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04 (가)의 화자는 청자로 설정된 '님'을 향해 직접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의 경우 '임'을 청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식의 말하기 방식도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가시리잇고'라고 하여 화자가 임과 이별했음을 나타내며, 〈보기〉는 초장에서 '이화우 흩뿌릴 제 울며 잡'았다고 하여 이별의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보기〉의 중장에서 화자는 '저도 날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화자가 여전히 임을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종장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라'에서 이별한 임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③ 〈보기〉의 초장은 '이화우 흩뿌릴 제'에서 보듯이 화자가 임과 이별한 시간이 봄이었음을 나타낸다. 중장은 '추풍 낙엽'이라는 시구를 통해 현재는 이별한 후에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가)의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라는 염원과 달리 〈보기〉의 상황으로 보아 임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Plus 〈보기〉 이화우 흩뿌릴 제_계랑

갈래	평시조
성격	연정가, 애상적
주제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해제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이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시간의 흐름과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함.

05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에는 이별의 상황에서 오는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이는 임이 떠난다면 자신은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하소연이 고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시리∨가시리∨잇고'는 3·3·2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고, 3음보로 되어 있다. ②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후렴구로,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임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셜온 님 보내옵노니'는 어쩔 수 없이 임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표현 속에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어이 못 오던가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주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해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 인한 야속한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연쇄법, 열거법, 과장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다) 동동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민요적, 서정적, 비유적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해제	달마다 세시 풍속을 배경으로 임을 떠나보낸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형상화한 작품임.

06 세 작품은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상과 단절된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세 작품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포용의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는 자신을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나)에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다)에는 임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세 작품 모두 화자는 자신이 현재 이별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가)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 있으나, (나)와 (다)에는 화자 자신이 취할 태도에 대한 고뇌가 드러나 있지 않다.

07 (가)의 화자는 이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며 임을 떠나보내고 있다. 그리고 임이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신을 찾아와 볼 하루가 없느냐고 임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가 동일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화자는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화자가 이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거나 임을 서운하게 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떠나려는 임을 원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나)의 화자 또한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랴'라는 표현에서 임을 원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에게서 임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의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 임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과거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는 어쩔 수 없이 임과 이별을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이별 당시의 괴로움을 극복하거나 차분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08 (가)는 '가시리잇고(가시렵니까)'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원망에 찬 하소연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어이 못 오던가'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열거법은 여러 대상을 나열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가)에서는 열거법을 확인할 수 없고, (나)에서는 중장에서 임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감정 이입은 특정 대상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어 자기와 대상이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심리를 말한다.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을 사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감탄사는 '감동·응답·부름·놀람' 따위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가)와 (나)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⑤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을 '선경 후정'이라고 한다. (가)와 (나) 모두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09 (다)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덧붙인 내용으로 임에 대한 송축(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의 '아으 동동다리'는 〈서사〉, 〈정월령〉, 〈이월령〉, 〈삼월령〉 등에 반복되는 형식적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다)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가)의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후렴구로 작품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10 (가)의 제1연과 제2연은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다)의 〈정월령〉은 정월의 냇물과 비교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만춘 돌옷곶'은 타인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가)는 '가시리 가시리잇고 / ᄇᆞ리고 가시리잇고'에서, (다)는 '누릿 가온ᄃᆡ 나곤 몸하 ᄒᆞ올로 녈셔'에서 임과 화자 간의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으며, (다)의 〈이월령〉에서는 '높이 켠 등불'에 빗대어 임이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다.

▸ (다)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연정적, 과장적, 의지적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강렬한 사랑의 의지
해제	임을 그리는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낸 연정가로, 가정법, 열거법, 과장법 등을 사용하여 임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 (라) 꿈에 다니는 길이_이명한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성격	연정적, 가정적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
해제	가정적 상황과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꿈을 소재로 현재 자신의 곁에 없는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 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함.

11 (나)에서는 까투리와 도사공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과장하여 드러내고 있는데, 화자는 이들이 처한 상황보다 임과 이별한 자신의 상황이 더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다)에서는 바람, 구름, 매도 쉽게 넘지 못할만큼 고개가 험난함을 과장하지만 임이 오신다면 자신은 이 고개를 단숨에 넘어 갈 것이라면서 만남의 의지를 강조한다. (라)에서는 꿈에서 화자가 임에게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돌길도 닳을 것이라 과장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연물에 의탁하고 있지 않다. ③ 과거와 다른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④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⑤ 감정 이입의 표현이 없으며, (다)에는 이별로 인한 상실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12 매에 쫓긴 '가토리'는 화자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시적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② ㉡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열거를 통해 '도사공'의 암담함과 절망감이 고조되고 있다. ③ '가토리'와 '도사공'의 상황과, 화자의 심리를 견주어 화자의 암담함을 부각하고 있다. ④ ㉣은 화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⑤ ㉤의 '가리라'를 통해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3 '내 ᄯᅳᆺ'은 임이 자신을 떠나더라도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내 안'은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이나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자의 마음, 즉 사랑하는 임을 여읜 뒤의 절망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내 안'은 임과 헤어진 이후 화자의 마음이므로 임을 잃은 허전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화자는 임을 원망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 ᄯᅳᆺ'은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아니다. ② '내 안'은 임과 이별한 화자의 참담한 심정이므로 여기에는 자신을 떠난 임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 ᄯᅳᆺ'에 임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은 담겨 있지 않다. ④, ⑤ '내 안'과 '내 ᄯᅳᆺ' 모두 떠난 사람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도 담겨 있지 않다.

14 (나)와 (다)는 사설시조인데, 두 작품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의 ㉮와 같이 풍자와 해학을 통해 민중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임과의 이별과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한 기녀 시조로, 〈보기〉의 ㉯와 같이 남녀 간의 애정과 이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② (가)의 '못 니져 우러녜어 가ᄂᆞᆫ고'와 같이 순우리말을 구사하여 이별 상황에서의 정서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초장과 중장이 평시조에 비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④ (나)에서 노, 닻, 용총 등은 배의 운행에 필요한 도구들로,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사용한 사설시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5 〈보기〉에서는 작품마다 화자가 느끼는 정서와 태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다)의 화자는 바람, 구름, 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넘겠다고 하여 임을 만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임이 떠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을 뿐, 임을 울면서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녹수'가 흘러가더라도 '청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은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조를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임과 헤어진 자신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까투리나 도사공은 목숨까지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들도 화자에게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깊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다)의 화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고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넘겠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라)의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6~027쪽

01 운율을 형성하고 통일성을 부여하며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연을 구분한다. **02** '청산'은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의미하며 '녹수'는 가변적인 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산'은 변하지 않고 '녹수'는 변한다(흐른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관계이다. **03** ⓐ에는 매에게 쫓기는 '가토리'의 절박한 마음과 파선 상태의 배로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절박한 마음도 임과 이별한 자신의 마음에는 견줄 수 없다고 하여 임과의 이별로 인해 절망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04** • 공통점: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 • 차이점: (가)~(다)는 고정된 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반면, 〈보기〉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1 (가)에서 ㉠은 매 연 끝에 반복되는 후렴구로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또한 통일성을 부여하며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02 '청산'은 화자의 마음, '녹수'는 임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청산'은 불변성을, '녹수'는 가변성을 지니므로 대조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03 (다)에서 '가토리'는 몸을 피할 곳이 없는 뫼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으므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절박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도사공'은 파선 직전의 배에서 수적을 만나고 있으므로 역시 위급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임

과 이별한 자신에게는 견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화자가 임과의 이별로 매우 절망적인 심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4 (가)~(다)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는 3음보, (나)와 (다)는 4음보라는 규칙적인 정형적 율격에 따라 운율을 형성하는 반면 〈보기〉는 '슬픈 것은 ~는 일이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8~02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03 〈가시리〉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있지 않다.

04 〈가시리〉는 '-잇고', '-ㄹ셰라', '-쇼셔' 등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 〈청산은 내 뜻이오〉는 '우러녜어 가ᄂᆞᆫ고'에서 '녹수'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아니다.

14 〈청산은 내 뜻이오〉에서 화자가 울면서 임을 떠나보내고 있지는 않다.

15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에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17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에는 시선의 이동도 드러나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02 자연과의 조화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32~037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④
09 ⑤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⑤	18 ③	19 ④	20 ④				

01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에서 청유형을, '물아일체어니 흥이이 다ᄅᆞᆯ소냐' 등에서 의문형 어미를 확인할 수 있으나 명령형 어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를 못내 계워 소릐마다 교태로다'에서 '새'를 통해 춘흥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물아일체어니 흥이이 다ᄅᆞᆯ소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도화 행화', '녹양방초', '춘기' 등 봄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생동하는 봄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ᄂᆞᆫ 석양리에 퓌여 잇고 / 녹양방초ᄂᆞᆫ 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시비예 거러 보고 정자애 안자 보니'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02 '답청', '욕기', '채산', '조수' 등의 열거된 행위들은 자연에서의 생활에 몰입하고자 하는 의욕을 드러낸 것이다. 화자는 자연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속세를 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도화', '행화', '석양', '녹양방초' 등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봄 정경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② '새'의 울음소리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후각적 심상을 지닌 '청향'이 잔에 진다고 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른 화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⑤ '공명도 날 ᄭᅴ우고 부귀도 날 ᄭᅴ우니'는 주객이 전도된 표현으로, 이는 세속적 명리를 멀리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B]는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 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C]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를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월주인이 되었다고 하여 속세에 대한 미련 없이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A]에서 [B]로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으며, 계절의 변화나 화자의 태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B]는 꽃이 피고 비가 내리며 푸른 싱그러움이 번져 나가고, 새가 지저귀는 등 생동감이 넘치고 동적인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⑤ [C]에서 화자는 단표누항에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분지족을 누리고 있으며, [A]에서도 '산림에 뭇쳐 이셔 지락을 ᄆᆞᄅᆞᆯ 것가',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 셔라'와 같이 현재의 공간에서 안분지족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단표누항'은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화자가 궁핍한 처지 때문에 산중에 거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화자는 높은 산에 올라 마을을 바라본다고 하였다.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화자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화자는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마음을 노래했다고 하였다. 청풍명월은 자연을 나타내는 시어로, 이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친근하게 대하고자 하는 자연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화자는 입신양명에 뜻을 두지 않겠다고 하였다. '흣튼 혜음'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였다. '백년행락이 이만ᄒᆞᆫ ᄃᆞᆯ 엇지ᄒᆞ리'는 현재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5 ㉣은 화자가 이웃에게 말을 건네면서 함께 산수 구경을 가자고 권유하는 구절이다.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며, 자연에서의 생활상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홍진에 뭇친 분네'라는 청자에게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이 어떠냐고 묻는 방식을 취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도화 행화', '석양리' 등 시각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봄의 풍경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수풀에 우ᄂᆞᆫ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봄의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⑤ 잔을 씻어 부어 들고 맑은 물을 굽어보는 행위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6 화자는 속세에서 떨어진 자연 속에 들어와 이곳을 '무릉'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이상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새로운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수간모옥을 두고 있는 공간인 벽계수 앞은 속세에서 벗어난 자연의 공간이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을 가까이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비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며 소요음영하고 산일이 적적한 가운데 한중진미를 느끼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한가함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모습으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답청과 욕기, 채산과 조수는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이를 매일같이 하자는 말은 화자가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⑤ '공명'과 '부귀'는 속세에서 추구하는 세속적 욕망으로, 이를 멀리하고 '단표누항'과 같이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세속적 욕망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깨닫고 자연 속에서의 삶의 가치를 깨달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7 이 글은 화자가 '수간모옥(좁은 공간) → 시비, 정자 → 시냇가 → 봉두(넓은 공간)'로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역동적인 분위기에서 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지 않다. ④ '이바 니웃드라'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인화된 청자는 아니다. ⑤ 외부 세계와 화자의 내면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08 ㉮는 새봄이 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 주는 자연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자연물로 화자의 경탄을 자아낸다. ㉯는 술을 마시며 자연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는 자연물이다.

오답 해설 ① ㉮를 보며 화자는 봄날 자연 공간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환기할 수 있으나, ㉯는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하지 않는다. ② ㉮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내는 자연물로 화자의 그리움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는 화자 자신이 '무릉'이라는 이상 세계 가까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나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일깨우지는 않는다. ③ ㉮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나, ㉯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기대를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⑤ ㉮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화자가 시각적으로 감각하게 한다. 반면 ㉯는 실제 시냇물에 떠내려온 자연물로, 화자의 착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09 화자는 아름다운 봄의 정경을 완상하며 자연과 물아일체를 이루어 감흥에 젖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지난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한중진미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에서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의 참다운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고 칭하며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녯사ᄅᆞᆷ 풍류ᄅᆞᆯ 미출가 못 미출가'라고 하여 옛사람들이 느꼈던 풍류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자신도 이를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공명도 날 ᄭᅴ우고 부귀도 날 ᄭᅴ우니'라고 말하며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청풍명월 외예'는 벗이 없다고 한 후, '단표누항에 흣튼 혜음'을 안 한다고 하여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산림'은 자연을 뜻하는 시어로, 화자가 살고 있는 소박한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홍진'은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의미한다. ③ '한중진미'는 '한가한 가운데 깃드는 참다운 맛'을 의미한다. ④ '검은 들'은 푸르름을 잃어버렸던 겨울 들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단표누항'은 선비의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로, 화자가 지향하는 청빈한 삶을 의미한다.

11 〈보기〉는 표현 기법 중 하나인 감정 이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가 봄기운에 겨워 교태로운 소리를 낸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춘흥을 자연물인 '새'에 투영시킨 감정 이입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은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화자의 생각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③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는 화자와 자연이 하나된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한 것으로, 자연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아니다. ④ '무릉이 갓갑도다 져 ᄆᆡ이 긘 거인고'는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무릉도원이 가깝다고 표현한 것으로, 자신이 있는 자연 공간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⑤ '청풍명월 외예 엇던 벗이 잇ᄉᆞ올고'는 자연만이 자신의 벗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청풍명월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아니다.

12 [A]에는 봄과 겨울의 대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B]는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유여ᄒᆞᆯ샤'에서 겨울의 들 풍경과 봄의 들 풍경을 대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의 '칼로 ᄆᆞᆯ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B]도 '연하일휘ᄂᆞᆫ 금수ᄅᆞᆯ 재폇ᄂᆞᆫ ᄃᆞᆺ'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A]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경탄은 드러나 있으나 겨울이 지나감에 따른 아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는 '녹양방초', '프르도다' 등과 같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나, [B]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는 '도화 행화', '녹양방초' 등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봄의 변화무쌍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13 '답청', '욕기', '채산', '조수'는 모두 화자가 봄을 적극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봄놀이이다.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은 내내 봄을 즐기겠다는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한중진미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라고 표현한 구절로 보아, 한중진미는 현재 화자가 봄을 완상하며 유유자적하는 자족적인 세계에서 홀로 느끼는 즐거움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화자는 닫힌 세계에서 열려진 세계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이는 이웃들을 불러 함께 산수 구경을 가자고 권유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화자가 산수 구경을 가자고 권유하는 대상인 '니웃'은 화자를 포함하여 화자와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자연에 은거하여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봄을 맞이하여 고조된 감정을 '진다'는 표현을 통해 스스로 다스리고 절제하려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이 글은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산에 가서 쉬다가 오면 '없던 내 정신'이 '풀빛'과 '반짝어림'을 띤다고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후덥지근한 냄새', '흙냄새', '골짜기 냄새' 등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연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1연의 '후덥지근한 냄새', 2연의 '목숨의 골짜기 냄새', 3연의 '후덥지근한 냄새' 등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각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④ 2연의 '아,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에서 쉼표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15 '아,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마음은 일상에 지친 화자가 잠시 산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시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한동안을 거기서 / 내 몸을 쉬다가 오면'이라는 구절로 보아, 산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무와 풀'은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들이 우거졌

다는 것은 산이 건강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② 산이 내뿜는 후덥지근한 냄새는 산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냄새를 맡는 행위는 산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④ '없던 내 정신'은 화자가 산에 가기 전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⑤ 몸 전체에서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는 것은 산의 생명력을 받아들여 화자의 온몸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나타낸다.

16 이 글은 산이 내뿜는 '후덥지근한 냄새'를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을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보기〉는 '도화 행화'가 석양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가 푸른 봄의 풍경, 수풀에 우는 새의 '소리' 등 시각적, 청각적 심상으로 봄에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는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가 피어 있고 녹양방초가 푸르게 돋아나고 새가 지저귄다고 하여 자연의 다채로운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산이 내뿜은 생명력으로 화자의 몸과 마음이 다시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으나, 〈보기〉에서 자연이 화자의 신체에 미친 영향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의 화자는 일상에 지친 상태에서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기〉에서 자연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뇌를 잊고자 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는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ᄉᆞ롭다'라고 하여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 대해 감탄하고 있으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17 3연의 '후덥지근한 냄새'는 후각적 이미지로, 화자가 산에 가서 휴식을 취하며 산의 생명력을 느끼고 이를 받아들여 온몸에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후덥지근한 냄새'는 후각적 이미지로, 산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②, ③ 2연의 '흙냄새', '목숨의 골짜기 냄새'는 후각적 이미지로, 산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④ 3연의 '풀빛', '반짝어림'은 시각적 이미지로, 자연에서의 휴식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 상태를 나타낸다.

18 화자는 '산에 가면' 우거진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 산에서 '내 몸을 쉬다가 오면' '없던 내 정신'이 '풀빛'을 띠고 '나뭇잎 반짝어림'을 띠면서 '내 몸 전체'에서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하여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산에 가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지만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산에 가서 잠시 쉬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가 산에 간다고 해서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화자는 산에 가서 생명력을 느끼지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고자 하는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⑤ 화자는 산에 가서 나무와 풀이 우거진 모습을 보며 조화로운 광경을 경험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화자가 자연을 낭만적인 공간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다.

19 화자는 산에 가서 우거진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자연의 생명력을 느낀다. 그러나 자연에 대해 질시와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③ 나무와 풀은 산을 이루는 일부로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뿜어 화자가 산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온몸에서도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하여 생명력과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하는 자연물이다. ② 일상에 지친 화자는 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를 맡고 다시 활력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⑤ 나무와 풀은 산을 이루는 일부로서 우거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산의 넘치는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20 '내 몸 전체'에서 '정신의 그릇을 넘는'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는 것은, 산에서의 휴식을 통해 화자의 몸과 마음이 모두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가 육체적 회복보다 정신적 회복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녔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산에 가서 맡게 되는 우거진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는 자연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화자가 산을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화자는 산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화자가 산을 찾은 이유가 산을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산에 가서 일상에 지친 상태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임을 나타낸다. ③ '없던 내 정신'은 일상에 지쳐 있는 화자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풀빛'과 '반짝어림'을 띠게 되었다는 것은, 지친 화자가 산에서 휴식을 취하며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⑤ 산이 '내 몸 전체'에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는 것은 화자가 산에서 휴식을 취하며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8~043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① 06 ③ 07 ① 08 ②
0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⑤ 14 ⑤ 15 ③ 16 ②
17 ⑤ 18 ② 19 ④

01 (가)는 '도화 행화ᄂᆞᆫ 석양리에 퓌여 잇고 / 녹양방초ᄂᆞᆫ 세우 중에 프르도다'에서 시각적 심상을,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 소릭마다 교태로다'에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인 자연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우거진 나무와 풀의 / 후덥지근한 냄새', '흙냄새까지 서린' 등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산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는 정서를 감탄의 어조로 드러내고 있으나 반성적 어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도 반성적 어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는 '연하일휘ᄂᆞᆫ 금수ᄅᆞᆯ 재폇ᄂᆞᆫ ᄃᆞᆺ'에서 비유를 통해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나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에서도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는 가까운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먼 산의 경치로 시선을 옮기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심리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나)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다.

02 '흙냄새'는 산(자연)이 지닌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화자가 산을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산을 영험하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칼로 재단한 듯, 붓으로 그림을 그린 듯하다고 하여 봄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 경탄하고 있으며, 조물주의 솜씨가 신비롭다고 하여 이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소요음영하면서 한중진미를 혼자만 즐긴다고 표현하여,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공명, 부귀와 같은 세속적 욕망을 꺼리고 자연인 청풍명월만이 벗이라고 하는 것에서, 탈속적 삶에 대한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없던 내 정신'은 일상에 지친 상태를 나타내며, 풀빛을 띤다고 하여 다시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03 (가)에서 ⓐ('산림')는 화자가 봄의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즐기며 자연 속에서의 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단표누항'과 같은 청빈한 삶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산')는 화자가 몸을 쉬다 오면 몸 전체에 후덥지근한 냄새가 나게 한다고 하여 화자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무릉'으로 상징되는 이상 세계가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뀌는 공간은 아니다. ③ ⓔ는 화자가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들어온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공간이므로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공간은 아니다. (나)에서 화자가 절대적 고독을 느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는 화자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여기는 공간으로, 자연과 동화된 듯한 느낌을 받는 공간이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자연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에서 화자는 겨울과 달라진 봄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E]의 '검은 들'이 '봄빛'으로 가득한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겨울 들판에 봄기운이 만연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석양'(저녁에 떨어지는 해), '세우'(가늘게 내리는 비)는 하강 이미지를 지닌 시어이며, 피는 '꽃'과 돋아 나는 '풀'은 상승 이미지를 지닌 시어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낸다. ② 오늘은 답청, 내일은 욕기, 아침에는 채산, 저녁은 조수 등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일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다. ③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수 놓고 먹겠다는 것은 술을 천천히 과하지 않게 마시겠다는 것으로, 이는 절제된 풍류를 보여 준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는 것은 술을 마시며 즐기는 흥취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가)의 화자는 한중진미를 알 이 없이 혼자서 시를 읊으며 걷고 있다. 따라서 시를 주고받는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수간모옥을 벽계수 앒픠 두고 /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퓌여 잇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청류롤 굽어보니 써오ᄂᆞ니 도화ㅣ로다 / 무릉이 갓갑도다 져 ᄆᆡ이 귄 거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나)의 화자는 산에 가면 '우거진 나무와 풀'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자신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자신의 정신도 '비로소 풀빛을 띠면서' 생명력을 회복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거진 나무와 풀이 비로소 풀빛을 띠는 것은 아니며, 화자가 이를 통해 자연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한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연 친화적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하였는데, 화자는 봉두에 올라 바라본 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연하일휘는 금수롤 재폇ᄂᆞᆫ듯'이라고 묘사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에서 (가)는 자연과 어울려 하나 되는 삶의 가치를 노래했다고 하였는데,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는 자연에 동화된 듯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하였는데, '후덥지근한 냄새'가 나는 '산'이 '내 몸 전체'에서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가), (나)는 자연 친화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가)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자연을 즐기는 '백년행락'이 '이만ᄒᆞᆫ 돌 엇지ᄒᆞ리'라고 하여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아, 여기다, 하고 눕고 싶'다고 하여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나) 강호사시가_맹사성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연시조
성격	풍류적, 전원적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해제	강호(자연)에서 사계절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내용을 춘하추동의 사계절로 나누어 노래함.

07 (가)는 '이바 니웃드라 ~ 조수 ᄒᆞ새'에서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봄을 함께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산책하기, 목욕하기, 나물 캐기, 낚시하기 등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계절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나)에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 (나)에는 감정 이입에 의한 심리적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 (나)에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부각하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08 (가)의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며 '단표누항'에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삿갓 비껴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는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나)의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자연에 들어와 생활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자연에서의 생활에 만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스스로 원해서 자연에 들어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⑤ (가)와 (나)의 화자는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고 있다.

09 '무릉'은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화자가 연상한 공간으로, 이는 현재 자연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내포한다.

오답 해설 ① '산수'는 화자가 이웃들과 봄 경치를 함께 구경하고 싶은 공간이지만,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③ '봉두'는 화자가 봄기운이 가득한 마을을 내려다보는 공간이지만, 속세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지는 않는다. ④ '시냇가'는 화자가 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흥취를 느끼는 공간이지만, 화자의 이중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조그마한 배'는 화자가 소일거리로 삼는 고기를 낚는 공간으로, 화자의 고단한 현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10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먹는다는 표현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미음완보하고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은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검은 들'이 봄빛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며 감탄하는 화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초당에 일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여름날의 한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도롱이로 옷을 삼아'라는 구절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1 (가)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물아일체를 느끼며 자연에 대한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세속적 삶에 대해 미련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사는 자신의 생활에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② 자연 속에서 흥취를 드러내며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로부터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③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자연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토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A]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의 정경 속에서 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 흥겨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반해 〈보기〉에는 눈이 녹아 푸른색을 되찾아가는 봄의 풍경과 달리, 늙음을 탄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 서글프게 느껴진다.

오답 해설 ① [A]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드러내고 있으나 봄에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② [A]에 봄과 겨울을 대조하는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롤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에서 새를 의인화하여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Plus 〈보기〉 율리유곡_김광욱

갈래	연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전원적
주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해제	세상의 부귀공명을 잊고 자연에 묻혀 한가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노래함.

13 (가)의 부귀와 공명이 화자를 꺼린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나)의 미더운 강 물결은 화자에게 바람을 보내주는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청풍명월을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친밀감을 알 수 있다. ② 소일하는 것이 임금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종장에 표현하고 있다. ③ (가)에는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 가자고 말하는 장면에서, (나)에는 봄에 대한 흥겨움을 '미친 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모습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④ (가)는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는 모습에서, (나)는 도롱이를 입고 겨울을 보내는 모습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소박한 삶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나) 고산구곡가_이이

핵심 정리

갈래	평시조, 연시조
성격	교훈적, 예찬적, 풍류적
주제	학문 수양의 즐거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해제	고산의 풍광을 학문 수양과 연계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한 연시조로,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짐.

14 (가)는 '도화 행화', '녹양방초' 등의 자연물을 통하여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역시 〈3수〉에서 '곳(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8수〉에서 '청상(맑은 서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가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10수〉에서 '눈'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에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는 자연물이나 공간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 역사적 인물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나)의 '주자'는 역사적 인물로 볼 수 있으나, 그를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15 ⓑ는 화자가 앉아서 '한중진미'를 느끼는 공간이고, ⓔ는 술을 마시며 일출을 즐기는 공간이다. ⓑ와 ⓔ가 주위의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의 거처이며, 화자는 이곳에서 출발하여 ⓑ와 ⓒ로 이동하고 있다. ② ⓔ와 ㉠는 화자가 은거한 ⓓ를 구성하는 장소들로, 각각 구곡 중의 하나이다. ④ '벽계수 앞픠 두고'를 통해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주모복거ᄒᆞ니 벗님ᄂᆡ 다 오신다'를 통해 (나)의 화자가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청류'를 굽어보고 'ᄆᆡ'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낸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단풍에 둘러싸인 ㉠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16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를 ᄆᆞᆺ내 계워 소ᄅᆡ마다 교태로다'는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취를 새에게 투영한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있다. 새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녯사ᄅᆞᆷ 풍류ᄅᆞᆯ 미ᄎᆞᆯ가 못 미ᄎᆞᆯ가'에서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고 있음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에서 스스로를 풍월주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친화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볼 수 있다. ③ '답청으란 오ᄂᆞᆯ ᄒᆞ고 욕기란 내일 ᄒᆞ새 / 아ᄎᆞᆷ에 채산ᄒᆞ고 나조히 조수ᄒᆞ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새 진다'에서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물아일체의 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청류ᄅᆞᆯ 굽어보니 ᄯᅥ오ᄂᆞ니 도화ㅣ로다 / 무릉이 갓갑도다 져 ᄆᆡ이 긘 거인고'를 통해 화자가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봄의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 '저 ᄆᆡ'는 화자가 '무릉'처럼 여긴 곳으로, 화자가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한 것을 나타낸 것이지,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수간모옥'을 거처로 두고 자연을 즐기고 있으므로, '수간모옥'은 작가가 유거를 체험하는 거주지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봄날의 자연 경치를 보며 흥취를 느끼고 있는데 이를 '흥이이 다ᄅᆞᆯ소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유거를 통해 느낀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답청, 욕기, 채산, 조수는 화자가 자연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④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무릉이 갓갑도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있는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18 〈보기〉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 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A]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와 [A]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③ 〈보기〉의 '눈물겨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A]는 화자가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으로 묘사하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보기〉의 '석양'은 고려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A]의 '석양'은 '도화 행화'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A]에서는 '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 엇더ᄒᆞ고'와 같이 청자를 부르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Plus 〈보기〉 흥망이 유수하니_원천석

갈래	평시조
성격	회고적, 감상적
주제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무상감
해제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려 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인생무상의 정서를 표현함.

19 ㉣은 '사람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모르니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미로, 화암의 늦봄 경치와 계곡의 절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은 '홍진(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자신의 자연 친화적인 삶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으므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은 이웃 사람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내용이지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③ ㉢은 술동이가 비었으면 자기에게 알리라는 내용으로,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⑤ ㉤은 직접 와서 살펴보지 않으면서 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속의 경박함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44~045쪽

01 ⓐ는 세상 사람들이 공명과 부귀를 추구하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며 청빈한 삶을 사는 공간이다. 02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긴다. 03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1 [A]에서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꺼린다고 하였는데, 화자는 '홍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이 어떠하냐고 물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는 세상 사람들이 공명과 부귀를 추구하는 세속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에서 화자는 단표누항에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화자에게 ⓑ는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청빈한 삶을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02 화자는 산에서 후덥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고, 산이 '내 몸 전체에서'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고 하여 일상에 지친 상태에서 찾은 산에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산은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가)에서 화자는 자연을 의미하는 '산림'에서의 생활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산'에서 생명력을 느끼며 자신도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46~04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1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04 좁은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넓은 공간인 '시냇가', '봉두' 등으로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2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7 시적 공간인 산은 역동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03 해학과 풍자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50~055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①	05 ③	06 ⑤	07 ⑤	08 ①
09 ②	10 ①	11 ①	12 ④	13 ③	14 ③	15 ②	16 ②

01 흥보는 "볼기 구실 들어 보소."라고 하며 이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인물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장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의 시선에서 인물들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④ 흥보 큰아들이 동생들을 하늘에 사무칠 듯 꾸짖는다고 하여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⑤ 서술자는 중심인물인 흥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02 돈 닷 냥을 가져 온 흥보를 보며 흥보 아내는 "먹으니 좋소만 그 돈은 어디서 났소?"라고 하여 돈의 출처를 궁금해 하나 돈 받기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흥보는 허황된 요구를 하는 자식들을 보며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로구나."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② 흥보는 마삯 돈 닷 냥을 받아 차고 당당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애기 어멈, 게 있는가."라고 하며 아내를 찾고 있다. ④ 흥보가 곤장 맞고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하자 흥보 아내는 "저 몰골에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 될 것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라고 하면서 흥보가 매품 팔겠다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⑤ 흥보 큰아들은 제 동생들을 꾸짖으면서 흥보에게 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03 ㉣에서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을 사 달라고 하자 흥보가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입게야?"라고 질책하는 것으로 보아, ㉣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용적인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흥보 아내는 흥보가 돈을 가져오자 웬 돈이냐며 놀라고 있다. ② 매품팔이를 만류하는 아내에게 볼기 구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정을 위해 아내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닌 흥보의 모습을 드러낸다. ③ 흥보 자식이 오동철병을 사 달라고 하자 흥보는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찰 거냐며 질책하는데, 이는 자식이 철없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흥보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품을 팔러 가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04 [A]에서 흥보는 볼기 구실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오답 해설 ② [A]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비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에서 흥보는 인물에 대해 논평하고 있지 않다. ④ [A]에 불가능한 상황 설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A]는 흥보가 아내의 물음에 대해 답하는 것이므로 독백이 아니다.

05 흥보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매품 팔러 간다고 하니 값비싼 물건들을 사 달라며 허황된 요구를 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 자식들의 철없는 성격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흥보는 자식들이 허황된 요구를 하자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와 같이 핀잔을 주는데 이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철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으로, 가부장적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흥보의 자식들이 흥보에게 과한 요구를 하는 것과 냉정한 성격과는 무관하다. ④ 흥보는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와 같이 말하며 자식들의 나이 어림을 지적하고 있으나,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숨기는 것은 아니다. ⑤ 흥보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허황된 요구를 하는 동생들에게 "에라 심하구나, 후레아들 놈들."이라며 질책하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하는데 이 역시 자식의 철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06 홍보가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로구나."라고 말한 것은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자식들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능한 아버지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홍보는 본읍 좌수 대신 곤장을 맞고 삼십 냥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매품까지 팔아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홍보가 본읍 좌수 대신 곤장을 맞기로 한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죄에 대한 처벌까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당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홍보 아내는 매품을 팔겠다는 홍보의 말을 듣고 곤장을 맞으면 혼백이 될 것이라고 하며 만류하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매품팔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④ 홍보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품을 팔러 가는데 이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매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던 홍보의 극도로 궁핍한 처지를 드러낸다.

07 이 글의 인물들은 매품을 팔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지만 이들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놈 아주 거기서 게정을 먹더니라'에서 김딱직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② 인물들은 자신의 가난한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서로 자신이 가장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대화를 통해 이들의 궁핍한 처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도군뢰의 외양을 묘사하여 병영의 엄숙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08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라는 것은 홍보가 처음 마주한 영문의 엄숙함을 나타낸 것으로, 병영에 당도한 기쁨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저승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병영의 엄숙한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홍보를 장자, 즉 부자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신이 홍보보다 더 가난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매품 파는 순서를 먼저 온 순서대로 한다고 하자, 자신이 가장 먼저 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한 말로 볼 수 있다. ⑤ 족히 먹고살 수는 있겠다는 것에서 상대방의 가난은 가난도 아니라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09 '조자룡이 강을 넘던 청총마',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과 같은 고사를 활용하여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는 없어 병영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홍보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홍보가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다. ③ 의인화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어디서 잘꼬', '몇 밤 자고 가잔 말가' 등에서 의문형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언제쯤 병영에 도착할지 막막해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지, 병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홍보는 병영에 가기까지 험난함에 대해 탄식을 하고 있으므로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10 가난은 일반적으로 자랑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이를 자랑하여 매품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던 상황을 보여 주는데(ㄱ), 이 상황 자체가 역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ㄴ)

오답 해설 ㄷ: 가난 자랑은 서로 매품을 팔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는 가난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ㄹ: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더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1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오 인이 앉았'다고 했는데 이들은 모두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로, 이는 당시 매품을 파는 행위가 성행할 정도로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 준다. 가난한 이들이 연대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솔봉 애비는 평안도 사방동에서, 김딱직은 경상도 문경에서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로, 이를 통해 당시 온 나라에 생계를 위해 매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이십오 대 가난', '사십육 대 호적 없이 남의 곁방살이'는 그만큼 오랫동안 가난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는 가난이 대대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 준다. ④ 닫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가 없다는 것은 벼룩과 같은 아주 작은 벌레도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집이 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⑤ 집이 좁아 담 밖으로 삐져 나온 아내의 궁둥이를 아이들이 치는 소리가 관등 다는 소리 같다고 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가난한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웃음으로 비극을 극복하려는 해학적 특성이 드러난 것이다.

12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홍보 아내 거동 보소.'에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가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②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③ '샘물같이 솟아 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흩뿌리며' 등에서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13 홍보는 서로 자신들의 가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 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라며 매품 파는 것을 포기하는데, 이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홍보가 자신은 오히려 부자임을 깨닫고 자랑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홍보가 사람들에게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 갑세."라고 제안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홍보가 아내에게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 한때 볼 것이니 서러워 말고 살아나세."라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홍보 아내가 "우정 가장 애중 자식 배곯리고 못 입히는 내 설움'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김딱직이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소. 내 가난 들어 보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B]에서 홍보 아내는 아황, 여영, 왕소군 등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설움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슬퍼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홍보는 "무슨 밥이 좋던 게요? 보리밥이 좋거던. 무슨 국이 좋던 게요? 비짓국이 좋거던."과 같이 자문자답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상대의 오해를 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A]에서 홍보는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 불러 보자."와 같이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 배고픔을 잊기 위해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데, 이는 불안해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아내는 홍보가 매품을 팔지 않고 돌아온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있다. ④ [B]는 '아황 여영 설움', '왕소군의 설움', '반첩여의 설움'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A]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노래를 불러보자고 하며 여러 음식들을 열거하여 이를 먹지 못하는 홍보의 처지를 부각한다. 그러나 [B]는 음식을 매개로 궁핍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15 동네 아이들이 아내의 궁둥이 치는 소리가 관등 다는 소리 같다고 한 것은 집이 너무 좁아 궁둥이가 담 밖으로 나올 만큼 가난한 처지라는 것을 과장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가난을 이유로 핍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부엌의 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가래톳이 서서 드러누웠다고 한 것은, 쥐조차 주워 먹을 밥알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을 나타낸 것이다. ③ 홍보 아내는 홍보가 돌아오자 서럽게 우는데, 이는 남편이 매품을 팔고 온 줄 알았기 때문이다. ④ 홍보 아내는 남편이 매를 맞지 않고 오자 이런 영화가 또 있겠냐며 기뻐하는데, 이는 돈보다 남편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⑤ 접동 두견 꾀꼬리가 슬피 운다고 하는 것에서 감정 이입이 나타나며, '뉘 아니 슬퍼하리'는 인물의 처지에 대한 편집자의 주관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가난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16 '족히 먹고살 수는 있겠소'는 상대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놈 아주 거기서 계정을 먹더니라'는 김딱직의 말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 표현이 가난한 처지를 과장하여 매품을 팔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삼순구식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매우 가난함을 나타낸다. 집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밥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 표현은 모두 가난 때문에 끼니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는 생활상을 드러낸다. ③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흥보조차 장자라 일컬을 수 있어 매품도 팔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극심한 가난을 겪는 백성들이 많았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놈'은 상대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속어이므로 서민층의 언어문화로 볼 수 있고, '삼순구식'은 한자어이므로 양반층의 언어문화로 볼 수 있다. ⑤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음식 노래를 부르고,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한 것에 대해 설움을 토로하는 것은 가난한 삶의 애환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56~061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①	05 ②	06 ③	07 ②	08 ③
09 ⑤	10 ①	11 ③	12 ①	13 ①	14 ②	15 ③	

01 "이내 몸이 정승 되어 평교자에 앉아 볼까, ~ 매품이나 팔아먹세.", "조자룡이 강을 넘던 ~ 몇 밤 자고 가잔 말가." 등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조자룡이 강을 넘던 청총마',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 등에서 고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흥보의 성격에 빗댄 것은 아니며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지도 않다. ④ 흥보와 아내, 흥보와 자식들 간의 대화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지도 않다.

02 흥보 아내는 남편이 매품을 팔아 돈을 벌어 오겠다고 하자,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 될 것이니 제발 덕분 가지 마오."라며 만류하는데, 이는 돈보다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심리를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흥보는 허황된 요구들을 하는 자식들을 보며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라고 탄식하는데, 이는 자신이 매품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는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사 달라는 자식들의 철없음에 대한 탄식이다. ② 흥보는 병영의 엄숙한 분위기에 속으로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병영의 엄숙한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지, 매 맞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③ 흥보 아내는 오랜만에 돈을 벌어 온 흥보에게 "그 돈은 웬 돈이며 삼십 냥은 웬 돈이오?"라고 묻는데, 이는 돈의 출처에 대한 궁금함을 나타낸 것이지, 오랜만에 돈을 벌어 온 흥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⑤ 흥보 큰아들은 동생들이 아버지에게 허황된 요구를 하자 화를 내며 "에라 심하구나, 후레아들 놈들."이라고 하는데, 이 후 자신은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정 내에서 장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03 아내가 흥보의 안위를 염려하여 매품팔이를 반대하자 흥보는 볼기 구실에 대해 열거하며 매품이라도 팔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내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흥보는 마삯으로 닷 냥을 받아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부르는데, 이는 오랜만에 돈을 벌어 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② 아내는 흥보가 받아온 돈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어디서 난 돈이냐며 돈의 출처를 묻고 있는데, 이는 돈을 벌어 온 것에 대한 기쁨과 돈의 출처에 대한 걱정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 ③ 대신 곤장을 맞고 삼십 냥을 받기로 했다는 것에서 죄인 대신 벌을 받고 돈을 버는 행위가 가능했던 당시 시대 현실이 드러난다. ⑤ 흥보는 마삯으로 닷 냥을 받았으나 병영까지 언제 걸어서 갈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이는 흥보가 마삯으로 받은 돈을 가족들을 위해 쓰고 매품을 팔러 걸어가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나타낸다.

04 [A]에서 흥보 자식들은 매품을 팔러 간다는 아버지에게 값비싼 물건들을 사 달라고 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흥보 자식들의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값비싼 물건들을 요구하는 흥보 자식들은 경제 관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자식들을 질책하는 흥보의 모습에서 이들의 경제관이 다르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흥보 가족이 가난을 겪는 원인은 아니다. ③ 흥보가 자식들을 질책하고는 있으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세대 간의 갈등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흥보 큰아들이 허황된 요구를 하는 동생들을 꾸짖지만 이를 통해 장자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흥보 자식들은 흥보의 질책에도 계속 자신들의 요구를 거두지 않으므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05 '오동철병', '담비 가죽 탕평채' 등은 흥보 자식들이 흥보에게 사 달라고 요구하는 물건들로, 값비싼 사치품들이다. 이는 흥보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들의 철없는 성격을 보여 주는 것으로, 당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물건들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서민들이 쓰던 도구가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판소리에서는 특정 장면을 축소, 확장한다고 했는데, 흥보가 볼기 구실에 대한 여러 상황을 열거하여 장면을 확장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에 해당한다. ③ 〈보기〉에서 판소리는 풍자와 해학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흥부 자식이 '귀밑머리에 차도 찰 터이옵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 터'라고 말하는 것은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이는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판소리는 서민과 양반의 언어가 혼재한다고 했는데, '후레아들 놈'과 같은 속어와 '천기누설' 등과 같은 한자어가 함께 쓰인 것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판소리는 관객을 공연에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도군뢰의 치레 보소'에서는 창자가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드러낸다.

06 '접동 두견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 우니 뉘 아니 슬퍼하리.'에서 서술자가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를 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재 상황과 과거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② 인물들의 말에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④ 풍자적 어조나 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뉘 아니 슬퍼하리'에 의문의 진술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중심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07 솔봉 애비는 평안도에서 매품 팔러 왔다고 하였으며, 김딱직은 경상도 문경에서 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가 더 자주 매품을 팔았는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흥보가 병영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오 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매품 팔러 온 사람들이었다. ③ 흥보는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먼저 왔다고 주장하자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매품을 팔아 가자고 제안한다. ④ 흥보 아내는 왈칵 뛰어 달려들어 흥보 소매 검쳐 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섧게 울다가 흥보가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자 "얼씨구나 즐겁도다. ~ 이런 영화 또 있을까."라며 안심하고 기뻐한다. ⑤ 흥보 아내가 설움을 토로하자 흥보는 함께 슬퍼하다가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 한때 볼 것이니 서러워 말고 살아나세."라며 아내를 위로한다.

08 흥보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매품 파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흥보가 ㉠과 같이 말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가난은 가난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매품 파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지만 흥보가 이에 혐오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④ 흥보는 매품을 팔지 못하고 돌아와 아내를 위로하면서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에서 흥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흥보는 매품을 팔아도 가난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은 가난한 축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매품팔이를 포기한 것이다.

09 ㉡에서 흥보 아내는 고사 속 인물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설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흥보 아내가 자신이 겪는 설움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집이 좁은 현실을 미물인 '벼룩'이 쪼그려 앉을 데가 없다는 상황에 빗대어 가난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② ⓑ는 사발을 의인화하여 선반에서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며 가난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는 가난한 상황을 열거하고, 또 그 모습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내의 궁둥이가 담 밖으로 나간다는 서술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④ '~이 좋던 게요? ~거던.'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10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다는 것은 매품을 팔기 위해 일찍 온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라는 말로 보아, 매품 파는 방식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매품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먼저 왔다고 주장하자 흥보는 가난 자랑을 하여 매품 파는 것을 정하자고 제안하는데, 이에 '그 말이 옳다'라며 서로 가난 자랑을 하는 것에는, 매품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③ 삼순구식은 삼십 일에 아홉 끼니를 먹는다는 것으로, 이것조차 먹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극심한 가난을 보여 준다. ④ '누워 있으면 내 상투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 보'인다는 말은 집이 매우 좁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가난한 상황을 드러낸다. ⑤ 흥보 아내는 '가장 애중 자식 배곯리고 못 입히는 내 설움'을 말하는데 이는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궁핍한 삶에 대한 설움으로 볼 수 있다.

▸ 미스터 방_채만식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현실 비판적
주제	권력을 좇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태와 기회주의적 인간상 비판
해제	신기료장수 방삼복이 미군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잡는 과정을 통해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풍자함.

11 서술자는 주요 등장인물인 방삼복과 백 주사의 심리 상태는 물론, 백 주사가 예전의 부를 되찾기 위해 불쾌하지만 방삼복에게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건 등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②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④ 회상과 관련된 장면은 없으며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는 액자 소설식 구성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상의 입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12 ㉠은 백 주사가 방삼복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간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고 동시에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므로,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가 이에 부합하는 속담이다.

오답 해설 ②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빈 외양간을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상대편이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도 상대편에게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⑤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뒤에 가서 불평함을 이르는 말로, 화가 난 마음을 애매한 다른 곳에 옮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3 친일파로 일제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백 주사의 몰락을 가져온 해방의 시대 상황은 올바른 역사의 흐름이지, 개인을 억압하는 부당한 시대 변화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백 주사가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상황을 반전시켜 옛날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방삼복을 이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방삼복은 미군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 주사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데, 이러한 방삼복의 태도는 해방 직후 사회의 혼란상을 비판적으로 보여 준다. ④ 광복 직후의 혼란기에 기회를 엿보다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이 되어 권세를 누리는 방삼복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해방 전 자기가 권력을 누릴 때는 대수롭지 않았던 존재였던 방삼복이 미군정 시대에 권력을 행세하는 존재가 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부탁하는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 감상이 가능하다.

14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는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에서 백 주사는 자신이 무시하던 방삼복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쯤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5 친일파였던 백 주사가 미군을 등에 업고 출세한 방삼복에게 접근한 것은 해방으로 인해 몰락한 일본보다는 강한 미국의 힘에 기대어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친일파로 잘나가던 백 주사가 몰락하고, 신기료장수에 불과했던 방삼복이 권력을 잡은 것은 그만큼 해방 직후의 우리 사회가 혼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친일 행각으로 재산을 모은 백 주사가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방삼복이 백 주사가 친일 행위를 통해 재산을 모은 것을 알고서도 그의 재산을 되찾아 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방삼복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자신의 통역관에 불과한 방삼복에게 재산과 권력을 안겨 줄 수 있는 S 소위의 모습은 해방 이후 진주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힘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62~063쪽

01 (1) 매품 파는 것을 반대하는 아내를 설득해 매품을 팔기 위해서이다. (2) 흥보가 매를 맞지 않고 온 것에 대해 기뻐했다. 02 ㉠: 책임감, ㉡: 애정 03 흥보 아내 거동 보소 04 ㉠은 '천기누설'과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여 양반층의 언어가 나타나고, ㉡은 '후레아들 놈'과 같은 속어를 사용하여 서민층의 언어가 나타난다.

01, 02 흥보는 남편을 걱정하여 매품 파는 것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볼기의 구실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다음, "쓸데없는 이내 볼기 놀려 무엇한단 말인가. 매품이나 팔아먹세."라고 하며 매품을 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매품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 준다. 한편 흥보 아내는 흥보가 매품을 팔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자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낭군 병영 내려갔다 매 아니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라며 기뻐한다. 이는 돈보다 남편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흥보 아내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03 '흥보 아내 거동 보소'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으로, 이는 판소리 현장에서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보기〉에서 이 글은 서민층이 사용하던 일상어와 속어, 양반층이 사용하던 한자어나 한문투의 표현들이 뒤섞여 있다고 하였다. ㉠에는 '천기누설'이라는 한자어가, ㉡에는 '후레아들 놈'이라는 비속어가 사용되어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혼재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64~06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03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독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서술자는 부조리가 판치는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풍자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으나, 중심인물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12 흥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허황된 요구를 하는 동생들을 꾸짖은 다음, 자신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것을 사 달라고 요구한다.

14 흥보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매품을 팔자고 제안하고 있다.

18 흥보는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듣고 자신에게까지 매품 팔 순서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여 매품 파는 것을 포기했으나, 자신이 부자라며 자랑하듯 말한 것은 아니다.

2 함께 해결하는 국어

01 협상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70~075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①	05 ①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③	11 ②	12 ⑤	13 ②	14 ③	15 ③	16 ②

01 이 글은 협상의 시작 단계로, 선곡의 중복 문제, 연습실 사용 등에 대한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②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③ 협상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④ 쟁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일부 수용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최선의 해결책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나타나 있지 않다.

02 달빛고 대표는 최근 큰 인기를 얻은 곡이라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적합하다는 이유로 선곡했고 소품까지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다른 곡으로 바꾸는 게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연 준비에 이미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이유로 선곡 변경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 대표는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데 이 곡만큼 적합한 다른 곡을 찾기가 어려워 곡을 바꾸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④, ⑤ 태양고 대표는 '연습실은 공평하게 격일제로 번갈아 이용'하자고 하였으며, 달빛고 대표는 '연습실은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 각 팀이 2~3일씩 연속해서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03 〈공연 안내〉 표를 보면 달빛고와 태양고 댄스 동아리의 공연 곡명이 「□□□」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ㄴ). 또한 달빛고와 태양고는 같은 제3 연습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습실 사용 방법도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ㄹ).

오답 해설 ㄱ: 〈공연 안내〉에서는 공연 시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ㄷ: 달빛고는 4명, 태양고는 12명이 참가하지만 이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04 협상은 승패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교차 신문은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오답 해설 ② 협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합의를 도출한 후 실행하는 과정이다. ③ 협상은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다. ④ 협상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상호 간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⑤ 협상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05 달빛고 대표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했기 때문에 곡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곡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② 달빛고 대표는 "빠르고 웅장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은 어떠신가요? 같은 작곡가가 만든 곡이라 비슷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라고 제안했다. ③ 달빛고 대표는 "지역 사람들에게 달빛고의 댄스 동아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니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④ 태양고 대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빠르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곡을 선정하려' 했다고 말했다. ⑤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제일 마지막에 공연한

다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06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 대표가 새로 제안한 곡(㉠)에 대해 곡 진행이 단순하고, 많은 인원이 안무를 구성하고 익히는 데 오래 걸려서 현 시점에서 곡을 바꾸기 어렵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간적 제약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은 빠르고 웅장하며 군무에도 적합하다며 태양고 대표에게 이 곡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빠르고 웅장하며 군무에 적합하다는 것은 태양고 대표가 기존 곡을 선정한 이유였다. ③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 대표가 곡을 교체하면 공연 순서를 바꿔 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상대의 양보(곡 교체)를 전제로 한 제안이다. ④ 달빛고 대표는 이미 곡에 어울리는 소품을 구매했고 추가로 소품을 구매하기에는 금전적 부담이 된다며 상대의 제안에 망설이고 있다. ⑤ 태양고 대표는 곡을 교체한다면 소품 대여라는 추가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07 달빛고 대표는 공연 순서를 바꾸자는 상대의 제안에 대해 "저희끼리 공연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봄으로써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 대표는 "정말 곡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가요?"라면서 상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 ② 달빛고 대표는 상대에게 다른 곡을 추천하고 있으나 상대에게 새로운 제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태양고 대표는 상대가 추천한 곡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음을 밝히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④ 태양고 대표는 공연 순서를 바꾸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주장, 즉 상대에게 곡을 바꿔 달라는 제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08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 대표에게 소품 대여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상대방의 숨겨진 욕구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은 빠르고 웅장하며 군무에도 적합하다며 태양고 대표에게 추천했는데, 빠르고 웅장하며 군무에 적합하다는 것은 태양고 대표가 기존 곡을 선정한 이유로 밝힌 것이다. ② 태양고 대표는 '첫 외부 공연인 만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는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밝히지 않은 숨겨진 욕구를 고려한 것이다. ③ 태양고 대표는 '제일 마지막에 공연한다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달빛고 대표에게 공연 순서를 바꿔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달빛고 대표의 드러나지 않은 욕구를 고려한 제안이다. ④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 대표가 금전적 부담을 표명하자 소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는 상대방의 표면적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09 협상 시에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해설 ① 협상 시에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②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여 요구 사항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 ③ 협상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전략을 세우고 협상 시에는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⑤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10 이 협상에서 개인적인 친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양보와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답 해설 ① 양측은 주말 오전/오후 분할 사용, 평일 분할 사용 등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에 도달했다. ② 주말 오전 아홉 시부터 열두 시, 평일 3일, 2일 등 구체적인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여 합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④ 달빛고는 주말 집중 연습 조건, 태양고는 평일 연속 사용 조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⑤ 태양고 대표는 "곡을 바꾸면 연습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달빛고 대표는 "저희가 연습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11 달빛고 대표가 '연습이 끝나면 저희가 연습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하자 태양고 대표가 '주말 오전에 연습이 끝나면 오후에 연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해 두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연습실 정리 정돈을 태양고에 전적으로 맡긴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가 평일 가운데 3일을, 달빛고가 2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③ 달빛고 대표는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평일을 포함해 주 4일을 이용하는 것보다 주말 이틀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④ 태양고 대표는 평일 방과 후에 연습할 시간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⑤ 주말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열두 시까지는 태양고가, 그 이후부터는 달빛고가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12 태양고 대표는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곡을 바꾸었을 때 공연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습실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②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협상에서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③ 달빛고 대표는 상대방의 양보를 인정하고, 감사의 표현을 통해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이어 나가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④ 달빛고 대표는 연습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거로 들어, 주말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13 달빛고 대표는 처음에는 주말에 오롯이 연습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주장을 제시했으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주말 오전은 태양고에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아무래도 곡을 교체하면 안무를 다시 짜고 맞춰 봐야 하니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주말에 오롯이 연습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충분한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근원적 동기에 따른 요구로 볼 수 있다. ③ 태양고 대표는 "한 번 연습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싶으시군요. ~ 주말 오후에는 달빛고가 연습실을 이용하면 어떨까요?"라고 하여 달빛고 대표의 근원적 동기를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④ 태양고 대표는 주말에는 달빛고가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평일에는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⑤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연습실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 협상은 상호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므로, 양측이 처음 목표한 바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협상에서는 각자가 일정 부분 양보하거나 조정을 거쳐 타협점을 찾게 된다.

오답 해설 ① 협상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심해지거나, 한쪽이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오히려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② 협상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거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 이전보다 더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 ④ 협상은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양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⑤ 협상은 상호 조정과 대안 모색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다. 협상을 통해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 만족스러운 합의가 가능하다.

15 합의문은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작성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합의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②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협상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명확히 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④ 협상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타협과 조정의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과정이다. ⑤ 합의문은 단순히 기록을 넘어, 협상 참여자들에게 합의된 내용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16 주최 측에서 동아리끼리 협의된 사항은 반영해 주겠다고 했다고 했으므로, 공연 순서 조정과 관련하여 주최 측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는 곡을 바꾸는 대신 공연 순서 조정과 연습실 사용, 소품 대여 등에서 태양고의 양보를 얻어 냈다. ③, ④ 연습실 사용과 관련하여 태양고는 주말 오전 아홉 시~오후 열두 시, 평일 3일(수~금) 이용하고, 달빛고는 주말 오후 열두 시 이후, 평일 2일(월, 화)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⑤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가 가지고 있는 소품 목록을 먼저 알려 주면 필요한 물품을 말하겠다고 했으며, 태양고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76~081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⑤ 07 ⑤ 08 ⑤
09 ② 10 ② 11 ② 12 ③

01 태양고 대표는 "곡을 양보해 주신다면 이후에 필요하신 소품은 저희가 빌려 드리겠습니다."라면서 소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즉 비용 지원이 아닌 소품 대여를 제안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 대표가 '각자 준비한 공연의 선곡이 겹쳐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한 것을 통해 두 동아리가 동일한 곡을 준비했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태양고 대표는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데 이 곡만큼 적합한 다른 곡을 찾기가 어려워 곡을 바꾸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원수를 활용한 군무를 위해 현재 곡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③ 달빛고 대표는 "저희는 이 곡이 최근 큰 인기를 얻어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곡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곡에 어울리는 소품까지 이미 구매하여 다른 곡으로 바꾸기가 곤란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소품 구매로 인해 곡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④ 달빛고 대표는 '제안이 매력적'이지만 '이미 공연에 필요한 소품까지 구매한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공연 순서 변경 제안이 매력적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구매한 소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02 ㉠에서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연 순서를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에서 달빛고 대표는 공연 순서 조정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달빛고 대표가 ㉠을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해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 대표가 ㉠과 같은 제안을 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지 않다. ④ ㉠에서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탐색하기 위한 발화는 아니다. ㉡은 달빛고 대표가 태양고 대표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말한 것은 아니다. ⑤ ㉠에서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에서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 대표에게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03 〈보기〉는 '인원도 네 명밖에 없으면서', '군무에 적합한 걸 모르시나요?'와 같은 표현을 통해 달빛고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협상에서 중요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달빛고 대표가 방어적 자세를 가지게 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협상과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솔직함이 무례함으로, 직접성이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화법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는커녕 반감과 오해를 증폭시켜 협상 자체를 결렬시킬 위험을 높인다.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③ 〈보기〉의 발언은 정보 확인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더 나은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협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④ 〈보기〉의 발언은 감정적이고 비난을 담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발언은 설득 효과는커녕 반감만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04 태양고 대표는 연습실 격일제 사용을 제안하며 '공평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원적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들의 공연 준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공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이 곡에 어울리는 소품까지 이미 구매하여 다른 곡으로 바꾸기가 곤란합니다."와 "이미 공연에 필요한 소품까지 구매한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네요. 추가로 다른 소품을 구매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소품 구매에 이미 비용을 지출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선곡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고, 이미 투자한 자원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원적인 동기를 보여 준다. ② 달빛고 대표는 "저희 동아리는 학교 외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려는 것은 단순히 공연 자체의 성공뿐 아니라 동아리의 인지도를 높이고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근원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태양고 대표는 "인원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 군무를 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많은 인원을 활용한 군무를 강조하고, '빠르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곡'을 원한다고 언급하며 시각적으로 압도되는 웅장함을 추구하는 근원적 동기를 드러냈다. 이는 표면적인 입장인 '선곡 고수'의 이면에 숨겨진 실제 욕구에 부합한다. ④ 태양고 대표는 "다른 학교에 찬조 공연을 많이 다녀서 이번 지역 축제에서는 새로운 분위기의 공연을 선보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찬조 공연을 통해 쌓인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컨셉과 분위기를 통해 동아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 주고자 하는 근원적인 동기를 보여 준다.

05 태양고와 달빛고는 초기에는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강하게 대립했지만, 근원적 동기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와 달빛고의 협상은 시간 제약에 쫓겨 급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시간 후 합의안을 작성하기로 약속하는 등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지려는 모습에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태양고와 달빛고의 합의 내용은 선곡, 공연 순서, 소품, 연습실 사용 시간 등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④ 태양고와 달빛고의 협상은 어느 한쪽이 강압적으로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양측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렬을 언급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06 달빛고 대표가 "2시간 후에 만나서 합의안을 작성하고 주최 측에 전달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했으므로,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하고 합의안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곡을 바꾼다면 저희가 연습실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요청했다. ② 달빛고 대표는 "연습이 끝나면 저희가 연습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③ 태양고 대표는 "주말 동안 연습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라고 말했다. ④ 태양고 대표는 "우리 학교는 금요일에 6교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연습할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07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가 가지고 있는 소품 목록을 먼저 알려 주면 필요한 물품을 말하겠다고 했으며, 태양고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태양고가 소품을 구매해 주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는 곡을 바꾸는 대신 공연 순서 조정과 연습실 사용, 소품 대여 등에서 태양고의 양보를 얻어 냈다. ② 태양고는 달빛고가 곡을 바꾸면 원래 마지막 순서였던 자기들의 순번을 달빛고에 양보하기로 했다. ③, ④ 연습실 사용과 관련하여 태양고는 주말 오전 아홉 시 ~ 오후 열두 시, 평일 3일(수~금) 이용하고, 달빛고는 주말 오후 열두 시 이후, 평일 2일(월, 화)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08 〈보기〉에 따르면 협상은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이다. 태양고 대표는 먼저 주말 오전 시간만 태양고가 이용하고 오후에는 달빛고가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에 달빛고가 동의하자, 자신이 양보한 내용을 내세우며 평일 이용 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달빛고가 먼저 태양고에 주말 오후 시간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협상은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달빛고와 태양고는 연습실 사용 시간을 두고 서로 다른 요구를 하지만, 성공적인 공연 개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협상은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모순된 태도를 취하게 된다. 달빛고 대표는 곡 교체를 이유로 추가 연습 시간을 요구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동 시간 문제를 들어 평일 이용을 거부하며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협상은 경쟁-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입장을 이해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들의 주말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협상은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양측 대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9 이 글은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① 대화에 대한 설명이다. ③ 연설에 대한 설명이다. ④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⑤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10 협상은 상호 대화와 협력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양보를 기다리기만 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협력적인 태도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은 상호 조정과 합의의 과정이므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③ 협상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호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경청과 공감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나 입장을 이해하면, 협상에서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 내고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⑤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면 협상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협상 태도에 부합한다.

11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도 평일에 연습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태양고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를 고려하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달빛고 대표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의 신뢰성을 따지고 있지 않다. ③ 태양고와 주말 시간을 나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일부 양보를 하기로 생각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얻을 이익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달빛고 대표는 주말에 시간을 나눠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태양고의 제안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⑤ 태양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12 태양고는 주말 연습실 사용 시간을 하루에서 오전만 사용하는 것으로 양보했으며, 달빛고는 곡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한 것에서 곡을 바꾸는 것으로 양보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는 공연 순서를 양보했으며 달빛고는 선곡을 양보했다. ② 태양고와 달빛고가 상대방의 양보로 지역 축제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④ 태양고는 새로운 분위기의 공연을 선보이고 싶어 했으며, 달빛고는 첫 외부 공연인 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였다. ⑤ 태양고가 동아리 홍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달빛고 또한 동아리의 화합 증진을 실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82~083쪽

01 ㉠: 군무에 적합한 다른 곡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곡으로 바꾸기 곤란함. ㉡: 각 팀이 2~3일씩 연속해서 이용하기를 원함. **02** 달빛고 대표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03** 근원적 동기 **04** 달빛고 대표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 태양고 대표가 제안한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과 같이 말했다.

01 ㉠: 태양고 대표의 두 번째 발화("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데 이 곡만큼 적합한 다른 곡을 찾기가 어려워 곡을 바꾸기가 곤란합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달빛고 대표의 두 번째 발화("연습실은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 각 팀이 2~3일씩 연속해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보기〉의 발언은 달빛고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어 달빛고 대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03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근원적 동기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공연 순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04 달빛고 대표가 ㉡과 같이 말한 이유는 태양고 대표가 제안한 공연 순서 조정이 실현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불필요한 수고와 노력 등)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84~08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04 협상은 갈등 해결을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므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우위를 점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06 협상에서 협상 참여자들은 자신의 근원적 동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근원적 동기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10 합의안은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게 되므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작성해야 한다.

14 태양고 대표는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평하게 격일제로 연습실을 이용하기를 희망했다.

20 달빛고 대표는 금요일에 연습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금요일에 연습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한 측은 태양고 대표이다.

22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필요로 하는 소품을 달빛고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기로 약속했다.

02 공동 보고서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88~093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① 07 ⑤ 08 ⑤
09 ① 10 ⑤ 11 ④ 12 ⑤ 13 ① 14 ③

01 원희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써 보자."라고 발언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ㄷ: 성호가 다이어트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을 제안했으나, 재우가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알려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주제를 정하자고 하며 반대하여 다이어트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02 재우는 다이어트 문제가 "관련 기사나 연구가 많아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정보가 너무 많아 친구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보고서를 활용할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보고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성호는 "요즘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이라고 말하며 다이어트 문제가 친구들의 관심사이며, 주변 친구들의 상황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주제 제안임을 밝혔다. ③ 현지는 에너지 드링크 섭취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알려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주제면 좋겠어."라는 재우의 의견에 동조하며 에너지 드링크 문제의 정보 제공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현지가 에너지 드링크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음을 보여 준다. ④ 원희는 "마시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했어."라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여,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친구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에너지 드링크 섭취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⑤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모둠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동기 부여와 책임감을 높인다. 제시된 글에서 모둠원은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토의를 거쳐 최종 주제를 결정했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모둠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느끼게 하여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03 원희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어지러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드링크 섭취 문제'를 주제로 정하자는 현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재우는 성호에게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② 재우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성호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 ④ 원희는 현지의 의견을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원희는 현지의 의견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지 않다.

04 결론 및 제언에는 주제와 관련된 종합적 진술과 추가 의견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론과 반론을 함께 제시하면 글의 논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공동 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조사 결과 항목에 설문 조사 결과와 자료 조사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 조사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조사 이유로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려는 목적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보고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될 것임을 보여 준다. ② 조사 계획 중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부작용 인지 여부는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며, 설문 조사의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이라고 하였다. ③ 조사 계획 중 에너

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 및 기능과 효과, 위험성, 부작용 사례, 복용상 유의점 등은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며, 참고 문헌을 보면 자료 조사 시 책, 논문, 기사 등을 참고한다고 하였다. ④ 조사 계획을 보면 김원희와 박재우는 설문 조사를, 이현지와 최성호는 자료 조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06 〈보기〉에서 쓰기 윤리 중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참고 문헌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이는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문헌을 제시하여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자료 조사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참고 문헌을 제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이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글을 베껴 쓰는 행위는 아니다. ③ 참고 문헌을 제시하는 것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지, 자료의 종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④ 기사가 책이나 논문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⑤ 참고 자료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보고서의 신뢰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저작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07 설문 조사 내용을 먼저 제시한다고 했으므로 〈자료 5〉를 가장 앞 순서에 놓는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과 효과, 위험성을 언급한다고 했으므로 이어서 〈자료 4〉를 놓고, 그 구체적 사례인 〈자료 2〉를 그 다음에 놓는다. 결론 및 제언에서 에너지 드링크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서술한다고 했으므로 〈자료 3〉을 가장 마지막에 배열한다.

08 (나)는 설문 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로, 이는 많은 설문 대상자를 조사하여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원인이나 해결 방안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면담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이다. ② 문헌 탐색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이다. ③ 인터넷 검색과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이다. ④ 현장 조사와 같은 정보 수집 방법의 특징이다.

09 〈자료 4〉는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 기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로, 이를 표로 정리하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그림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복합 양식으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기에 적합하다. ③ 사진은 실제 장면을 그대로 제시하여 생생하게 보여 줄 때 적합하다. ④, ⑤ 그래프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정보 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는 복합 양식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에 적합하다.

10 〈자료 2〉는 에너지 드링크 관련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로, 이는 에너지 드링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인터넷 블로그 자료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2〉는 전문 학회 논문지로 출처가 명확하다. 〈보기〉에 따르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자료 1〉은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자료 1〉과 〈자료 2〉는 모두 에너지 드링크 관련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이다. 〈보기〉에 따르면 보고서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정보는 정보의 적합성이 있으므로, 두 자료는 모두 보고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③ 〈자료 3〉과 〈자료 4〉는 모두 한국 소비자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이다. 〈보기〉에 따르면 정보를 작성한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이면 정보의 신뢰성이 높으므로, 〈자료 3〉과 〈자료 4〉는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④ 〈자료 3〉은 에너지 드링크 복용상 유의점을 제시한 자료이므로 에너지 드링크를 복용하는 예상 독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다.

11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글은 기사문이다.

오답 해설 ① 보고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양한 문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데 쓰기 윤리에 따라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보고서는 자료 결과를 제시할 때 도표나 그래프, 사진, 그림 등 다양한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⑤ 보고서는 조사를 하게 된 동기 등에서 특정 현상의 실태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실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2 설문 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막대그래프는 항목 간의 비교나 수치의 분포를 나타내고, 원그래프는 항목들의 비율을 나타낼 때 활용한다.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복합 양식은 꺾은선 그래프이다.

오답 해설 ① 조사 이유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을 조사하고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하여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②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설문 조사와 자료 조사로 달리 하고 있다. ③ 조사 계획에서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④ '이 조사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와 같이 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3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ㄱ), 조사 계획에서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내용과 방법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ㄹ: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ㅁ: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14 '조사 계획'의 조사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조사 대상별로 소제목을 달아 본문의 내용을 서술한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조사 이유에서 '최근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면 시험 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섭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실태가 조사 동기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설문 조사 결과에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등과 같은 질문 내용을 밝혀 제시했다. ④ 조사 결과에서 '이 조사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와 같이 조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⑤ 설문 조사 결과 중 (1)번 문항의 응답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94~099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①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① 10 ④ 11 ③ 12 ⑤ 13 ④

01 재우가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알려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주제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모둠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주제로 선정했다. 이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모둠 내에서 조사 가능한 주제이다.

오답 해설 ① 토의 과정에서 기한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다. ③ 성호가 제안한 다이어트 문제에 대해 재우가 '관련 기사나 연구가 많아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④ 성호가 친구들의 관심사인 다이어트 문제를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⑤ 토의 과정에서 투표로 세부 주제를 정하지 않았다.

02 조사 계획에서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을 특정하여 제시한 것은

맞지만 조사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이므로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부작용 인지 여부'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조사 내용은 자료 조사 방법으로 달리 하고 이를 모둠원들이 2명씩 분담하기로 했다. ③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퍼센트와 인원 수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④ 에너지 드링크 섭취 까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졸음 억제(28명), 집중력 향상(15명), 에너지 보충(9명), 맛(8명), 기타(4명) 순으로 집계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⑤ 조사 이유에서 '최근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면 ~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여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였다.

03 [A]는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다. 이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원그래프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설문 조사의 질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기 위해 복합 양식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 ③ 응답 항목 간의 비교를 나타내기 위한 막대그래프는 '예'와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1)번 질문에 적합하다. ④ 설문 조사의 질문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⑤ 응답 항목의 변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절반이 넘는 64.1퍼센트의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고 했으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 잘 모른다고 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 절반 이상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절반이 넘는 64.1퍼센트의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는 알 수 없다.

05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 100명 가운데 64명이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해 본 적이 있고, 그중 일주일에 2회 이상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학생이 32명으로 50퍼센트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중 대부분이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조사 결과를 과장하여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조사 결과와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별다른 표지로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였다(ⓓ).

오답 해설 ⓐ: 조사 계획에서 조사 기간, 대상, 방법을 기술하였다. ⓒ: (나)는 설문 조사 결과 자료를 왜곡하지 않았다.

06 이 글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조사하여 밝힘으로써 올바른 에너지 드링크 복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식품 의약품 안전처, 중소기업 융합 학회 논문 등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성분과 함량 정보 확인하고 섭취량 조절하기', '대체 음료를 마시거나 가벼운 신체 활동하기' 등 소제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결론 및 제언 항목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7 이 글은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방지한 사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③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 및 기능과 효과'와 '에너지 드링크 주요 성분의 위험성'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④ 결론 및 제언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를 요약하고, 에너지 드링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⑤ 에너지 드링크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과 함량 정보 확인하고 섭취량 조절하기', '대체 음료를 마시거나 가벼운 신체 활동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08 [A]는 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별 기능과 효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ㄴ). [B]는 그림을 활용하여 에너지 드링크 섭취의 부작용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ㄹ).

오답 해설 ㄱ: [A]에서는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ㄷ: [B]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 나타나는 부작용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09 이 글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자료, 중소기업 융합 학회의 논문 지의 연구 결과 등을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④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⑤ 설문 조사 대상자의 인터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 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라는 발표 내용을 인용했을 뿐, 성인이 커피 4잔을 마셔도 건강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카페인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맥락에서 해당 발표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카페인은 피로 감소, 신진대사 유도 등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과다 섭취 시 청소년의 골밀도 감소 및 성장 저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 공신력 있는 기관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글에 제시된 개선 방안은 에너지 드링크 섭취 자체를 막기보다는 (1) 성분 확인 및 섭취량 조절, (2) 대체 음료 및 신체 활동과 같이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 부작용 경험 비율이 50.6퍼센트라고 했는데, 이는 에너지 드링크 섭취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1 이 글의 결론은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있을 뿐, 조사 과정의 어려움이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결론 단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고 했다. 이 글은 결론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섭취한다고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추가 의견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의 제언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추가 의견을 언급하여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의 결론 및 제언에서 (1)과 (2)는 성분 확인 및 섭취량 조절, 대체 음료 섭취 및 신체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에너지 드링크 섭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이 글의 결론은 에너지 드링크의 양면성을 언급하며 부작용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제언의 설득력을 높인다.

12 근거를 무조건 많이 제시한다고 해서 보고서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하고 출처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해설 ② 정보를 작성한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인지, 너무 오래된 정보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따지는 과정으로 정보를 선별할 때 필요한 작업이다. ④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 중의적인 표현 등은 지양해야 한다.

13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 100명 가운데 64명이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중 거의 모두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섭취한다고 해석한 것은 과장하여 해석한 것으므로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너지 드링크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대한 정보의 출처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 누리집,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 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2020년 3월 18일 자)'를 밝히고 있다. ② 그림을 통해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의 부작용 사례를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이 50.6퍼센트,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이 58.9퍼센트라고 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⑤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부분이 글쓴이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0~101쪽

01 ㉠: 조사 이유 ㉡: 결론 및 제언 02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03 • 복합 양식: 원그래프 • 사용 효과: 설문 조사의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04 에너지 드링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01 ㉠: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목적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조사 이유'에 해당한다. ㉡: 보고서의 마지막은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진술하는 결론과 추가 의견을 제언의 형식으로 언급할 수 있다.

02 참고 문헌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이는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 문헌을 제시하여 출처를 밝혀야 한다.

03 하나의 주제(질문)에 대한 여러 항목들의 비율을 나타낼 때는 원그래프가 적합하다. 원그래프를 사용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 항목들의 비율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냄으로써 설문 조사의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04 결론 및 제언에서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이끌어 낸 결론을 종합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섭취하고 상당수의 학생이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조사 결과를 요약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드링크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02~10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9 설문 조사 방법은 짧은 시간에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여 다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1 인터넷 블로그 자료는 공신력 있는 저자나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15 주로 항목 간의 비교나 수치의 분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복합 양식은 막대그래프이다. 원그래프는 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항목들의 비율을 드러낼 때 사용한다.

17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종합적으로 진술할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19 참고 문헌은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3 언어와 매체의 변화

01 국어의 변화

기출 실전 문제 본문108~113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③	06 ④	07 ①	08 ③
0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②	14 ①	15 ⑤	16 ②
17 ③	18 ②	19 ③	20 ⑤	21 ①	22 ③	23 ⑤	24 ②
25 ④							

01 '말ᄊᆞ미(말씀 + 이)'와 같이 받침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 쓰는 이어 적기(연철) 표기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 형태소의 받침을 종성에도 표기하고 뒤 음절의 초성에도 적는 거듭 적기의 표기 방식은 근대 국어 시기에 주로 나타났다.

오답 해설 ①, ②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원문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며, 띄어쓰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말ᄊᆞ·미'와 같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해 글자의 왼쪽에 ':', '·' 등의 점을 찍었다. ⑤ '正·졍音흠'에서 한자음을 나타내는 데 'ㅇ', 'ㆆ'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lus 〈참고〉 동국정운식 표기

동국정운식 표기

1448년 간행한 《동국정운》에서 우리나라 한자음의 표준음을 정한 것에 따른 표기 방식. 한자음 첫소리에 'ㅇ, ㆆ' 등을 넣고 받침이 없는 글자는 종성으로 'ㅇ, ㅸ' 등을 넣었음. 현실음과 동떨어진 것으로 16세기 초에 사용이 폐지되었음.

02 ㉡에 사용된 음운은 모두 현대 국어에도 사용되는 것들이다.

오답 해설 ㉠의 'ㆍ', ㉢의 'ㅸ', ㉣의 'ㆆ'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진 음운이며, ㉤의 음절 첫머리에 나타난 어두 자음군도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03 '쁘들(뜯 + 을)'은 음성 모음 'ㅡ' 뒤에 조사 '을'이 쓰인 것이고, '뜽를(뜽 + 를)'은 양성 모음 'ㅗ' 뒤에 조사 '를'이 쓰인 것이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제시된 단어들은 'ㅎ 종성 체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④, ⑤ 원순 모음화와 구개음화, 두음 법칙에 대해서는 제시된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04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만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와 '가'가 쓰인다.

오답 해설 ② '나랏(나라의)'에서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배(바가)'는 '바'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다. ④ '듕귁에 달아(중국과 달라)'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뜽를(글자를)'에서 '를'에 해당하는 목적격 조사가 'ᄅᆞᆯ'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05 '놈'은 중세 국어에서 '사람'의 의미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해설 ① '젼ᄎᆞ'는 '까닭'의 옛말로, 사라진 어휘에 해당한다. ② '어린'은 '어리석다'의 뜻으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바뀌었다. ④ 'ᄉᆞᄆᆞᆺ디'는 '꿰뚫다'의 의미를 지닌 옛말로, 사라진 어휘에 해당한다. ⑤ '어엿비'는 '불쌍히'의 뜻으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보기에 사랑스럽고 귀엽게'로 의미가 바뀌었다.

06 점이 두 개면 '말'과 같이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점이 없으면 'ᄊᆞ'와 같이 낮은 소리, 점이 하나면 '미'와 같이 높은 소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 '마'는 '／' 형태, '람'은 '＿' 형태, '다'는 '——'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듕귁에 달아(중국과 달라)'에서 '에'는 비교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② '니르고져(이르고자)'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 'ㄴ'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단어의 초성에 'ㅱ'이 쓰인 것에서 어두 자음군이 음절 첫머리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음운 'ㆆ'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ᄯᅳ르미니라'는 'ᄯᅳᄅᆞᆷ'과 '이니라'가 결합할 때 'ᄅᆞᆷ'의 종성에 쓰인 'ㅁ'을 다음 자 '이'의 초성으로 옮겨 표기한 것이다.

08 '배(바가)'는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으로 끝난 '바'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고, '노미(놈이)'는 자음으로 끝난 '놈'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을 이어 적기한 형태이다.

09 '어엿비'는 '불쌍히(불쌍하게)'의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날 '어여삐'로 형태가 바뀌었고, 의미 또한 '보기에 사랑스럽고 귀엽게'로 바뀌었다.

10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어엿비'는 '불쌍하게, 가엾게'라는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예쁘게'로 의미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어휘 변화의 양상이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ᆷ'은 '일반적인 말'을 뜻했으나 현재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달아'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다르다'라는 뜻으로 의미의 변화가 없다. ② 'ᄉᆞᄆᆞᆺ디'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휘이지만 '빅셩'은 '백성'으로 표기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쓰이고 있다. ④ '놈'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뭉ᄀᆞ노니'는 의미의 확장, 축소,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⑤ '수ᄫᅵ'는 '쉬이(쉽게)'로 형태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사용되는 말이다.

11 'ᄇᆞ메'는 'ᄇᆞᆺ다'의 어근 'ᄇᆞᆺ-'에 명사형 어미 '-움'과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로, 음성 모음인 'ㅡ' 뒤에 역시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움'이 오고 있다. 따라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스믈'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이다. ② '펴디'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이다. ③ '말ᄊᆞ미'는 이어 적기가 사용된 형태이다. ⑤ 방점은 소리의 장단이 아니라 고저(높낮이)를 표기하는 것이다.

12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의 사용 없이, '가'가 사용될 자리에도 '이'와 그 이형태만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ᆷ미(말씀 + 이)'에서 이어 적기를 찾을 수 있다. ③ '쁘들(뜯 + 을)'에서 찾을 수 있다. ④ '어리다', '어엿비' 등 현대 국어와는 의미가 다른 어휘들을 찾을 수 있다. ⑤ '수ᄫᅵ'에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인 'ㅸ'을 찾을 수 있다.

13 'ᄇᆞ메'는 'ᄇᆞᆺ- + -움 + 에'로 분석되므로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도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이고 있으므로 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두 자음군 'ㅺ'이 사라지고 된소리 'ㅆ'으로 바뀌었다. ③ 명사형 어미 '-움'이 현대 국어에서는 '-ㅁ'으로 바뀌어 사용되었으며, '-기'도 추가되었다. ④ 이어 적기 방식에서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었다. ⑤ '쓰다'라는 의미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4 '내'는 '나 + ㅣ'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배'는 '바 + ㅣ'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③ '뿌메'는 '쓰- + -움 + 에'로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었다. ④ '百빅姓셩이'는 '빅셩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⑤ '中듕國귁에'는 '듕귁 + 에'로 비교 부사격 조사인 '에'가 사용되었다.

15 '서르'는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고, 현대 국어로 오면서 '서로'처럼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랏'의 'ㅅ'이 현대 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기능을 했으므로, 중세 국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배'와 '바가'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가 쓰이지 않고 'ㅣ'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ㅂ'이 'ㅍ'으로 바뀌었으므로, 어두 자음군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된소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어엿비'가 '가엾게'로 쓰인 것으로 보아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16 'ᄭᆞᆯ(ᄭᆞᆼ + ᆯ)'은 양성 모음 'ㆍ' 뒤에 조사 'ᆯ'이 쓰였고, 'ᄠᅳ들(ᄠᅳᆮ + 을)'은 음성 모음 'ㅡ' 뒤에 조사 '을'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달아'의 'ㅏ'는 양성 모음이다. ④ '스믈'의 'ㅡ'는 음성 모음이다. ⑤ '뿌메'의 'ㅜ'와 'ㅔ'는 음성 모음이다.

17 ㉮는 의미가 축소된 사례이고, ㉯는 의미가 이동한 사례이다. '놈(노미)'은 본래 '보통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뜻이 달라졌다. 이는 지시하는 대상의 폭이 줄어든 것이므로 의미 축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엿브다(어엿비)'는 본래 '가엾다, 불쌍하다'의 뜻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쁘다'로 뜻이 달라졌다. 이는 관련이 없는 뜻으로 변한 것이므로 의미 이동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어린'은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뜻이 달라진 것이므로 의미 이동에 해당한다. ② '수ᄫᅵ'는 어휘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쉽게'라는 뜻은 달라지지 않았다. ④ '말ᄊᆞᆷ(말ᄊᆞᄆᆡ)'는 일반적인 말에서 말의 높임이나 낮춤 표현으로 뜻이 달라졌으므로 의미 축소에 해당하지만, 'ᄠᅳᆮ(ᄠᅳ들)'은 어휘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뜻은 달라지지 않았다. ⑤ '젼ᄎᆞ로'는 '까닭으로'라는 뜻으로, 어휘 자체가 사라졌다.

18 원순 모음화는 양순음 뒤에 오는 'ㅡ'가 원순 모음인 'ㅜ'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스믈'에서 원순 모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원순 모음화 현상이 적용되었으면 '스물'로 표기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ᄠᅳ들'과 'ᄊᆞᄅᆞ미니라'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고 있다. ③ '나랏 말ᄊᆞᄆᆡ', 'ᄠᅳ들' 등에서 이어 적기 표기가 나타나 있다. ④ 각 음절의 왼쪽에 찍힌 방점을 통해 성조를 표시하고 있다. ⑤ 한자 오른쪽에 표기된 한자음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현실음이 아니라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된 것이다.

19 ㉠ 'ᄠᅳ들(ᄠᅳᆮ + 을)'은 음성 모음 'ㅡ' 뒤에 조사 '을'이 쓰인 것이고, ㉡ 'ᄭᆞᆯ(ᄭᆞᆼ + ᆯ)'은 양성 모음 'ㆍ' 뒤에 조사 'ᆯ'이 쓰인 것이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 ㉡은 'ㅎ 종성 체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④, ⑤ 원순 모음화와 구개음화, 두음 법칙에 대해서는 ㉠과 ㉡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0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 거센소리가 아니라 된소리로 바뀌었다.

오답 해설 ① 현대 국어에서 방점은 모두 사라졌다. ②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는 '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너겨'는 현대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여겨'로 쓰인다. ④ '스믈'은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 현상이 일어난 '스물'의 형태로 쓰인다.

21 〈보기〉는 단어의 의미가 이동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어리다(어린)'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어엿브다(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가엾다'라는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둘 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뜻이 다르므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22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찍었다.

오답 해설 ① 'ㅸ', 'ㆆ', 'ㆍ' 등의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음운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랏말ᄊᆞᄆᆡ', 'ᄠᅳ들' 등에 이어 적기 표기법이 나타나 있다. ④ '서르', '스믈', '뿌메' 등에서 모음 조화가 비교적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中듕國귁', '文문字ᄍᆞᆼ', '爲윙', '便뼌安한' 등에서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적는 동국정운식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23 '뿌메(쓰- + -움 + 에)'는 '쓰다'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움'과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로,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달아'는 '달라'라는 뜻으로, 의미 이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② 'ᄉᆞᄆᆞᆺ디'는 '통하지'라는 뜻으로, 구개음화는 적용되지 않았다. ③ '시러'는 '능히'라는 뜻이다. 중세 국어의 이어 적기와는 상관이 없다. ④ '수ᄫᅵ'는 '쉽게'라는 뜻이다. 여기에 사용된 'ㅸ'은 소실된 음운이다.

24 '말ᄊᆞᆷ + 이 → 말ᄊᆞᄆᆡ', 'ᄊᆞᄅᆞᆷ + 이니라 → ᄊᆞᄅᆞ미니라'에서 볼 수 있듯이 ㉠과 ㉡ 모두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나랏'에서만 사잇소리로 사용된 'ㅅ'을 찾을 수 있다. ③ 'ㅺ'은 어두 자음군이다. 'ㅆ'은 어두 자음군이 아니다. ④ '말ᄊᆞᄆᆡ'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다. 'ᄊᆞᄅᆞ미니라'에는 서술격 조사 '이라'가 사용되었다. ⑤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과 ㉡ 모두 찾을 수 없다.

25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고,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① 글자 왼쪽의 방점을 통해 성조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② 'ᄠᅳ들' 등에서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말ᄊᆞᄆᆡ'는 '말ᄊᆞᆷ'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⑤ '뿌메'는 '쓰-'에 명사형 어미 '-움'이 결합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쓰-'에 '-ㅁ'을 결합해 '씀에'로 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14~119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6 ⑤	07 ①	08 ⑤
0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②	15 ①	16 ①
17 ②	18 ③	19 ⑤	20 ⑤				

01 현대 국어에서는 음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성조도 사라졌다.

오답 해설 ① '스믈'이 원순 모음화에 의해 '스물'이 되면서 입술소리 아래에 쓰였던 'ㅡ'가 'ㅜ'로 바뀌었다. ② 'ᄠᅳ들'은 현대 국어의 '뜻을'로, '뿌메'는 현대 국어의 '씀에(쓰는 데)'로 바뀌면서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표기되었다. ③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ㆆ, ㅸ, ㅇ, ㆍ'가 사용되었다. ④ 두음 법칙에 의해 '니르고져'는 '이르고자'로, '너겨'는 '여겨'로 바뀌었다.

02 원순 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ㅍ' 아래에서 'ㅡ'가 'ㅗ, ㅜ'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스믈'이라는 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쁘들', 'ᄊᆞᄅᆞ미니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랏말ᄊᆞ미'와 '배'에서 주격 조사로 '이'와 'ㅣ'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뿌메'에서 명사형 어미 '-옴/움'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쁘들', '뜽ᄅᆞᆯ', '뿌메' 등에서 모음 조화 현상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뿌메'는 '쁘- + -움 + 에'로 분석되고 이때의 '-움'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쁘-'는 동사 '쁘다'의 어간이며, '쁘다'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미'는 '말ᄉᆞᆷ + 이'로, '홇 배'의 '배'는 '바 + ㅣ'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 자음 뒤에서는 '이'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ㅣ'가 쓰였다. ② 중세 국어 '하다'는 현대 국어 '많다'에 대응하며, 품사는 형용사이다. ③ 방점은 강약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 즉 성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왼편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높은 소리)을 의미한다. ④ '히ᅇᅧ'와 '뻔한킈ᄒᆞ고져'는 각각 현대어 '하여금'과 '편하게 하고자'와 대응한다. 모두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다.

04 '中듕國귁에'의 현대어 풀이가 '중국과'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에'가 앞말이 사건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② 중세 국어에서 '어리다'는 현대어 풀이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③ '쁘들'에서는 'ㅂㄷ'과 같이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자를 나란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④ '便뼌安한킈'에서 'ㅎ'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ᄊᆞᄅᆞ미니라'에서 한 음절의 종성 'ㅁ'을 다음 자의 초성에 옮겨 표기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의 '제'는 '저 + ㅣ'로, '자기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ㅣ'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현대어 풀이가 '중국과'임을 볼 때 ㉠의 '에'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단어의 첫머리에 'ㅂㄷ'이라는 어두 자음군이 드러난다. ④ '놈 + 이'가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가 된 표기이다. ⑤ 'ㅎ'은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이다.

06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어 적기(연철) 형태로 표기했다. 이어 적기는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쁘들(뜻을)', '노미(놈이)', '기픈(깊은)'과 'ᄇᆞᄅᆞ매(바람에)'에서 알 수 있다.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은 끊어 적기(분철)이다.

오답 해설 ① '어린', '여름'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리석은', '열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니라', '하ᄂᆞ니'는 현대 국어의 '(행위를) 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젼ᄎᆞ'와 '뮐씨'는 '까닭', '흔들리므로'의 뜻을 가졌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 사라졌다. ③ 'ㆆ', 'ㆍ'(아래아) 등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모두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실되었다. ④ '배(← 바 + ㅣ: 바가)'는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불휘(뿌리가)'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7 〈보기〉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서는 체언과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을/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도 고려하였다. '사ᄅᆞᆷ'의 'ᄅᆞᆷ'은 받침이 있고 양성 모음('ㆍ')이기 때문에 'ᄋᆞᆯ'이 오며, '천하'의 '하'는 받침이 없고 양성 모음('ㅏ')이기 때문에 'ᄅᆞᆯ'이 오며, '누'는 받침이 없고 음성 모음('ㅜ')이기 때문에 '를'이 오며, 'ᄠᅳᆮ'은 받침이 있고 음성 모음('ㅡ')이기 때문에 '을'이 온다.

08 ㉤의 'ᄅᆞᆯ'은 목적격 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현대어 풀이('우리나라의')를 볼 때, ㉠의 'ㅅ'은 관형격 조사 '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현대어 풀이('말하고자')를 볼 때, ㉡의 '-고져'는 현대 국어의 '-고자'에 해당하는 연결 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에 주격 조사 'ㅣ'가 붙은 것이다. ④ 구개음화는 'ㄷ'이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09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다. 따라서 의미 확대를 포함한 의미 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대 국어에서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하다'는 중세 국어 'ᄒᆞ다'와 관련된다.

10 '어엿ㆍ비'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는 자음이다.

오답 해설 ① '배'는 'ᄇᆞ(의존 명사) + ㅣ(주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모음으로 끝난 체언 '바'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여 '배'로 줄어든 것이다. ③ '뿌메'는 '뿌-(동사 어간) + -움(명사형 어미) + 에(조사)'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④ '펴디'는 현대 국어의 '펴지'로, 중세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다. 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소리에 'ㄹ'이나 'ㅑ, ㅕ, ㅛ, ㅠ, ㅣ'와 결합하는 'ㄴ'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니르고져', '니겨'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이다.

11 '하다(하니라)'와 'ᄒᆞ다(ᄒᆞ고져)'는 의미와 소리 둘 다 다른 별개의 단어이다. 중세 국어의 '하다'는 '많다'의 의미를 지닌 말로 현재는 사라져 쓰이지 않는다. 중세 국어의 'ᄒᆞ다'는 현대 국어에서 '하다'로 소리가 바뀐 말이다. 따라서 한 문헌 안에서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보기〉를 살펴보면 ㉠에는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 글자 두 개를 나란히 쓰면서 이어 적기가 된 사례, ㉡에는 이어 적기를 하면서 오늘날과는 형태가 다른 관형격 조사가 사용된 사례, ㉢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연결 어미가 사용된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것은 '뿌메(뿜- + 에)', '나랏 말ᄊᆞ미(나라 + ㅅ 말ᄉᆞᆷ + 이)', '아니ᄒᆞᆯ씨(아니ᄒᆞ- + -ㄹ씨)'이다.

13 〈보기〉는 의미 축소의 사례이다. '놈(노미)'도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해설 ① '어린'은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이동한 말이다. ② '시러'는 '능히'라는 뜻이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말이다. ④ '어엿비'는 '가엾게, 불쌍하게'에서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한 말이다. ⑤ '젼ᄎᆞ로'는 '까닭으로'라는 뜻으로 현재는 사라진 말이다.

14 'ᄅᆞᆯ'은 '를'과 같은 목적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서르'는 현대 국어에서 '서로'로 표기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성 모음인 'ㅡ'가 양성 모음인 'ㅗ'로 바뀌면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 ③ '니르고져'는 현대 국어에서 '이르고자'로 표기되는데, 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④ '펴디'는 현대 국어에서 '펴지'로 표기되는데, 이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된 결과이다. ⑤ '스믈'이 '스물'로 바뀐 것은 원순 모음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15 '니르고져'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르고자'로, '니르고져'와 '이르고자' 모두 받침이 없으므로 이어 적기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무춤내'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음자인 'ㆍ(아래아)'가 사용되었다. ③ '스믈여듧 字쫑ᄅᆞᆯ'의 '스믈'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양순음('ㅂ', 'ㅃ', 'ㅍ', 'ㅁ') 뒤에 오는 'ㅡ'가 원순 모음인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수빙'에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자인 'ㅱ(순경음 비읍)'이 사용되었다. ⑤ '뿌메'의 'ㅃ'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을 함께 쓰는 어두 자음군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Plus 〈참고〉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화	양순음(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ㅂ, ㅃ, ㅍ, ㅁ) 뒤에 오는 'ㅡ'가 원순 모음인 'ㅜ'로 바뀌는 음운 현상 예 ·스·믈 → 스물

16 '中듕國귁에'는 현대어 풀이 '중국과'로 해석되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에'가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ㄹ씨'는 현대어 풀이 '-므로'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③ '어린'의 '-ㄴ'은 현대어 풀이 '-은'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하는 어미이다. ④ '배'의 'ㅣ'는 현대어 풀이 '가'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⑤ '쁘들'의 '을'은 현대어 풀이에서 '을'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다.

17 '사ᄉᆞᆷ'이 '사슴'으로 변화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ㅡ'로 변화한 사례(㉠)이며, 'ᄀᆞ장'이 '가장'으로 변화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한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① '마ᄂᆞᆯ'이 '마늘'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ᄒᆞᆱ'이 '흙'으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ᄒᆞ나'가 '하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며, '오ᄂᆞᆯ'이 '오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다. ④ '사ᄅᆞᆷ'이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ㅡ'가 아닌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으며, 'ᄃᆞ리'가 '다리'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이다. ⑤ '아ᄃᆞᆯ'이 '아들'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ᄉᆞᇫ'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ㅡ'가 아닌 'ㅓ'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① 분절성은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사회성은, 말소리와 의미는 사회의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다. ④ 자의성은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인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⑤ 창조성은 새로운 단어, 문장, 표현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9 이 글에서 '야민정음'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야민정음'을 잘 모르는 대다수 기성세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야민정음'이 언어유희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같은 세대인 10~20대 사이에서는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나 다른 세대 간에서는 친밀감을 높이기 어렵다. ③ 우리말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하였다. ④ '야민정음의 일부 단어는 통·번역 서비스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말을 세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 〈보기〉의 '양산ᄇᆞᆫ'에서 '주로, 여자들이'라는 말이 삭제된 것은 남녀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한 개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지적 장애'에서 '자기 신변의 일을 처리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는 말을 삭제한 ⑤이다. 이는 장애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차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말을 삭제한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스마트폰이 표제어로 추가된 것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이다. ② '이쁘다'라는 비표준어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언중의 사용에 따른 변화이다. ③ 문법적 측면에서의 개정에 해당한다. ④ 수학적 개념의 수정으로 인한 개정에 해당한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20~121쪽

01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이다. **02**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쓰였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와/과'가 쓰인다. **03** '뿌메'에서는 이어 적기의 표기, 모음 조화의 준수, '-옴/움'의 명사형 어미 사용, 어두 자음군의 사용 등의 중세 국어의 특징이 드러난다. **04** ⓐ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바뀌었고, ⓑ는 '일반적인 사람'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바뀌었다. ⓐ는 의미의 이동에 해당하고 ⓑ는 의미의 축소에 해당한다. **05** 현대 국어는 끊어 적기를 하지만 중세 국어는 이어 적기를 했다.

02 '듕귁에 달아'는 '중국과 달라'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에'가 현대 국어의 '와/과'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03 '쓰-'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고, 어간의 모음이 음성('ㅡ')인데, 음성 모음 뒤에 명사형 어미 '-움'이 이어지는 것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는 것과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옴/움'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뿜에'가 아니라 '뿌메'로 표기하는 것에서 소리 대로 적는 이어 적기의 표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04 ⓐ는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는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어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어리다'는 의미가 아예 다른 것으로 바뀌는 '의미 이동'이 일어난 반면, '놈'은 어휘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의미 축소'가 일어난다.

05 〈보기〉의 중세 국어에 나타난 어휘는 모두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받침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옮겨 적는 이어 적기로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조사나 어미를 앞말과 구분해서 쓰는 끊어 적기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22~12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성조'는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

09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

어 적기가 사용되고 있다.

12 '百ᄇᆡᆨ姓셩이'에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고, 'ᄒᆞᆫ 배'에는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14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의 뜻으로 쓰여 의미가 이동하였다.

16 'ᄉᆞᄆᆞᆺ디'와 '젼ᄎᆞ'는 현재 소실된 말이지만 '수비'는 '쉽게'로 형태가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다.

20 오늘날에는 새말의 생성에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02 한글 맞춤법의 이해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26~133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9 ①	10 ①	11 ③	12 ⑤	13 ②	14 ②	15 ③	16 ③
17 ②	18 ④	19 ⑤	20 ③	21 ③	22 ④	23 ③	24 ④
25 ③	26 ④	27 ①	28 ⑤	29 ④	30 ⑤	31 ②	32 ③
33 ①	34 ④	35 ③	36 ①	37 ④	38 ③	39 ④	

01 '방바닥'의 발음은 [방빠닥]이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무'의 발음은 [나무]이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② '도라지'의 발음은 [도라지]이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약속'의 발음은 [약쏙]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⑤ '미닫이'의 발음은 [미다지]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02 '맏이'와 '쇠붙이'는 각각 [마지]와 [쇠부치]로 소리 난다. 따라서 음운 현상을 반영한 발음 형태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맏- + -이'와 '쇠 + 붙- + -이'라는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설거지'와 '구름'은 각각 [설거지]와 [구름]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발음 형태대로 적은 것이므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③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한 것이며, '깨끗이'는 형용사 '깨끗하다'의 어근 '깨끗-'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두 단어 모두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④ '빛', '빛', '빗'은 모두 소리가 [빋]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뜻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너머'는 사물의 저쪽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넘어'는 '산을 넘어 간다.'와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너머'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고, '넘어'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03 '산길'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산낄]로 발음된다. 따라서 ㉣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발걸음'은 [발꺼름]으로 소리 나므로 역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 '넘어'는 [너머]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으면 ㉠ '너머'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적은 것이다. ⑤ '있다'는 [읻따]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는다면 표기가 달라진다.

04 '조리다'의 발음은 [조리다]이고, '동굴'의 발음은 [동굴]로 둘 다 소리대로 적은 단어이다. '굶주리다'의 발음은 [굼주리다]이고, '초점'의 발음은 [촌쩜/초쩜]으로 둘 다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이다.

오답 해설 '먹는다'의 발음은 [멍는다]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이다. '검정'의 발음은 [검정]이므로, 소리대로 적은 단어이다. '꽃밭'의 발음은 [꼳빧]이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단어이다.

05 나-2의 '반드시'는 '반듯-'을 어근으로 볼 경우, 여기에 '-이'가 붙어서 '꼭, 기필코'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름'의 발음은 [어:름]인데, 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표기하기 편리하다. ② '얼음'의 발음은 [어름]인데, 이를 본 모양을 밝혀 적으면 의미 파악이 쉬워진다. ③ '어름[어:름]'과 '얼음[어름]'은 소리의 장단을 제외하고는 발음만으

로 의미를 구분하기 어렵다. ④ '반듯이[반드시]'처럼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과 접미사 '–이'를 밝혀 적으면 의미 파악이 쉬워진다.

06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고 했다. '꾔다'는 '괴– + –었– + –다'로 분석이 되므로 '꽸다'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 제5항 2–다만에 따라 '깍두기'는 'ㄱ' 받침 뒤에 'ㄷ'이 된소리로 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②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라 '같이'는 [가치]로 소리 나지만 '같이'로 적는다. ③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에 따라 '성공률'은 두음 법칙을 표기에 적용하지 않고 '성공률'로 적는다. ⑤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라 '해돋이'는 [해도지]로 소리 나지만 '해돋이'로 적는다.

07 한글 맞춤법 제5항 2–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싹뚝'은 '싹둑'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 제5항 2에 따르면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딸꾹'은 알맞은 표기이다. ③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뵈요'('뵈어요'의 준말)는 알맞은 표기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의 다만에 따르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백분율'은 알맞은 표기이다. ⑤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르면 '걷히자'는 알맞은 표기이다.

08 한글 맞춤법 제5항 2–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쌉살한'은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로 적어 '쌉쌀한'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해쓱했다'는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② '잔뜩'은 'ㄴ'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③ '딱지'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⑤ '뭉뚱그려'는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09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고 했다. '되지'는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지'가 결합한 것으로, 어미 '–어'와 어울리지 않았으므로, '되지'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에 따르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출생율'은 '출생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한글 맞춤법 제5항 2–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법썩'은 '법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의 다만에 따르면 '환률'은 '환율'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르면 '구지'는 '굳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0 '놓이어'를 '놓여'로 줄여 쓴 것은 한글 맞춤법 제36항에 따른 것이지 제35항 [붙임 1]에 따른 것은 아니다. '놓이어'가 '놓–'로 시작되어 제35항 [붙임 1]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규정은 '놓아'가 '놔'로 줄어들 때에만 적용된다. '놓이어'를 '놓여'로 줄여 쓴 것은 '놓이–'의 'ㅣ' 뒤에 '–어'가 왔기 때문이므로,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제36항에 따른 결과이다.

오답 해설 ② '꾸었다'를 '꿨다'로 쓴 것은 'ㅜ'로 끝난 어간에 '–었–'이 어울려 '꿨'이 된 것이므로 제35항에 따른 것이다. ③ '누이니'를 '뉘니'로 쓴 것은 'ㅜ'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ㅟ'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제37항에 따른 것이다. ④ '참되어'를 '참돼'로 쓴 것은 'ㅚ' 뒤에 '–어'가 어울려 '돼'가 된 것이므로 제35항 [붙임 2]에 따른 것이다. ⑤ '치이었다'를 '치였다'로 쓴 것은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준 것므로 제36항에 따른 것이다.

11 의존 명사는 앞말에 의존해서 쓰이긴 하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고 단어에 해당하므로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은 띄어 써야 한다. ② 조사는 둘 이상 겹쳐서 오는 경우라도 붙여 쓴다. ④ 접미사와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⑤ 조사는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12 '밖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송이'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3 단위성 의존 명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되,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한 권'은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같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대로'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올 때는 조사가 아니라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세 번 만에'의 '만'은 조사가 아니라 '세 번'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⑤ '겸'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말로, 제45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14 ㉠ '살릴 수'에서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때입니다'에서 '입니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오답 해설 ㉡: '한명'에서 '명'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나 부터'에서 '부터'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필요한만큼'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5 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 '웃고만 있었다'는 본용언 '웃고'에 보조사 '만'이 붙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 '있었다'를 띄어 쓴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밖에'는 체언 '일'에 결합한 조사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는 붙여 씀을 알 수 있다. ②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데, 앞말인 '두'와 띄어 쓴 것을 볼 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씀을 알 수 있다. ④ '척'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의존 명사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의존 명사는 띄어 씀을 알 수 있다. ⑤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은 띄어 씀을 알 수 있다.

16 '가만히'는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로, 끝음절이 '이'나 '히'로 발음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히'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①, ②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부사의 끝음절이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따라서 '솔직히', '열심히'로 적어야 한다. ④, 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 따라서 '깨끗이', '틈틈이'로 적어야 한다.

17 '무엇을 먹을가?'는 '어떤 일에 대하여 상대편의 의사를 묻는 종결 어미'인 '–ㄹ까'가 쓰여야 하므로, '먹을까'로 표기해야 한다.

18 '무엇이든지 일단 도전해 보는 거야.'에서 '–든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제56항 2에 따라 '무엇이든지'로 쓴다.

오답 해설 ① '사과를 다 먹든데?'는 사과를 먹었다는 지난 일을 나타내므로 '먹던데'로 써야 한다. ② '네가 뭘 하던'은 네가 하는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한다

는 뜻을 나타내므로, '하든'으로 써야 한다. ③ '전에 갔든 식당'은 과거에 식당에 간 경험을 나타내므로 '갔던'으로 써야 한다. ⑤ '놀이공원이나 가던가'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가든가'로 써야 한다.

19 제53항에서 '-(으)ㄹ게'는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줄게'로 적은 것은 적절하므로 탐구 결과는 ×가 아니라 ○가 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제53항에서 '-(으)ㄹ수록'은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볼수록'으로 적어야 한다. ② 제56항 2에서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앉든지 서든지'로 적은 것은 바르다. ③ 제56항 1에서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잘하더라'로 적은 것은 바르다. ④ 제53항에서 '-(으)ㄹ지라도'는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지쳤을지라도'로 적어야 한다.

20 제53항에서 '-(으)ㄹ게'는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추천할게'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제56항 1에서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맛있더라'는 올바른 표기이다. ② 제51항에서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특히'는 올바른 표기이다. ④ 제56항 2에서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가든지'는 올바른 표기이다. ⑤ 제53항에서 '-(으)ㄹ걸'은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볼걸'은 올바른 표기이다.

21 ㉮는 표준어를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고, ㉯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이다. '무덤[무덤]'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고, '엎어지다[어퍼지다]'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국수[국쑤]'와 '몹시[몹씨]' 모두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먹이[머기]'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고, '으뜸[으뜸]'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④ '설거지[설거지]'와 '드러나다[드러나다]'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⑤ '사라지다[사라지다]'와 '이파리[이파리]'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22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설거지[설거지]'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하얗다'는 [하:야타]로 소리 나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쌓여'는 [싸여]로 소리 나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늙지'는 [늑찌]로 소리 나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⑤ '곧이'는 [고지]로 소리 나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23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24 앞말의 받침이 'ㄱ, ㅂ'으로 끝날 경우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억쑤'가 아니라 '억수'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오빠', '어깨', '뻐꾸기'는 모두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② '움찔'은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25 문맥상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앞말인 '졸업한'과 띄어 써서 띄어쓰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뿐', '밖에', '같이'가 모두 문맥상 조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데'가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26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렬, 률'만 '열, 율'로 적으므로 '발생률'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流'는 본음이 '류'이지만 제11항에 따라 '유'로 표기한다. 또한 '량'은 제11항 [붙임 1]에 따라 본음대로 표기한다. ② '력(力)'은 제11항 [붙임 1]에 따라 본음대로 표기한다. ③ 제11항 [붙임 1]의 '다만'에 따라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裂)'은 '열'로 표기한다. ⑤ '률(律)'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붙임 1]에 따라 본음대로 표기한다.

27 '같- + -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이다. 명사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율'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선률'이 아니라 '선율'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확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가 아니므로, '확률'로 적어야 한다. ② '경쟁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가 아니므로, '경쟁률'로 적어야 한다. ③ '백분율'은 'ㄴ' 받침 뒤에 '률'이 이어지므로,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④ '방어율'은 모음 뒤에 '률'이 이어지므로, '방어율'로 적어야 한다.

29 '얼마나 놀랐든지'는 놀란 상황이 과거의 일이므로 '-든지'가 아니라 '-던지'로 적어야 한다. '-던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선택의 의미를 지니는 상황이므로 '-든'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이때 '-든'은 '-든지'의 준말이다. ②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던'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③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더라'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⑤ 과거의 일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던지'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30 ㉠의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의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의 '뿐'은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뿐'이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31 '살짝'은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에 해당하므로 '살작'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①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거꾸로'라고 표기해야 한다. ③ '깍뚜기'는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고 '깍두기'로 표기해야 한다. ④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몽땅'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싹뚝'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고 '싹둑'으로 표기해야 한다.

32 '밭을'은 'ㅌ' 받침 뒤에 '을'이 왔으므로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⑤ 'ㄷ' 받침 뒤에 '-이'가 온 것이다. ②, ④ 'ㅌ' 받침 뒤에 '이'가 온 것이다.

33 '뵈다'의 어간 '뵈-'에 어미 '-어요'가 결합한 것은 '봬요' 또는 '뵈어요'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쐬야지'는 '쐬다'의 어간 '쐬-'에 어미 '-어야지'가 결합하므로, '쐐

야지' 또는 '쇠어야지'로 적어야 한다. ③ '들어났다'는 문맥을 고려하여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라는 뜻의 '드러났다'로 적어야 한다. ④ '뭉둥그려'는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뭉뚱그려'로 적어야 한다. ⑤ '시청율'은 모음이나 'ㄴ' 뒤에 '률'이 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시청률'로 적어야 한다.

34 ⓓ의 내용은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꽃처럼'은 명사 '꽃'과 보조사 '처럼'을 붙여 쓴 것이고, '웃고만'은 용언의 어간 '웃–'과 어미 '–고'와 보조사 '만'을 붙여 쓴 것이다. '꽃처럼'은 명사와 조사의 결합이므로 ⓓ를 통해 용언의 어미는 어간에 붙여 쓰는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의존 명사는 그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는 의존 명사 '것'이 쓰였고, '먹을 만큼 먹어라'에서는 의존 명사 '만큼'이 쓰였는데, 이들은 모두 수식어와 띄어서 표기되었다. ②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사과, 배 등속'에서는 열거의 기능이 있는 '등속'이 앞말과 띄어서 표기되었고, '국장 겸 과장'에서는 두 말을 이어 주는 기능이 있는 '겸'이 앞말과 띄어서 표기되었다. ③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에서는 보조 용언 '버렸다'가 본용언과 띄어서 표기되었고, '불이 꺼져간다'에서는 보조 용언 '간다'가 본용언과 붙여서 표기되었다. 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과 '좀더 큰것'은 모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나 붙여 쓴 것이다.

35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문맥상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308동 905호'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이므로 제43항의 다만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④ '만큼'이 용언의 활용형 뒤에 올 때는 의존 명사로 사용된 것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수'가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36 '켤레'는 조사가 아니다. ㉠에서 '켤레'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열'과 띄어 쓴 것이다. 이때 '나'는 조사이므로 앞말인 '켤레'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의 '웃고만'에서 '–만'은 조사(보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용언의 활용형 '웃고'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의 '과'는 내용에 따라 차례로 구분하여 놓은 제목의 단위이므로 제43항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삼 과'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다만에 따라 '제삼과'처럼 붙여 쓸 수도 있다. ④ ㉣에서 '데'는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그러므로 제42항에 따라 '않은 데'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의 '등등'은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이므로 제45항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37 '읽는데'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의존 명사 '데'가 어울린 표현으로, 이때 '데'는 일'이나 '것'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읽는 데'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체언 뒤에 결합하는 '만큼'은 조사이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 것이 적절하다. ②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결합하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 것이 적절하다. ③ '데'가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 것이 적절하다. ⑤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결합하는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 것이 적절하다.

38 '학교에서∨만이라도'에서 '에서, 만, 이라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모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만이라도'처럼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구워'와 '먹었다'는 각각 본용언이므로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② 조사를 제외한 단어를 모두 적절하게 띄어 썼다. ④ '먹어도'는 본용언이고 '보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런데 본용언의 뒤에 보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제47항 '다만'에 따라 보조 용언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⑤ '내일부터는'에서 '부터'와 '는'은 모두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잘 수 있다'에서 '수'는 용언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39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먹을'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아는대로'에서 '대로'는 '아는'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② '약해질대로'에서 '대로'는 '약해질'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생각 대로'에서 '대로'는 '생각'이라는 체언 뒤에서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뜻하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말 만큼'에서 '만큼'은 '말'이라는 체언 뒤에서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뜻하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34~139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7 ③	08 ⑤
09 ①	10 ③	11 ④	12 ①	13 ②	14 ①	15 ③	16 ③
17 ③	18 ①	19 ③	20 ⑤	21 ④	22 ③	23 ①	24 ⑤

01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러므로 '수'를 조사로 보아 '기여할수'로 붙여 써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제11항 [붙임 1]에 따라 '쌍용'이 아니라 '쌍룡'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는 제11항 다만에 따라 모음 'ㅣ' 뒤의 '률'은 '율'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②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제11항 [붙임 1]에 따라 '수력'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는 제11항에 따라 '예의'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제11항 [붙임 1]에 따라 '률'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03 '바가지'는 '박'과 '–아지'가 결합한 말이다. 따라서 '–이'나 '–음/–ㅁ', '–이'나 '–히'가 결합한 것이 아니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굳이'는 '굳다'의 어간 '굳–'에 접미사 '–이'가 붙은 부사이다. ② '익히'는 '익다'의 어간 '익–'에 접미사 '–히'가 붙은 부사이다. ③ '졸음'은 '졸다'의 어간 '졸–'에 접미사 '–음'이 붙은 명사이다. ④ '손잡이'는 '손'과 '잡다'의 어간 '잡–'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명사 '잡이'가 붙은 명사이다.

04 '빈털털이'는 잘못된 표기이므로 '빈털터리'로 적어야 한다. '빈털터리'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이지만 '털다'라는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므로 제19항 [붙임]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깊이(깊– + –이)'는 제19항에 따라 바르게 표기되었다. ② '많이(많– + –이)'는 제19항에 따라 바르게 표기되었다. ③ '얼음(얼– + –음)'은 제19항에 따라 바르게 표기되었다. ④ '이파리'는 '잎 + –아리'로,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아리'가 결합한 말이므로 제20항 [붙임]에 따라 명사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05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라 '-(으)ㄹ거나', '-(으)ㄹ걸', '-(으)ㄹ게' 등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할게요'는 적절한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뵈요'가 아니라 '봬요'로 적어야 한다. ③ '약속한대로'가 아니라 '약속한 대로'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잘하든데'가 아니라 '잘하던데'로 적어야 한다. ⑤ '출생율'이 아니라 '출생률'로 적어야 한다.

06 '빨리 우산을 펴.'에서 '펴'는 '접히거나 개킨 것을 젖히어 벌리다'라는 뜻이므로 기본형이 '펴다'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펴'는 '펴어'가 줄어든 말이다.

오답 해설 ② '돼'는 '되다'의 어간 '되-'에 '-어'가 결합하여 제35항 [붙임 2]에 따라 줄어든 형태이다. ③ '꽜다'는 '꼬다'의 어간 '꼬-'에 '-았-'이 결합하여 제35항에 따라 줄어든 형태이다. ④ '갰다'는 '개다'의 어간 '개-'에 '-었-'이 결합하여 제34항 [붙임 1]에 따라 줄어든 형태이다. ⑤ '봬요'는 '뵈다'의 어간 '뵈-'에 '-어'가 결합하여 제35항 [붙임 2]에 따라 줄어든 형태이다.

07 '너머'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ㄱ의 '거리'와 ㄴ의 '너머'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이고, ㄱ의 '좁히다'와 ㄴ의 '넘어', ㄷ의 '읽-'은 어법에 맞도록 쓴 예이다.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쓰는 것을 의미하며,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독서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

08 (ㄱ)의 '밖에'는 조사로 한 단어이며, (ㄴ)의 '밖에'는 명사 '밖'과 조사 '에'가 결합된 두 단어이다.

09 '파이다'는 'ㅏ'로 끝난 어간에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보기〉의 설명에 따라 '패다'(㉠)와 같이 'ㅐ'로 줄여 적는 것이 적절하다. 같은 이유로 '파인'도 '팬'(㉡)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패다'에서와 같은 'ㅐ' 뒤에 '-었-'이 결합하여 줄 경우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패었다'를 준 대로 적은 것은 '팼다'가 된다. 따라서 '팼다'가 줄기 이전의 본말은 '패었다'(㉢)이다.

10 '(힘에) 부치다'는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붙다'의 의미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번 일은 내 힘에 부친다.'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문맥상 '붙다'와 의미상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쳐'가 적절하다. ② 문맥상 '붙다'와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므로 '붙여라'가 적절하다. ④ 문맥상 '붙다'와 의미상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칩시다'가 적절하다. ⑤ 문맥상 '붙다'와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므로 '붙여'가 적절하다.

11 '씩씩'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으뜸'은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므로 적절하다. ②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 된소리가 나므로 적절하다. ③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므로 적절하다. ⑤ '낙지'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에 따라 '낙지'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12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2]에 따르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따라서 '어서 오십시요'가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가 맞는 표현이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② 어간과 어미는 구분해서 써야 한다. 어간 '있-'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는 '있음'이다. ③ '떡볶이'는, '떡'과 '볶다'의 어간 '볶-' 뒤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은 '볶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므로 '떡볶이'로 적어야 한다. ④ 한글 맞춤법 제9항에 따르면,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늬'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늬'로 적는다. 따라서 '희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적어야 한다. ⑤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나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달이다'이다. '다리다'는 옷을 다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13 '만큼'과 '대로'는 모두 조사와 의존 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 품사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 한다. 우리말에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며(한글 맞춤법 제41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한글 맞춤법 제42항). ㄴ의 '공부한 만큼'에서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하지만, '생각만큼'의 '만큼'은 '생각'이라는 명사와 결합하고 있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너만큼'의 '만큼'은 대명사 '너'와 결합하고 있는 조사이다. ③ '나대로'의 '대로'는 대명사 '나'와 결합하고 있는 조사이고, '꽃은 꽃대로'에서 '대로'도 '꽃'이라는 명사와 결합하고 있는 조사이다. 그리고 두 경우의 '대로' 모두 '따로'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④ '아는 대로'의 '대로'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아는'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그리고 '발길 가는 대로'의 '대로'도 용언의 관형사형인 '가는'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⑤ '공부한 만큼'과 '아는 대로'에서 '만큼'과 '대로'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그리고 '노력할 뿐이야'의 '뿐'도 용언의 관형사형인 '노력할'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14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알 만도 하다.'는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문장이다. 참고로 '만하다'는 보조 용언으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알 만도 하다'와 같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면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선택의 의미가 있는 '-든지'가 적절하므로 '그러던지 말던지'가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로 표기해야 한다. ③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로 표기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④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ㄹ껄'이 아니라 '-ㄹ걸'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다했을껄'이 아니라 '다했을걸'로 표기해야 한다. ⑤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따라서 '돼어'가 아니라 '돼'나 '되어'로 표기해야 한다.

15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발음과 다른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5항은 된소리로 나는 것은 된소리로 적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16 ③에서의 '만'은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주먹'과 '만'을 붙여 '주먹만 한'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만'의 뜻으로 쓰인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 것이 적절하다. ② '만[3]-①'의 뜻으로 쓰인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 적절하다. ④ '만[3]-②'의 뜻으로 쓰인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 것이 적절하다. ⑤ '만[2]'의 뜻으로 쓰인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 것이 적절하다.

17 〈보기 1〉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설명에 따라, ㉢에서 '깍두기'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ㄲ'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깍뚜기'가 아닌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18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적을 때도

된소리로 표기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흴쏘냐[흴쏘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어미 '-ㄹ걸'은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표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사소리로 적는다. 따라서 '잘껄'이 아니라 '잘걸'로 표기해야 한다. ③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적을 때도 된소리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있을고'가 아니라 '있을꼬'로 표기해야 한다. ④ 어미 '-ㄹ세라'는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표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사소리로 적는다. 따라서 '말릴쎄라'가 아니라 '말릴세라'로 표기해야 한다. ⑤ 어미 '-ㄹ게'는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표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사소리로 적는다. 따라서 '갈께'가 아니라 '갈게'로 표기해야 한다.

19 '날이 흐린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에서 '흐린 걸'은 '흐린 것을'의 구어적 표현이다. 이때의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걸'이 문맥상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⑤ '걸'이 문맥상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ㄴ걸'의 일부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보기〉 제5항의 ㉮에 따른 것이다. '깍두기'의 '두'는 'ㄱ' 받침 뒤에서 '뚜'로 된소리가 나는데,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의 '맏사위'의 경우는 '맏-'과 '사위'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깍두기'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오답 해설 ①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의 예를 보면 모두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다. ② '납짝'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에 따라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짭잘하다'가 아니라 '짭짤하다'로 적는 것은 ㉮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④ '물뼝'이 아니라 '물병'으로 적는 것은 '물병'이 '물'과 '병'이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칼날' 또한 '칼'과 '날'이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21 '조리다'는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이고, '졸이다'는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 '속을 태우다시피 초초해하다'의 뜻이므로, '그를 오늘 만나지 못할까 가슴을 졸였다.'와 '밑반찬으로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바치다'가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받치다'도 '비나 햇빛과 같은 것이 통하지 못하도록 우산이나 양산을 펴 들다.'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② '걷잡다'가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겉잡다'도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③ '안치다'가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앉히다'도 '사람이나 동물이 윗몸을 바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에 몸무게를 실어 다른 물건이나 바닥에 몸을 올려놓다.'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⑤ '반드시'가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며, '반듯이'도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22 '앎'은 어간 '알-'에 '-ㅁ'이 붙어서 된 명사이지만 원래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이 아니며 어간의 원형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Ⅱ의 ㄱ이 아니라 Ⅰ의 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길이'는 '길다'의 어간 '길-'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로, 어간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② '익히'는 '익다'의 어간 '익-'에 '-히'가 붙어서 된 부사로, 어간의 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④ '자주'는 '잦다'의 어간 '잦-'에 '-우'가 붙어서 된 부사로,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⑤ '부터'는 '붙다'의 어간 '붙-'에 '-어'가 붙어서 된 조사로,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23 'ㅚ' 뒤에 '-어'가 붙은 형태는 'ㅙ'로 줄어질 수 있으므로 '쐬어라'는 '쐐라'로 줄어질 수 있고 표기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쐬라'는 틀린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② '괴-'와 '-느냐'가 결합하는 것은 'ㅚ' 뒤에 '-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므로 'ㅙ'의 표기가 나올 수 없다. ③ 'ㅚ'와 '-어'가 'ㅙ'로 줄어지는 것이므로 '좨도'의 원래 말은 '죄어도'이고 이는 어간 '죄-'와 어미 '-어도'가 결합한 말임을 알 수 있다. ④ '뵈-'와 '-어서'의 결합인 '뵈어서'는 'ㅚ' 뒤에 '-어'가 오는 경우이므로 '봬서'로 줄어질 수 있다.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하는 것은 'ㅚ' 뒤에 '-어'가 붙는 경우가 아니므로 'ㅙ'의 표기가 나올 수 없다.

24 〈보기〉의 [맞춤법 규정]의 제19항 [붙임]에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다. '마개'를 분석해 보면 '막- + -애 → 마개'가 된 것이므로 어간에 '-애'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마개'는 원래 어간의 뜻과 멀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19항 [붙임]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먹이'에서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이며, 의미 또한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먹이'로 적는 것이다. ② 장신구로서의 '목걸이'는 '-이'가 결합되었고,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 ③ '마중(맞- + -웅)'에서 '-웅'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로, '마중'은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④ '같이'는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며 어간의 뜻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40~141쪽

01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인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02** 〈보기〉는 '흰 색연필도 사다 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흰색 연필도 사다 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03** '곧이어'는 모두 실질 형태소인 '곧'과 '이어'가 결합한 말이므로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4** '노름'과 '놀음'은 모두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다. 이때 '놀음'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노름'은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05** (가)의 '대로'는 용언 뒤에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 것이고, (나)의 '대로'는 체언 뒤에 쓰인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 것이다. **06** 이곳에서∨지낸∨지∨벌써∨일∨년이∨지났다.

01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빗', '빚', '빛'은 모두 [빋]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꽃'도 음운 환경에 따라 [꼳(꽃)], [꼬치(꽃이)], [꼰나무(꽃나무)]로 달리 발음된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다면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인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

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02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의미를 해석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는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를 기본 단위로 하는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있다.

03 '곧이어'는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결합한 것이 아니므로 [고디어]로 소리 나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04 '놀음'과 '노름'은 모두 '놀다'의 어간 '놀-'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말들이다. 그런데 '놀음'은 어간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은 반면 '노름'은 밝혀 적지 않았다. 이는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05 '대로'나 '만큼'은 환경에 따라 조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존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이어질 때는 조사로,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이어질 때는 의존 명사로 사용된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06 '이곳에서지낸지벌써일년이지났다.'에서 '에서, 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며, '년'은 단위성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42~14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07 '깍두기'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지만, '법썩'은 '법석'으로 표기해야 한다.

11 의존 명사는 앞말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12 '-든지'와 '-든'은 선택의 의미로 쓰이고, '-더-'와 '-던'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에 그대로 옮겨 전달할 때 쓰인다.

13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15 용언의 관형사형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하는만큼은'을 '하는∨만큼은'으로 수정해야 한다.

16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했으므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03 매체의 변천과 수용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46~149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② 07 ② 08 ⑤
09 ④ 10 ① 11 ③ 12 ① 13 ②

01 예를 들면서 여러 매체를 소개하고 있지만, 각 매체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구어 매체 → 인쇄 매체 → 음성 매체 → 영상 매체 → 뉴 미디어'와 같이 매체의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살피고 있다. ②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뉴 미디어' 등에서 예시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③ '매체의 변화가 사람들의 소통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같은 소제목을 달아 이어질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④ 여러 매체의 특징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뉴 미디어를 활용하면 누구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 방송이다.

오답 해설 ① '시공간을 초월한 빠른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와 '전 세계의 이용자와 연결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광범위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뉴 미디어의 소통 방식은 구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새롭게 재현합니다.'와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몸짓과 표정,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감과 댓글 등으로 상호 작용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주고받은 대화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쌍방향 의사소통'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정보 생산자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행위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②, ④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와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이므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는 경우이므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다.

04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가 복합 양식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합 양식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나 그래프, 이미지 등에서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공정성을 따져 보는 것이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적절하다. ②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이 제작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적절하다. ④, ⑤ 매체 자료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따져 보는 것이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적절하다.

05 방송에서 진행자가 자신의 조카를 예쁘게 여기고 있지만 이를 편협하게 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저렇게 아이 얼굴이 방송에 다 나와도 됨?'이라는 댓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이런 게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 같아.'라는 댓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나도 갖고 싶다. 비싼 자동차.'라는 댓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진행자가 자기 조카에게 고급 장난감을 선물했다는 내용은 진행자의 사생활로 볼 수 있으며, 조카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서 진행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06 〈보기〉의 매체는 텔레비전으로 영상 매체에 해당하며, 제시된 매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 미디어이다. 두 매체 모두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등을 두루 활용하여 복합 양식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텔레비전 같은 영상 매체는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제공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 미디어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쌍방향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방송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텔레비전 같은 영상 매체는 정보 제공자가 한정되어 있다. ④ 〈보기〉의 텔레비전 같은 영상 매체는 특정 시간에 방송이 제공되는 반면, 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은 수용자가 원하는 때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⑤ 〈보기〉의 텔레비전 같은 영상 매체는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제공되기에 수용자와 소통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다. 이와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 미디어는 수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07 ㉠에서는 시각 이미지인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문자로 나타낼 수 없는 표정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화상 통화를 통한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과 ㉡은 모두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통하고 있다. ④ ㉡에서는 음성 언어만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데 비해 ㉠에서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 같은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고,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확인하며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비격식적 표현을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격식적 표현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높임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말한다.

08 휴대 전화를 이용한 대화에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상품권 이미지를 제시한 것은 휴대 전화 메신저의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두 사람의 대화 참여자가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실시간으로 문자를 이용해 소통하고 있다. ② 왼쪽의 대화 참여자가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문자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표정을 표현하고 있다. ③ 오른쪽의 대화 참여자가 파일 전송 기능을 사용하여 상품권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④ 화상 통화를 통해 직접 대면한 것처럼 상대방의 모습과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09 블로그에서는 '다' 후보의 그래프를 본래 수치보다 높게 표현하는 시각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의 수치를 조작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어떤 저명한 소식통'이라고만 표현하여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② 전체적으로 '다' 후보를 지지하는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내용의 공정성이 떨어진다. ③ '한 언론사'라고만 표현하여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⑤ '다' 후보의 지지율은 24%인데도 얼핏 33%인 '가' 후보의 그래프 높이와 비슷하게 제시하면서 22%인 '나' 후보 및 21%인 '라' 후보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각적 왜곡을 유도하고 있다.

10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하되, 각 후보들의 얼굴과 그래프 등을 제시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복합 양식적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게시물에서 하이퍼링크는 사용되지 않았다. 참고로, 비선형성은 어떤 정보가 순차적으로 제시되거나 수용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수 있는 성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이나 신문, 텔레비전 같은 전통적 매체는 선형적으로 정보가 제시되어 수용자가 이에 따라 정보를 수용하는 반면, 뉴 미디어에서는 주로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비선형적인 방식의 정보 제공이나 수용이 이루어진다. ③ 제목은 본문과 굵기 및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본문 내에서는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소제목은 사용되지 않았다. 본문 내에서 '선거 결과도 그럴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1 정보 유통의 개방성이 높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정보 유통의 개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텔레비전 보도는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즉시 수용자에게 전송되므로 인쇄 매체보다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빠르다. ② 정보 제공의 속도는 정보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속도를 가리킨다. 사건 발생 시점과 보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나, 두 시점의 간격이 좁을수록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빠른 것이다. ④ 텔레비전 보도는 정보 수용자를 특정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매체 정보 유통의 개방성이 높다. ⑤ 텔레비전 뉴스는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소통의 정도가 낮다.

12 방송에서 장애인 운동선수를 불필요하게 비장애인과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비장애인 올림픽'이라는 표현은 패럴림픽이 신체 장애인 체육 대회라는 점을 배려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그녀 앞에서는 누구도 고난과 좌절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양팔을 잃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은' 등과 같은 표현에서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난다. ③ '세상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준비를 마쳤습니다.'에서 장애가 있는 선수에게 감동이나 희망 같은 특정 가치를 덧씌우는 편견이 드러난다. ④ '미남 검객'이라는 자막이나 '잘생긴 얼굴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이라는 표현에서 외모 지상주의적 사고가 드러난다. ⑤ '심지어 백스핀까지 해냅니다.'에서 장애인은 운동 능력이 떨어져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13 ㉡은 아나운서가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가 아니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수 소개를 시작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아나운서가 시청자에게 하는 발화로, '내일, 패럴림픽이 개막합니다.'라며 패럴림픽 개최라는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③ 기자가 시청자에게 하는 발화로, '누구일까요?'라는 의문형으로 마무리하여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④ 참가한 선수의 외모에 초점을 두는 발화로, 경쟁을 위한 패럴림픽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⑤ '심지어 백스핀까지 해냅니다'라는 내용은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에서 선수의 기술력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50~153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③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③ 12 ④ 13 ①

01 문자는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의 매체가 등장할 때부터 사용되었는데, 이전보다 현대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현대 사회에서는 이메일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대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등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의 비중이 매우 크다. ②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매체는 이러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④ 의사소통을 하는 당사자끼리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생각과 느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할 때도 매체가 활용된다. ⑤ 문자 언어가 등장하면서 음성 언어의 한계를 보완하고, 영상 매체가 등장하면서 인쇄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영상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02 ⓐ는 표정이나 행동 같은 비언어적 표현, 소리의 세기나 억양 같은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음성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도 그림이나 그래프 등과 같은 시각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문자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03 인쇄 매체(㉠)만이 아니라 음성 매체(㉡)도 대부분 정보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므로 일반인이 정보 생산자가 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뉴 미디어(㉢)는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책이나 신문 같은 인쇄 매체와 라디오 같은 음성 매체는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반면 뉴 미디어는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③ 인쇄 매체, 음성 매체, 뉴 미디어 모두 대량의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책이나 신문 같은 인쇄 매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④ 뉴 미디어는 영상과 문자, 소리 등을 모두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인쇄 매체는 문자와 시각 자료만 이용하며, 음성 매체는 음성과 소리만 이용한다. ⑤ 인쇄 매체, 음성 매체, 뉴 미디어 모두 생산자와 수용자의 대면 없이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진다.

04 전체적으로 '다'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의도가 드러나지만 '가' 후보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제시한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단일화된 '다'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라는 문장과 '다' 후보의 그래프 높이를 과장하는 것과 같은 구성에서 선거에서 '다'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② 여론 조사를 한 기관을 '한 언론사'라고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나', '다', '라'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정보의 출처를 '어떤 저명한 소식통'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다. ⑤ '다' 후보의 그래프는 '나' 후보의 높이보다 조금 높아야 하는데, 지지율이 훨씬 높은 '가' 후보의 그래프 높이와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복합 양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05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에는 가짜 뉴스나 미확인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의 진위나 타당성, 신뢰성 등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악성 댓글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선한 댓글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표준어만을 사용하여 소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비대면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이것도 소통의 한 양상이므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표현해야 한다. ⑤ 뉴 미디어에서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므로 특정인을 소통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보를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06 텔레비전 방송인 (가)는 정보 제공자, 즉 방송 내용의 생산자가 소수의 전문가들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 방송인 (나)는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댓글 등을 통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지만, (가)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가 소통하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②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 미디어를 활용하므로 방송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쉽다. 하지만 (가)는 (나)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어렵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소리, 문자, 이미지 등을 사용한 복합 양식적 구성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07 (가)에서는 음성, 문자, 영상 등 다양한 매체 언어를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전달하려는 바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막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문 용어의 뜻을 자막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② 뉴스 진행자는 격식체만 사용하고 있다. 뉴스 내 전달자인 ○○○ 기자가 '~ 선수는 누구일까요?'에서 비격식체의 표현을 한 번 사용할 뿐이다. ③ 뉴스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소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기자가 펜싱 선수의 다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08 '그녀 앞에서는 누구도 고난과 좌절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양팔을 잃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은' 등과 같은 표현에서 장애

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심지어 백스핀까지 해냅니다.'에서 선수의 기술력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방송의 내용과 화면 이미지가 제대로 연결되고 있다. ④ 펜싱 선수인 로드리고가 반드시 메달을 획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는 부분은 인터뷰 내용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선수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특정 선수의 연습 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09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라는 댓글을 통해 물리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댓글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모두 비격식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용은 나타나지만 새로운 정보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문자로 직접 제시되고 있다. 이모티콘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 기호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뉴 미디어를 이용한 대부분의 콘텐츠는 신속한 전달을 중시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수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대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오답 해설 ① '개인 방송은 누구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에 다양하고 차별화된 소재를 담고 있으며'에서 누구나 다양하고 차별화된 소재를 담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무선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에 기반하여 등장하였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뉴 미디어의 소통 방식은 구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새롭게 재현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거나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나)에서 왼쪽 화면은 정보 생산자, 오른쪽 화면의 댓글은 정보 수용자로 나누어져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왼쪽의 대화 참여자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표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구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새롭게 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이 글의 '더 나아가 주고받은 대화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를 볼 때, 뉴 미디어에 해당하는 (가)에서도 주고받은 대화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댓글창의 '맛있겠다.', '나도 해 봐야지.' 등의 반응에서 정보 수용자가 방송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반응은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감과 댓글 등으로 상호 작용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⑤ (나)의 댓글 중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에서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의 이용자와 연결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광범위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한다.

12 '준호'의 글에서는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 세 가지를, 가운데 정렬 방식으로 제시하여 글의 정렬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스마트폰 사용 현황 및 분석》,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라는 소제목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일주일간 스마트폰 사용량을 보여 주는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지난주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표시하는 문구인 '3시간 정도'라는 글자의 굵기를 다른 글자들과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그래프 주변에 화살 모양의 표지를 사용하여 그래프 내용의 일부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정보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13 다양한 매체 언어를 활용하여 복합 양식으로 구성했는지 여부는 비판적 수용을 위한 질문과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② 내용의 신뢰성을 따져 보기 위한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③, ④ 표현의 적절성을 따져 보기 위한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⑤ 내용의 공정성을 따져 보기 위한 질문이므로 적절하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54쪽

01 뉴 미디어는 전통적 매체와 달리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02**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구어와 같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화상 통화를 통해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상대방의 행동과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대화 상황에 대한 표정을 구현할 수 있다. **03** 매체 자료에 나타나는 관점이나 의도, 표현 방법, 인용 자료의 출처 등에 주의를 기울여 매체 자료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 본다.

01 뉴 미디어는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정보에 반응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나 생각을 주고받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개인 방송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02 휴대 전화와 같은 뉴 미디어를 이용한 대화는 구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새롭게 재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도 직접 만난 것처럼 화상 통화를 하거나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몸짓과 표정까지 표현할 수 있다.

03 매체 자료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생산했는지, 생산자의 관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왜곡되거나 누락된 정보는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5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2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나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는 모두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04 음성과 소리만을 사용하는 라디오와 달리 텔레비전도 문자, 음성, 소리, 영상 등을 두루 활용한 복합 양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06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생산자나 출처를 확인하고 신뢰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얼

마든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12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이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는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이나 표현의 적절성 등 비판적 수용과 무관하다. 매체 자료의 복합 양식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4 생각을 키우는 독서

01 주제 통합적 읽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60~165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⑤
09 ②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⑤	15 ⑤	

01 1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창작한 그림이 실제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사진술과 회화를 비교하며 예술의 본질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특별한 사건이나 시간의 흐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사건을 나열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개념 정의보다는 논거를 통해 논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4~5문단에서 글쓴이는 예술 작품에는 희소성이 중요한데, 그 희소성은 창작자의 삶과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창작자의 삶과 의도가 예술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인공 지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4~5문단에 따르면 글쓴이는 예술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작품의 완성도가 아닌 희소성과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한 아우라가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인공 지능이 만든 예술이 인간이 만든 것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③ 인공 지능과 예술 작품의 생산성은 이 글의 중심 논지가 아니다. ④ 희소성과 아우라를 고려했을 때, 인공 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03 6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해도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5문단의 '이처럼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에 기반하여 매겨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사진술 이후 회화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인공 지능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예술은 인간의 의미 부여 행위로, 인간은 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므로 희소성을 가지는 것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하였다. ⑤ 인공 지능이 만든 예술적 창작은 인간의 예술 영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04 ㉠은 인간이 아닌 인공 지능이 창작한 것으로 경매에 출품되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오답 해설 ① 5문단에서 고흐의 그림을 예로 들고 있지만 ㉠과는 상관이 없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은 가상의 남자를 그린 초상화로, 실제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다. ③ 추상적인 구도를 채택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1문단에 따르면 대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윤곽이 모호한 신비로운 분위기로 표현했다.

05 ㉡에서 사진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회화의 영역과 가치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진술이 예술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없으며 오히려 마지막 문단에서 사진술을 이용한 예술 장르가 생겨났다고 했다. ② 인공 지능 예술의 위험성보다는 인공 지능 예술과 인간이 만든 예술의 차별화와 예술의 확장을 강조하

고 있다. ③, ④ 회화가 사진술로 대체되지 않았고, 회화의 가치가 사라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예술 경향을 만들어 냈다.

06 이 글과 〈보기〉 모두 예술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다는 공통적 관점을 갖고 있다. 〈보기〉 역시 이 글과 마찬가지로 인공 지능 시대에도 인간이 중요하고, 인공 지능이 예술 본연의 가치를 바꿀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인간의 예술 작품만이 가치가 있다며 인간이 창작한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 내용을 통해서 관련 업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인공 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마지막 문단과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진과 회화의 사례 제시를 통해서 기술이 예술을 확장하고 다양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⑤ 이 글의 1문단에서 미국의 실제 그림 경매 사례를 제시하여 인공 지능 화가가 그린 작품이 인간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 높은 값에 낙찰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의 앞부분에서도 미국 작가 조합의 파업 사례를 통해 인공 지능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07 '인공 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페니실린 발견, 케이지의 음악 등 다양한 사례와 논거를 통해 우연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재검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예술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인공 지능의 창의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인공 지능의 결과물을 인간의 예술 작품과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④ 구체적인 수치나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08 마지막 문단에서 '인공 지능으로부터 우연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며 인공 지능 결과물의 예술적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의 '우리는 흔히 창의적인 ~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를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② 창작을 인간만의 영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인공 지능이 인간보다 창의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④ 예술의 정서적 공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9 글쓴이는 우연성은 무작위와 다르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의성은 기억, 인지, 결합과 같은 복잡한 지적 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반복적 무작위는 창의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2~3문단에서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은 무작위성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창의성에는 지식이나 기억의 결합이 중요하며, 4문단에서 이러한 결합 과정에서 우연성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사례는 배경지식이 없다면 발견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우연성에는 배경지식이 전제됨을 보여 준다. ⑤ 2문단에서 인과 관계 없는 사건들이 단순히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창의성과 관계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이 글은 인공 지능이 인간처럼 데이터를 조합하여 창의적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결과물이 예술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한편 〈보기〉는 실제 인공 지능의 작곡 사례를 통해 창작 개념의 재정의를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 글과 〈보기〉의 사례는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는 인공 지능의 창작이 예술의 전통 개념에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창작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인공 지능의 예술 창작 가능성에 주목하며, 인간 고유의 예술 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④ 이 글은 '우연성'을 중심으로 한 존 케이지의 창작 과정과 인공 지능의 창작 과정을 비교하여 인공 지능과 인간의 창의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보기〉는 '튜링 테스트'를 통해 기계가 인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판별함으로써 기계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담고 있다. 즉, 이 글과 〈보기〉는 그 형식은 다르지만 기계와 인간을 비교하여 그 경계를 탐구하는 유사한 철학적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은 인공 지능의 창작에 예술적 의미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기〉도 창작의 경계를 문제 삼는 맥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1 (가)의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쓴이는 창작자의 삶, 의도, 희소성, 유한성, 아우라 등이 예술 작품의 본질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감상자의 감정 반응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가)는 인공 지능 창작물이 예술로서의 본질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술 자체가 예술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마지막 문단을 참고하면 오히려 인공 지능을 도구로 활용해 예술을 확장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창작자의 생애, 의도 등의 요소를 예술의 본질로 제시하고 있다. ③ (나)는 인간의 창의성과 인공 지능의 창작을 연결해 분석하고 있다. ④ (나)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이나 생각을 결합해 재생산한 창의성이 우연성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인공 지능의 창작물을 예술적 가능성과 연관지어 논의하고 있다.

13 (나)의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작품과 동등한 예술로는 보지 않더라도,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 예술적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창의성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즉 우연성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② 인공 지능의 결과물도 사람처럼 데이터를 조합해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인간의 창의성이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재생하는 행위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고 있다. ⑤ 인공 지능의 결과가 창의적으로 보이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인간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4 (가)에서 '최근 인공 지능이 구현해 내는 기술적 수준을 보면 창의성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므로 인공 지능의 작품이 창의성이 없다고 한 것은 (가)의 내용과 배치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핵심 주장인 예술은 창작자의 삶과 의도가 담긴 희소한 결과물이어야 가치가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② (나)의 논지에 부합하며 인공 지능이 창의적 행위를 모방할 수 있음을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③ (가)의 예술은 인간의 의미 부여 행위라는 주장과 일치하며, 인공 지능의 한계를 강조하는 관점이므로 적절하다. ④ (나)는 인공 지능이 인간과 동일한 예술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물은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일치한다.

15 (가)는 인공 지능의 예술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나)는 인공 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두 글은 서로를 보완한다기보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작품의 아우라와 희소성을 강조하고, (나)는 인공 지능의 확률적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 창작을 강조하므로 관점이 명확히 대비된다. ② (가)는 고흐를 통해 예술의 본질이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을 예로 들어 인공 지능의 창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인공 지능과 예술을 화제로 하여 창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화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는 고흐와 사진술, (나)는 케이지의 사례를 통해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데, 서로 관점이 다르므로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66~171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②
09 ⑤ 10 ④ 11 ⑤ 12 ⑤ 13 ① 14 ⑤ 15 ③

01 (가)는 예술의 본질을 인간 창작자의 삶과 정신에 따른 희소성이라는 인간적 조건에서 찾고 있으며, 인공 지능 창작물은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반면 (나)는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 사례를 통해 우연성과 알고리즘 기반의 창작 방식이 인공 지능의 예술 창작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창의성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두 글은 예술 창작의 본질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상반된 관점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기술적 완성도가 아닌 희소성과 창작자의 삶을 강조한다. (나)는 데이터 결합과 확률적 우연성이 창의성 발현 과정에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므로, 창의성이 작용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가)는 창의성의 유한성이 아닌 예술의 유한성(희소성)을 강조하며, (나)도 창의성의 무한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가)는 인공 지능 창작의 예술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나)는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는 무작위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나)도 인간적 감정을 중시한다고 볼 수 없다.

02 (가)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을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술의 핵심 기준은 '희소성'으로, 이 희소성은 창작자의 삶과 정신이 반영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예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③ 인공 지능인 오비어스가 그린 작품이 높은 값에 팔린 것이 주장의 이유는 아니다. ④ (가)에서 인공 지능이 예술가의 화풍을 모방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장의 이유가 될 수 없다. ⑤ (가)에서는 완성도와 예술성은 구별되며, 완성도가 높더라도 예술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3 (가)는 예술성이 창작자의 삶과 정신, 희소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반면 (나)는 존 케이지의 음악처럼 우연성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연성 기반 창작도 예술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나)의 입장을 통해 (가)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인공 지능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인공 지능의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는 오비어스의 작품이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인공 지능 창작물이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언급이 없다. ④ (나)에서는 창의성의 조건으로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창작자의 삶이나 정신이 없다고 해서 창의성과 예술성을 부정하는 것이 창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인공 지능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만, 인간의 창작 과정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04 (나)에서 인공 지능은 기존의 그림을 데이터로 사용하고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우연성을 발생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였다. 〈보기〉의 딥드림 역시 기존 화가의 화풍을 학습한 뒤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우연적인 색채의 조화를 만들어 냈으므로 창의적인 행위라고 볼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예술은 인간의 의미 부여 행위라고 했으므로, 단순 미적 완성도만으로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가)의 입장에서 적절하다. ② 창작자의 감정이 담겨 있어야 예술이라는 판단은 (가)의 핵심 논지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③ 데이터 조합은 예술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설명은 (가)의 입장과 일치한다. ④ (나)에서는 존 케이지의 사례처럼 우연성 기반 창작도 예술로 인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딥드림의 우연적 조합은 창의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05 (가)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인간의 예술 작품과 구별된다고 하였으며 (나)는 인공 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 작품과 완벽하게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인공 지능 창작물이 인간의 예술 작품과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정도로 예술 창작 능력이 발전했다고 보며, (나)는 인간처럼 창의적인 방식으로 창작한다고 본다. ② (가)와 (나) 모두 인공 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간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 ③ (가)는 인간과 인공 지능의 창작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며, (나)도 방식이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④ (가)는 인공 지능 창작물의 예술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감정 표현의 취약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나)에서도 창의성을 감정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06 (가)와 (나) 모두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해 '예술성'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의 주제를 포괄하는 제목으로 '인공 지능 창작물의 창의성과 예술성 평가'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기술 발전에 대한 설명은 (가)와 (나)에서 배경 정보로만 제시되며 (가)와 (나)의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② 인공 지능 범죄나 도덕적 문제는 (가)와 (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④ (가)와 (나)에 사회적 메시지를 주제로 한 내용은 없다. ⑤ 일자리 문제는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가)의 1문단에서 배경으로 언급되나 중심 내용은 아니다.

07 (나)는 인공 지능 창작에서 창의성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우연성이 데이터베이스의 조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이를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인공 지능이 알고리즘적 우연성을 통해 인간처럼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은 (가)에서 제기되며, (나)는 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② (나)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우연성'이 핵심이며, 결과가 항상 예측 가능하다는 설명은 오히려 (나)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③ 희소성에 대해서는 (나)에서 전혀 다루지 않으며, 우연성의 작용에 의한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나)에서 케이지가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작곡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예술 방식이 인공 지능 창작과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을 뿐이다.

08 (가)는 인공 지능이 아무리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도 창작자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인공 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작품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예술의 본질을 희소성과 창작자의 삶에 두는 것은 (가)의 핵심 주장이다. ③ (나)는 창의성의 발현 조건으로 우연성과 데이터 조합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는 인간의 창의성과 인공 지능의 창의성이 결합 방식 면에서 유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인공 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9 (가)는 인공 지능이 인간 예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으며, (나)도 그 가능성을 열어둘 뿐 완전한 대체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희소성이 핵심 개념이며, (나)는 우연성에 기반한 창의성이 핵심 개념이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인공 지능과 예술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즉, (가)와 (나)는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쓴 글이다. ③ (가)는 인공 지능 창작의 예술적 한계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나)는 인공 지능의 예술적 창작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는 인간 중심 예술관, (나)는 인공 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이라는 관점 차이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10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창작한 그림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예술성 논의, 그리고 예술의 본질로서의 희소성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예술 작품의 객관적 가치를 수치화한 알고리즘 개

발에 관한 보고서를 자료로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오비어스의 그림은 1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이므로 적절하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사진술의 등장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경매 사례와 낙찰가 정보(오비어스의 초상화, 앤디 워홀의 작품)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⑤ 3문단에서 '오비어스의 등장 이후에도 인간의 창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술과 창작 영역에서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그에 필적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라며 오비어스 이후의 사례들이 인공 지능의 창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로서 적절하다.

11 이 글은 인공 지능이 창작한 작품의 '예술성'을 논의하는 글로, 기술적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공학 학술지에 싣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나 인문, 사회 또는 예술 관련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 등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자신의 견해를 밝혀 설득하는 논설문에 해당한다. ② 이 글은 인공 지능의 예술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③ 이 글의 독자는 인공 지능과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독자로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제시한 경매 사례는 이 글의 대표적인 반론 사례로서 글쓴이는 이를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2 〈보기〉는 인간의 창의성도 우연적인 조합과 기계적인 행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인공 지능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도,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창의성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도 인간만이 창의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② 기술적인 모방일 뿐 창작자의 정신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글의 입장이다. ③ 예술의 가치를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서 찾는 것은 이 글의 관점이다. ④ '인공 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이 비싸게 팔렸으니까 인간 예술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 글이나 〈보기〉의 관점과 다르다.

13 이 글에서는 인공 지능의 예술 창작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이 창작 자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인간의 창작물도 복제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은 이 글의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설득력을 가지는 반론으로 볼 수 있다. ③ 감상자의 해석에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창작자 중심의 주장에 대한 유의미한 반론으로 볼 수 있다. ④ 오비어스의 그림이 높은 값에 낙찰된 것은 실제 사례이므로 예술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감상자의 미적 감동은 예술 가치 평가의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반론으로 볼 수 있다.

14 이 글에서는 예술의 본질을 '희소성'이라고 보는데, 이는 단순한 수량의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삶과 독자적인 의도가 깃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인간은 그러한 유한하고 고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그것이 예술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삶과 의도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미 부여가 핵심이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예술 작품이 예술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희소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량으로 복제 가능한 것은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예술의 기준을 '독특함'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희소성'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기술적 완성도나 정교함이 예술 작품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인공 지능이 아무리 높은 완성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도, 그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삶과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④ 아우라는 예술 작품이 갖는 고유한 분위기로,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한다.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

15 이 글은 예시를 통한 설명(사례 중심의 논거 제시)에 가깝고, 연역이나 귀납의 논증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글의 성격이나 글쓴이의 의도에 맞는 논증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논증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주장의 명료성은 글쓰기의 기본 고려 사항에 해당한다. ②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④ 주장–근거–이유의 긴밀한 연결은 글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⑤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여부는 글쓴이의 주장이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72~173쪽

01 예술 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한 희소성에 의해 결정된다. **02** 인공 지능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우연성에 의해 창작물을 만들어 내며, 인간도 우연성을 바탕으로 창작하기 때문이다. **03** (가)의 글쓴이는 인공 지능 창작물은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예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인공 지능도 데이터베이스와 우연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04** • (가): 인공 지능 창작물은 창작자의 삶과 정신이 결여되어 있어 희소성과 아우라를 가지지 못하므로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 (나): 인간의 창의성 역시 아이디어 결합과 우연적 과정 속에서 발현되며, 인공 지능 역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01 (가)에서는 창작자의 숨결이 깃든 한정된 작품만이 아우라를 가지며, 그것이 예술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02 (나)에서는 인공 지능이 확률적 프로그래밍을 통해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며, 인간도 우연성에 기대어 창작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03 (가)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을 예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는 인공 지능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예술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관점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04 (가)의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아무리 정교한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이라는 예술 고유의 본질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도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반론에 대해 희소성과 아우라가 없기 때문에 예술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인공 지능이 데이터베이스와 우연성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창의성과 차이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글쓴이는 인간의 창의성도 기계적·우연적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74~17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3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09 〈인공 지능, 예술에 도전하다〉의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인간의 예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않고, 인간의 예술과 구별된다고 본다.

11 〈인공 지능, 예술에 도전하다〉에서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창작자의 삶과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며, 그로 인해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5 〈예술하는 인공 지능〉의 글쓴이는 인간 창의성과 기계적 창의성을 완전히 구분 짓지 않고, 인간과 인공 지능 모두 데이터베이스와 우연성에 기반하여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본다.

16 〈예술하는 인공 지능〉의 글쓴이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인간의 창작물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부분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한다.

19 〈인공 지능, 예술에 도전하다〉와 〈예술하는 인공 지능〉은 모두 예술의 본질을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희소성이나 우연성 같은 다른 요소에서 찾는다.

02 사회적 독서와 발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78~183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① 05 ⑤ 06 ④ 07 ②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② 13 ③ 14 ② 15 ⑤ 16 ②
17 ①

01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 오염의 다양한 원인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전구를 엘이디(LED)로 바꾸는 것, 비닐 포장을 종이 포장으로 바꾸는 것, 내연 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②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쓰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환경을 위해 어떤 행동을 습관화해야 할지 질문한 후 그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④ 면 에코 백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2 3문단에서 오가닉 면을 사용한 에코 백이 오히려 환경 효율이 나쁘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에너지 요인이 온난화 문제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차를 덜 타는 것, 전기를 덜 사용하는 것 등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택할 경우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고르기보다 아끼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면 에코 백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친환경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에코 백을 7,100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 아끼기를 실천하지 않고 고르기만으로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고, 아끼기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투입된 자원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고르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르기만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②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신하기 위해 면 에코 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통해 환경을 위해 고르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④ 고르기만으로 환경에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은 대부분 의도한 결실을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⑤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 것은 고르기가 아끼기에 비해 까다롭다는 것을 보여 준다.

04 ㉡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신하기 위해 면 에코 백과 같은 다른 가방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친환경적인 비닐봉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신하여 다른 가방을 사용하는 것의 영향을 통해 고르기가 아끼기보다 까다로운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면 에코 백은 7,100회 이상 사용해야 매번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한 것보다 환경에 이로우며, 일회용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환경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고르기보다 아끼기가 중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⑤ 면 에코 백이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준다.

05 공포 메시지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고 얼어붙게 할 뿐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므로 공포 메시지가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비닐 포장이 된 음식을 사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아끼기에 해당한다. ② 소비 금액은 자원과 에너지에 지불하는 대가이므로 전체 소비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차를 덜 타는 방법을 통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④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도록 아껴 쓰고 꼭

필요할 때만 소비하는 것은 아끼기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6 글쓴이는 공포 메시지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고 얼어붙게 할 뿐 행동하지 못하게 하므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희망과 효능감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희망 메시지가 절박함을 덜하게 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관점과 상반된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공포가 사람들을 움츠러들고 얼어붙게 할 뿐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② 글쓴이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과 효능감을 갖고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③ 글쓴이는 환경에 대한 공포 메시지가 사람들을 행동하지 못하게 하므로 환경을 위한 행동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환경 파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은 공포 메시지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메시지가 환경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희망과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07 환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의 구체적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여 올바른 인식을 설명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을 위한 생활 습관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면 에코 백과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쓰는 것,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차를 덜 타고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에 해당한다. ⑤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신하기 위해 면 에코 백을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 행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8 ㉢의 '오가닉 면'은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작 과정에서 환경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선택만으로는 총 소비 금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자원과 에너지를 아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면 에코 백은 막연히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한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④ 에너지 사용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임을 보여 준다. 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9 자신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행동이 환경을 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④ 친환경 행동은 환경 효율을 높이는 것을 선택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글쓴이는 컵라면 용기를 임의로 종이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환경을 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1 발표 주제와 목적에 따르면 환경을 위한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설득해야 하므로 발표 내용은 환경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①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② 이 글에서 환경에 이로운 생활 습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표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③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으므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다. ⑤ 일회용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차를 덜 타는 것, 규정에 맞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등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습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12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후 친환경 행동을 통해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니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상황을 언급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환경 문제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환경을 위하는 생활 습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환경을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고르기에 비해 아끼기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④ 면 에코 백을 몇 번이나 사용해야 친환경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⑤ 면 에코 백의 사례를 통해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3 (가)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끼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끼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한 면 에코 백이 실제로는 환경 효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글쓴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포 메시지보다 희망과 효능감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④ 현대인들이 환경 문제에 절망감을 느끼지만 공포 메시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글쓴이의 입장이다. ⑤ 고르기, 즉 선택만으로는 환경에 이로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환경 효율을 고려할 때 면 에코 백은 7,10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이롭다는 자료를 통해 면 에코 백을 사용하는 것이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 효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면 에코 백의 내구성에 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③ 면 에코 백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제품을 선택할 경우 환경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④ 면 에코 백 사용은 환경에 좋을 것 같지만 환경 효율이 낮은 사례이다. ⑤ 통념과는 다르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환경 효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선택의 변화에 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15 글쓴이는 '아끼기'(㉡)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고르기'(㉠)는 '아끼기'(㉡)보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고르기는 선택의 문제에 해당한다. ② 글쓴이는 고르기만으로는 총 소비 금액을 줄일 수 없으므로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기 어렵다고 보았다. ③ 아끼기는 총 소비 금액을 줄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소비는 필연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므로 아끼기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다.

16 재우는 성호의 말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원희는 (가)의 글쓴이와 달리 공포 메시지나 경각심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희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읽은 책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성호는 공부와 성적의 사례를 들어 원희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⑤ 성호는 환경에 관한 공포 메시지가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 책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17 사회적 독서를 통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책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③ 사회적 독서 활동은 책의 내용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되므로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넓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④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사회적 독서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84~189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5 ⑤	06 ②	07 ⑤	08 ④
09 ②	10 ⑤	11 ③	12 ①	13 ②	14 ②	15 ⑤	16 ③

01 고르기와 아끼기를 비교하며 아끼기가 중요하다는 것, 면 에코 백과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례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고르는 것보다 전체 소비 금액을 줄여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면 에코 백의 사례처럼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 고르기가 까다롭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③ 일회용 비닐봉지는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나 실제로 그것을 찢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면 에코 백보다 환경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주제는 아니다. ⑤ 글쓴이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르기보다 아끼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02 (가)에서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한 선택이나 행동이 오히려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하며 아끼기를 강조하고 있으나 친환경적인 생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4문단에서 '에너지 요인이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직접 연소하는 난방이나 취사, 교통수단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에너지 요인이 온난화 문제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1~2문단에서 전체 소비 금액이 변해야 탄소와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고르기는 아끼기보다 까다롭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오가닉 면은 생산 효율을 높이지 않고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여 생산한 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 효율이 나쁘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03 일회용 비닐봉지와 면 에코 백의 사례를 통해 환경 효율에 대해 잘 모르고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환경 효율이 높은 제품이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면 에코 백은 7,100회, 오가닉 면을 사용한 에코 백의 경우에는 2만 회 이상을 사용해야 친환경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오가닉 면'은 환경에 가장 좋을 것 같으나 환경 효율이 나쁜 사례로 제시되었으므로 '친환경', '천연'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고 해서 모두 환경에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사용하지 않는 가전의 콘센트를 빼놓는 행동을 통해 전기를 아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글쓴이는 고르기보다 아끼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4 (가)에서는 아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를 오래 아껴 쓰는 것이 이를 모두 버리고 유리 용기로 교체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전체 소비 금액을 줄임으로써 탄소와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을 아낀 것에 해당한다. ③ 가방을 새로 사지 않음으로써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배달 음식 주문을 줄인 것은 소비를 줄인 것이므로 아끼기를 실천한 것에 해당한다. ⑤ 교통수단은 에너지를 직접 연소하는 것이므로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5 학생들은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깨달은 내용을 공유하며 책의 내용을 깊고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재우는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원희는 모든 물건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② 성호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이야기하며 쓰레기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재우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④ 재우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06 (가)는 환경을 위하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끼기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의 문제보다 소비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의 2문단에서 사람들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신하기 위해 면 에코 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다. ③ 고르기보다 아끼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가)의 중심 내용이므로 이것이 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가)의 2문단에서 가장 환경 효율이 높은 것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쓰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전체 소비 금액이 변하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든 그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쓰게 됨으로써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다.

07 발표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면서 청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청중의 반응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② 면 에코 백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하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면 에코 백을 몇 회나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청중의 질문에 답한 후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발표를 이어 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8 발표자는 고르기보다 아끼기가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 아껴 쓴 후에 새로운 것을 구입하는 것(ㄴ), 원래 가지고 있는 옷을 아껴 입는 것(ㄹ)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전체 소비 금액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와 오염 물질의 양은 거의 비슷하므로 무엇을 골라서 소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껴 쓰는 것이다. ㄷ: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지고 있는 가전 제품을 오래 아껴 쓰는 것이 친환경 행동이다.

09 발표자는 질문, 퀴즈, 시각 자료, 영상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으나 청중의 반응에 따라 발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언급하며 주제와 관련된 청중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③ 면 에코 백과 일회용 비닐봉지는 청중들에게 친숙한 물건에 해당한다. ④ 환경을 위하여 에너지를 아끼는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이 발표의 중심 내용이다. ⑤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답하는 등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고 있다.

10 발표자는 청중이 요청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추가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또한 책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발표자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청중 1은 면 에코 백 사용 횟수와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② 청중 2는 발표에서 소개한 방법 외에 아끼기를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③ 청중 3은 환경 동아리 보고서를 위해 참고할 만한 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청중 1의 요청에 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11 발표자는 면 에코 백 사례를 통해 얼핏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품이 사실은 환경에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고르기만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므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골라 사용하는 것이 환경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환경을 지키는 최선의 방식은 아끼기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면 에코 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④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 면 에코 백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자동차는 탄소와 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12 (가)에서는 환경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여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③ 친환경 행동을 습관화함으로써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④ 에너지 요인은 선택으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끼기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쓰레기 분리 배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13 고르기와 아끼기를 비교하여 아끼기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은 (나)이다.

오답 해설 ① (나)는 면 에코 백의 사례를 통해 환경을 위하는 행동이 사실상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아끼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가)는 자동차, 난방, 고기 굽기, 전기밥솥, 컵라면 분리 배출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시각 자료,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환경을 위해 아끼기, 즉 에너지 절약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을 통해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 에너지 사용은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초래된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A]의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컵라면 용기를 종이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반환경 행동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가 더 낭비될 수 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 규정을 준수하여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 (가)에 제시되어 있으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에너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친환경 제품을 골라 사용하기보다는 아끼기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에너지 사용은 필연적으로 탄소와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발표를 할 때 예상 청중의 관심사와 배경지식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하지만 흥미 위주의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표 주제에 적합한 내용 조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발표를 할 때에는 예상 청중을 분석하여 발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③ 발표자는 청중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표를 진행하므로 청중의 질문에 알기 쉽게 답변해야 한다. ④ 발표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발표 목적에 맞는 다양한 보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6 〈보기〉는 다회용품을 제작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나)의 면 에코 백의 사례와 같이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품이 사실은 환경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내용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면 에코 백을 오래,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친환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텀블러의 경우에도 그것을 오래 아껴 사용한다면 면 에코 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텀블러의 제작 과정을 고려할 때 텀블러를 여러 개 구입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를 오랫동안 아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이미 가진 것을 아껴 쓰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다회용품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다회용품을 오래도록 쓰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다회용품은 면 에코 백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반응이므로 적절하다. ⑤ 다회용품이 환경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비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90쪽

01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을 위해 아끼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이다. 아끼기가 고르기보다 중요한 이유, 아끼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발표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02**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제시한다. /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03** 면 에코 백이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된다는 사례를 통해 환경에 이로운 제품에 관해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01 발표에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한 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끼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발표의 목적으로는 설득이나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02 보조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자료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고쳐 쓸 수 있다. 또한 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03 면 에코 백이 환경에 이로울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것을 통해 친환경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7,100회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통해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골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9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4 지구 온난화, 즉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아끼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07 발표에 활용하는 자료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발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면서 청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지 청중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 1 회

본문 194~205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③	05 ②	06 ④	07 ⑤	08 ⑤
09 ④	10 ③	11 ①	12 ③	13 ①	14 ③	15 ④	16 ④
17 ③	18 ⑤	19 ②	20 ①	21 ④	22 ③	23 ③	24 ①
25 ①	26 ②	27 ④	28 ④	29 ②	30 ②		

01 (가)는 임을 떠나보내는 상황이고 (나)와 (다)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다) 모두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좌절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다) 모두 화자가 궁핍한 처지에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다) 모두 임과 이별하여 서러운 심정은 드러나지만 예기치 않은 이별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가)~(다)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02 (다)는 임과 이별한 '내 안'을 '가토릐 안', '도사공의 안'과 비교하여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나)는 화자와 임을 대비하고 있으나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후렴구인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를 매 연 마지막에 배치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다)는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열거의 방식으로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가)는 '가시리'를 반복하고 (나)는 '청산', '녹수'를 반복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는 '가시리 가시리잇고' 등에서, (나)는 '청산이야 변홀손가' 등에서, (다)는 '내 안히야 엇다가 ᄀᆞ을 ᄒᆞ리오'에서 물음의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가)에서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ᄂᆞᆫ'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이 임을 붙잡으면 임이 서운해하여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마음을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로 포현하여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임을 붙잡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볼 때 화자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화자는 자신을 변함없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인 '청산'에, 임을 가변성을 지닌 자연물인 '녹수'에 비유하여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에서 화자는 도사공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과장법, 열거법, 점층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마음도 임과 헤어진 자신의 마음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여 임과 이별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④ (가)는 임이 떠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셜온 님 보내옵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임과 헤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는 '엊그제' 임을 여의었다고 하여 임과의 이별이 이미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가)는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에서 자신과 이별하는 임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청산이야 변홀손가'에서 임과 이별하더라도 화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는 '엇다가 ᄀᆞ을 ᄒᆞ리오'에서 임과의 이별로 인해 참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4 (가)에서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현실에 대해 냉소적이지 않다. ② 화자는 대상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 ④ 화자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대상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 않다.

▶ (나) 정석가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민요적
주제	태평성대의 기원 /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해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사랑하는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화자의 애절한 정서를 강조함.

05 (가)의 2연에서 화자는 떠나가는 임을 원망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홀로 남겨질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현재까지 이어 온 관계가 미래에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현재의 이별 상황을 인지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가)의 1연에서 화자는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ᄂᆞᆫ /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ᄂᆞᆫ'이라고 반복하는데, 이는 임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떠나간 임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는 소망을 제시한다. (가)의 4연에서 화자는 현재의 슬픈 이별 상황 속에서도 임이 떠나자마자 바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는 현재의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임을 다시 만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는 현재의 사랑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를 설명하고 있다. (나)의 2~4연에서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정하며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임과 이별하겠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결코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는 닥쳐올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맺고 있는 소중한 관계를 끝까지 이어 가려는 강한 의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의 6연에서 화자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임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06 (가)는 '가시리 가시리잇고' 등에서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끈잇단 그츠리잇가', '신잇단 그츠리잇가' 등에서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감정 이입된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불가능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가)는 '증즐가'와 같은 악기 소리를 흉내 낸 여음구가 쓰였으며, (나)는 '삭삭기 세모래'에 음성 상징어가 쓰였다. '삭삭기'는 '세모래'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가)의 여음구는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⑤ (나)는 '즈믄 해' 등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사용되었으나 계절의 순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가)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07 (가)에서 화자가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에서도 이별의 원인을 임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에서 화자는 '셜온 님 보내옵노니'라고 하며 현재 임을 떠나보내고 있다. 〈보기〉에서도 '제 구태여 보내고'에서 화자가 과거에 임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라며 자신이 임을 붙잡으면 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게 된다. 반면 〈보기〉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 화자는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라고 하여 임이 곧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고, 〈보기〉에서 화자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라고 하여 임을 붙잡지 않고 떠나보낸 자신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Plus 〈보기〉 어져 내 일이야_황진이

갈래	평시조, 단시조
성격	애상적, 감상적
주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해제	행간 걸침(도치법)을 통해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을 드러냄.

▸ (가) 님이 오마 ᄒᆞ거늘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연정적, 해학적, 과장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해제	임을 만나러 가는 화자의 행동을 사실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 내어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함.

08 (가)는 '즌 ᄃᆡ ᄆᆞ른 ᄃᆡ 골희지 말고 워렁충창 건너가셔'에서 화자의 행동을 과장하여 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갈 길은 천리만리 나믄듸' 등에서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과장하여 이러한 도사공보다도 화자의 심정이 더 참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으며 (나)는 '엇다가 ᄀᆞ을 ᄒᆞ리오'에 설의적 표현이 쓰였다. ② (가)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 나가는 화자의 행위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나)는 화자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 나가는 상황에서의 화자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지만, (나)는 희화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독백적 어조가 드러난다.

09 (나)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대상을 상실한) 절박한 심정이 작품을 창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나)는 시선의 이동도, 정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특정 공간과 관련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10 (나)에서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뇽총도 근코'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처지를 실감 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소재를 나열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도사공이 처한 상황이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사용해서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② (가)에서 화자는 임을 간절히 그리워한 나머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데, 화자의 이러한 모습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④ (나)는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까투리나 도사공보다, 임과 이별한 화자의 마음이 더 참담하다는 것을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 드러낸다. ⑤ (가)와 (나)는 둘 다 사설시조로 중장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각각 임을 빨리 만나고 싶어 허둥지둥하는 행동과 도사공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1 (가)는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를 ᄆᆞᆺ내 계워 소ᄅᆡ마다 교태로다'에서 자연물인 새에 감정을 투영하여 봄의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가)에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는 자연 공간인 산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으나 삶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다. ④ (가)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흐름을 인식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나)는 계절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는 '홍진'과 '산림'을 대비하여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는 공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12 'ᄆᆡ'는 화자가 봄의 경치를 즐기며 바라보는 공간으로, 봄기운이 충만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산'은 우거진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자가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ᄆᆡ'는 화자가 실제로 바라보는 공간이다. ② 'ᄆᆡ'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며 바라보는 공간이지, 노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④ 'ᄆᆡ'는 화자로 하여금 무릉도원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산'은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공간이 아니다. ⑤ 'ᄆᆡ'는 화자가 봄의 경치에 경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산'은 화자가 성찰하는 공간이 아니다.

13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하자는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분주한 농촌의 일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수 놓고 먹겠다는 것은 봄의 자연 경치를 보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③ 청향이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과 하나가 된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부귀와 공명은 세속적 가치로, 이를 꺼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려는 무욕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단표누항은 소박하고 청빈한 삶으로, 이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청빈한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14 청풍명월 외에는 다른 벗이 없다는 것은, 자연만을 벗으로 삼으며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심미적 만족을 얻는 것을 자연 친화적 태도의 한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에 감탄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을 감상하며 심미적 만족을 얻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보기〉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것을 자연 친화적 태도로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느끼는데, 이는 화자가 자연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가 '목숨의 골짜기 냄새'를 맡고 편안함을 느끼며 눕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자연의 생명력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고 하였다. (나)에서 화자의 정신이 풀빛과 나뭇잎의 반짝임으로 비유되는 것은, 자연의 생명력이 화자의 활력을 되찾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가)에서는 '물아일체어니 흥이ᄋᆡ 다ᄅᆞᆯ소냐'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에서는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수간모옥에서 나와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며 봄의 경치를 다양하게 그려 내고 있다. (나)는 '필마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에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16 [A]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의 정경 속에서 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반해 [B]에는 눈이 녹아 푸른색을 되찾아가는 봄의 풍경과 달리 늙음을 탄식하는 화자의 서글픈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B]에서 봄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지 않는다. ② [A]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다고 했으나 겨울과 봄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B]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A]에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⑤ [B]는 봄의 다채로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17 갈대숲에서 고기를 엿보는 것은 세속적 욕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가)에서 '산림에 묻혀 지락을 느끼는 것', '물아일체의 흥을 느끼는 것', (나)에서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즐기는 것', '벼슬에서 물러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등은 모두 세속적 소유를 거부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 (나) 어옹_설장수

핵심 정리

갈래	한시
성격	풍류적, 예찬적
주제	강호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예찬
해제	세속적인 명예와 욕망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노래함.

18 (가)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반면 (나)에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노랫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로 뱃사람인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했으나, 사실 화자가 부귀, 공명을 멀리한다는 것이므로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세속적 삶의 모습은 붉은색의 이미지로 대비되어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마지막을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설의적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봉두에 올라서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나) 또한 안개 낀 호숫가와 배를 비추고 있는 달빛의 풍경과 더불어 세속을 멀리하겠다는 화자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

19 ㉠을 화자가 '부치들고' 가는 모습에서 소유욕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자연을 즐기고 교감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붉게 피어나는 봄꽃으로, 화려한 봄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은 뱃사람의 흥취를 나타내는 청각적인 요소로, 자연 속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③ ㉠은 화자가 '부치들고' 산에 오르는 행위와 관련되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은 뱃사람의 흥취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보여 준다. ④ ㉠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며 자연을 즐기는 주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자연물이고, ㉡은 뱃사람이 만들어 내는 소리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화자의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⑤ ㉠을 직접 들고 가는 행위는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교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은 화자가 이미 자연 속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감과 더불어 흥겨움을 더하여 심리적 만족을 더욱 크게 만들어 준다.

20 흥보가 아내에게 볼기 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장황한 서술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독백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③ 흥보 아내가 흥보에게 매품을 팔 경우를 가정하여 매품 파는 것을 만류하지만 이를 통해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중심인물에 대해 호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21 흥보가 병영에 도착했을 때 도군뢰의 복장과 태도에 대한 묘사는 도군뢰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흥보는 속으로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흥보의 큰아들은 동생들을 꾸짖고 있지만, 아버지에게 대신 사과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동생들보다 더한 요구를 하고 있다. ② 흥보와 병영에서 만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인사하오.", "에 마오.", "거기 뉘라 하오?", "나 말씀이오?" 등 격식 있는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③ 흥보의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온 것에 대해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그 돈이 곤장을 맞는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영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한다. ⑤ 흥보가 조자룡의 청총마나 제갈공명의 축지법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고되고 힘든 여정을 과장하여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22 흥보가 매품을 파는 것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볼기의 구실이 있다고 하자 흥보 아내가 볼기의 구실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이는 흥보의 결연한 의지에 놀라는 반응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흥보는 아내에게 돈을 자랑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오랜만에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 온 것에 대한 흥보의 당당한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돈의 출처를 묻는 질문 속에는 흥보가 돈을 벌어 온 과정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담겨 있다. ④ 흥보는 자식들이 자신의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비싼 물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흥보의 한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흥보는 자신을 '조선 제일 가난 흥보'라고 소개하며 가난한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23 흥보는 자식들이 가난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사치품들을 사 달라고 철없는 요구를 하자 "고의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라며 핀잔을 준다. 자식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흥보는 가난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기〉에서 조선 후기 많은 서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했는데 흥보의 상황은 당시 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고된 삶을 보여 준다. ② 흥보가 병영에 가기 전 아내에게 볼기 구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자아낸다. ④ 흥보가 병영으로 가는 길에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 성중 어디메요. ~ 몇 밤 자고 가잔 말가."라며 탄식하는 부분은 그의 고된 여정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이러한 고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가난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드러난다. ⑤ 흥보가 병영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가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은 당시 많은 서민들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24 '청산은 높이 솟아 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 있는 때 접동 두견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 우니 뉘 아니 슬퍼하리.' 등에서 서술자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③ 서술자는 흥보의 입장에서 그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 ⑤ 인물의 분노나 적개심은 나타나 있지 않다.

25 흥보는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 불러 보자."라며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아내와 서로 음식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흥보는 다른 사람들의 가난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매품 파는 것을 포기한다. 이는 자신의 가난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김딱직은 다른 사람들의 가난 이야기를 듣고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소. 내 가난 들어 보오."라며 자신의 가난 자랑을 한다. ④ 흥보 아내가 남편이 매품을 팔고 온 줄 알고 슬퍼하자 흥보는 "애기 어멈 울지 마소. ~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라며 아내를 위로하고 병영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⑤ 흥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 갑세."라고 제안하였다.

26 흥보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에게까지 매품을 팔 순서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당시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준다. 그러나 흥보에게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는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가난 자랑'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병영에 모인 사람들은 매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며, 자신의 가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는 '가난 자랑'이 희극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극적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가난을 더욱 처절하게 보이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웃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더욱 부각하여 이러한 현실을 만든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이 글은 등장인물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흥보 아내는 남편이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온 것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설움을 강하게 토로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가난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⑤ 〈보기〉에서 가난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통해 민중들의 건강성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흥보가 아내를 위로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27 ㉠은 가난을 자랑하는 상대에게 장자라고 하면서 상대의 가난은 가난도 아니라고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가난을 강조하고 있다(ㄴ). 또한 이는 "내 가난 들어 보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난을 자랑하기 전에 상대의 가난에 대해 평가하는 발언이다(ㄷ).

오답 해설 ㄱ: ㉠에서는 상대의 가난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하여 상대를 비난하고 있지 않다. ㄹ: ㉠에는 상대의 가난은 가난도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28 방삼복은 자신이 뱉은 양칫물이 S 소위의 얼굴에 맞자 "에구머니!" 하고 놀라 질겁을 하며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력으로 잘못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비는 행위이다.

오답 해설 ① 방삼복은 길거리에서 신기료장수를 하며 살다가 광복 직후의 혼란기에 기회를 엿보다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이 되어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② 방삼복은 백 주사의 청탁을 받고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③ 백 주사는 방삼복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고마우이!", "백골난망이겠네.",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와 같이 말하며 굽신거리고 있다. ⑤ 백 주사는 성공한 방삼복을 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라고 생각하며 놀라워하면서도 자신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방삼복의 태도에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다며 불편함도 느끼고 있다.

29 [A]에서 서술자는 방삼복과 처지가 역전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백 주사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③ [A]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④ [A]는 인물의 심리를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서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30 〈보기〉에서는 방삼복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라고 했다. 방삼복이 큰 세도를 누리게 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해방 직후 미군 통역관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얻게 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채만식은 해방 직후 사회상을 날카로운 풍자로 그려 냈으며, 그의 작품에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다. 몰락한 친일파 앞에서 권력을 과시하는 방삼복의 모습은 혼란기에 기회를 잡아 득세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③ 〈보기〉에서 방삼복은 해방 직후 미군 통역관으로 권력을 얻은 인물이라고 했다. 그의 변화된 행세는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는 기회주의자의 특징을 드러낸다. ④ 〈보기〉에서 이 작품은 당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친일파였던 백 주사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권력을 이용하려 하는 모습은 해방 이후에도 과거의 잔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채만식은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으로 그려 냈다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미군 장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은 방삼복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그의 몰락 가능성을 암시하는 해학적인 묘사로 볼 수 있다.

제2회

본문 206~216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②	07 ⑤	08 ④
09 ⑤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①	16 ④
17 ⑤	18 ③	19 ⑤	20 ③	21 ①	22 ⑤	23 ①	24 ②

01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는 동아리의 첫 외부 공연인 만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며 이후 공연 순서 변경을 제안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곡을 바꾸는 것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이 곡에 어울리는 소품까지 이미 구매하여 다른 곡으로 바꾸기가 곤란합니다."와 '지역 사람들에게 달빛고의 댄스 동아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니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선곡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태양고 대표는 "곡을 양보해 주신다면 이후에 필요하신 소품은 저희가 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소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④ 태양고 대표는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데 이 곡만큼 적합한 다른 곡을 찾기가 어려워 곡을 바꾸기가 곤란합니다."와 "중간중간 음악적 변화가 많아 많은 인원이 다양한 안무를 보여 주기에 적합합니다."라고 말하며 현재 선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⑤ 달빛고 대표는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마지막 무대에 오르면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이미 공연에 필요한 소품까지 구매한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네요."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 사항을 동시에 드러냈다.

02 협상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담화 유형이다.

오답 해설 ① 토의의 특징이다. ② 대화의 특징이다. ④ 연설의 특징이다. ⑤ 토론의 특징이다.

03 공연 안내에 따르면 태양고와 달빛고의 선곡이 동일하므로 선곡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연습실을 두 동아리가 나누어 사용해야 하므로 각 동아리가 충분한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시간과 순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오답 해설 ① 공연 진행 방식은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두 동아리가 협상을 통해 조정할 내용이 아니다. ② 공연 순서를 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참가 인원 차이는 상황적인 배경 정보일 뿐, 협상이 필요한 이유는 아니다. ④ 두 동아리는 선곡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므로 같은 곡으로 두 동아리가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04 ⓑ는 긍정적으로 제안을 검토하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달빛고 대표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고려 사항과 연계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는 태양고가 곡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마지막 공연 순서라는 매력적인 제안을 통해 달빛고의 동의를 얻으려는 의도에 따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② ⓐ에서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공연 순서의 이점을 부각시켜 달빛고가 곡을 양보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④ ⓑ에서 달빛고 대표는 마지막 공연 순서의 매력을 인정하지만, 주최 측과의 협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함으로써 섣부른 약속을 피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태양고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달빛고는 그 제안에 대해 질문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은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5 ㄱ: 태양고 대표와 달빛고 대표는 연습실 사용 요일, 사용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연습실 사용 시간 조정, 공연 순서 변경, 소품 대여 등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ㄴ: 연습실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격일제와 연속 사용을 주장하다가 주말 오전과 오후 분할, 평일 3일과 2일 분할이라는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ㄹ: 달빛고 대표는 곡을 교체하는 대신 연습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태양고와 절충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ㄷ: 참여자 간에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하는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ㅁ: 쟁점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06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요구 사항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 양보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의 주요 쟁점은 달빛고가 곡을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연습실 사용 시간 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③ 양측은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각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협상 전략을 사용했다. ④ 연습실 사용 시간 외에도 달빛고는 곡 교체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태양고가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⑤ 태양고 대표는 주말 연습 시간 배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오전과 오후 분할 사용)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07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곡을 바꾸게 된 상황과 연습실까지 거리가 먼 처지를 바탕으로 연습실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이는 태양고 대표가 파악한 달빛고의 근원적인 동기로, 태양고 대표는 이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태양고와 달빛고의 공통된 처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보기〉에는 태양고 대표가 자신들이 얻을 이익의 크기를 가늠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의 근원적 동기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지, 달빛고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④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 대표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08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 대표의 주말 시간 분할 제안에 "주말에 오후 열두 시부터 연습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 연습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네요. 좋습니다."라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태양고 대표의 "곡을 바꾸면 연습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는 발언은 〈보기〉에서 언급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달빛고 대표의 "연습실이 태양고에서는 가깝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버스로 이동하는 데만 30분이 걸립니다."라는 발언은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태양고 대표의 "주말 오전에는 저희가 연습실을 이용하고, 주말 오후에는 달빛고가 연습실을 이용하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은 상대방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모두 고려한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⑤ 평일 연습 시간 배분에 대한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는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09 ㉤은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지, 합의 결과의 수정을 위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발화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선곡 교체라는 태양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발화이다. ② ㉡은 달빛고의 첫 번째 제안(주말 연습실 독점)에 대해 태양고 대표가 난색을 표하며 자신들의 연습 시간 부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달빛고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발화이다. ③ ㉢은 태양고 대표가 평일 연습실 사용을 제안했을 때, 달빛고 대표가 객관적인 근거(이동 시간)를 제시하며 태양고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④ ㉣은 달빛고 대표가 평일 연습실 사용 요일을 확정하여 밝힌 것으로, 이는 태양고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태양고의 요구(평일 3일 사용)를 수용하는 발화이다.

10 (가)에서 태양고 대표와 달빛고 대표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곡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연습실 사용에 대해서는 태양고 대표는 격일제 사용을, 달빛고 대표는 연속 사용을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제시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소품을 이미 구매했다는 이유로 곡 변경이 곤란하다고 했다. ③ 태양고 대표가 선곡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자고 제안했다. ④ 태양고 대표는 유행한 곡으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싶으면 다른 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⑤ 연습실 사용에 대해 태양고는 격일제를, 달빛고는 연속 사용을 주장하는데, 이는 각각 공평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낸다. 격일제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태양고 대표가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11 ㉡은 태양고 대표가 달빛고의 근원적 동기를 확인하는 발언이지, 달빛고 대표에게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의도에 따른 발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 역시 주말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이해가 됩니다만'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이후에 이어질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설득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태양고 대표는 달빛고가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싶다는 근원적 동기를 파악한 발언이며, 이를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⑤ ㉠에서는 달빛고 대표가 태양고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표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에서는 태양고 대표가 달빛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협상 태도로 볼 수 있다.

12 달빛고 대표는 태양고가 가지고 있는 소품 목록을 먼저 알려 주면 필요한 물품을 말하겠다고 했으며, 태양고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 달빛고가 목록에 없는 물품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달빛고는 곡을 바꾸는 대신 공연 순서 조정과 연습실 사용, 소품 대여 등에서 태양고의 양보를 얻어 냈다. ④, ⑤ 연습실 사용과 관련하여 태양고는 주말 오전 아홉 시~오후 열두 시, 평일 3일(수~금) 이용하고, 달빛고는 주말 오후 열두 시 이후, 평일 2일(월, 화)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13 성호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을 알아보면 좋겠다고 하자 현지도 동의했고 이어서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하자고 제안하여 원희의 동의를 얻었다. 모둠 구성원들이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조사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원희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성호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재우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원희의 두 번째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가)에서 성호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을 알아보면 좋겠'다고 했으며, (나)에서 이를 반영하여 조사 계획 중 조사 대상으로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원희가 가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고 했으나, 이는 (나)에서 모둠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③ (가)에서 원희는 "나는 가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데, 마시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했어. 친구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라고 하였다. 이는 (나)에서 참고 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에서 현지는 "꽤 많은 아이들이 아침부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데,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건강

에 안 좋은 영향은 없는지 궁금했거든."이라고 하였다. 이는 (나)에서 에너지 드링크의 기능과 효과를 조사 내용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이 없다. 에너지 드링크의 기능과 효과는 긍정적 영향에 해당한다. ⑤ (가)에서 재우는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알려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주제면 좋겠어."라고 하였다. 이와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 현황을 설문 조사 방법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관련이 없다.

15 조사 이유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했으므로, 공동 보고서의 주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조사 계획에서 조사 기간은 '20○○년 ○○월 ○○일~○○월 ○○일'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조사 계획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는 설문 조사 방법으로 수집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조사 계획에서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자료 조사 방법으로 수집하기로 했으며, 자료 조사는 현지와 성호가 담당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참고 문헌에서 자료 조사 시 참고한 책, 논문, 기사 등의 출처를 밝힌다고 했으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

16 〈자료 2〉는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 사례를, 〈자료 4〉는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룬 자료이다. 〈자료 2〉와 〈자료 4〉가 내용상 서로 충돌하는 자료이지만 두 자료는 모두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둘 다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고서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② 〈자료 2〉는 논문으로, 전문성이 있는 자료이므로 보고서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5〉는 설문 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로,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과 실태를 확인하는 작문 목적에 부합하므로 보고서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자료 3〉과 〈자료 4〉는 한국 소비자원이라는 믿을 만한 곳에서 발간한 자료이므로 보고서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17 설문 조사의 결과를 제시할 때 구체적인 수치와 더불어 결과가 의미하는 바도 함께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사 이유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현황',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조사를 통해 알고 싶은 바를 제시하였다. ③ 설문 조사를 담당한 구성원과 자료 조사를 담당한 구성원을 밝혀 제시하였다.

18 이 보고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실태라고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청소년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실태로 일반화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설문 조사 결과의 부작용 인지 여부 항목 분석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 확대와 이를 위해 건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⑤ 조사 계획 항목에서 설문 조사와 자료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사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자들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조사 이유 항목에서 에너지 드링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19 '3-가'의 '설문 조사 결과'는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다. 이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원그래프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설문 조사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② 설문 조사의 질문 내용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④ 응답 항목의 변화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20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까닭으로 졸음 억제와 집중력 향상에 많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졸음을 억제하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음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1 이 보고서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자료, 중소기업 융합 학회의 논문지,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 등을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보고서 작성자의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전문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22 그림을 활용하여 에너지 드링크 섭취의 부작용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③ 이 글에서 표는 에너지 드링크의 주요 성분별 기능과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에너지 드링크에서 주요 성분이 차지하는 비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에서 그림은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23 국내에 유통 중인 에너지 드링크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약 80밀리그램이라고 했으며,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이 체중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내에 유통 중인 에너지 드링크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는 대신 비교적 적은 양의 카페인과 당분을 함유한 녹차나 홍차를 마시거나, 산책 등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③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이 체중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2회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④ 성분과 함량 정보를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을, 에너지 드링크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⑤ 중소기업 융합 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지에서 에너지 드링크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58.9퍼센트가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했고, 뒤를 이어 불면증, 두통, 어지러움 순으로 부작용 경험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24 이 보고서는 '에너지 드링크는 피로 회복이나 에너지 보충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더해서 에너지 드링크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개선 방안을 두 가지로 제안하여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점검 결과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카페인의 섭취 권고량, 설문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다. 점검 결과도 이 기준을 준수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 100명 가운데 64명이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중 거의 모두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섭취한다고 해석한 것은 과장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점검 결과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 보고서는 표, 그림 등 다양한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자료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도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 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자료의 출처를 밝혔다. 점검 결과에서도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제3회

본문 217~224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③	05 ④	06 ①	07 ①	08 ②
09 ③	10 ②	11 ⑤	12 ②	13 ①	14 ④	15 ③	16 ①
17 ⑤	18 ②	19 ①	20 ③	21 ③	22 ④	23 ④	24 ⑤
25 ①	26 ①	27 ③	28 ②	29 ⑤	30 ③		

01 '中듕國ᄀᆞ귁', '便뼌安한' 등에서 알 수 있듯 중세 국어에는 한자음을 우리나라의 현실음이 아니라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였다.

오답 해설 ① 'ㅸ, ㆁ, ㅱ, ㆍ' 등 현대 국어에 없는 음운이 사용되고 있다. ②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시하여 단어의 뜻을 구별하고 있다. ③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를 하고 있다. ④ 주격 조사 '이'가 음운 환경에 따라 '이'나 'ㅣ'로 다르게 실현되고 있다.

02 'ᄉᆞᄆᆞᆺ디'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만약 구개음화가 적용되었다면 'ᄉᆞᄆᆞᆺ지'로 표기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노미'는 명사 '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한 결과이다. ② '젼차로'는 현대 국어에서는 소멸된 어휘이다. ④ 'ᄲᅮ메'는 어간 'ᄲᅳ-'에 명사형 어미 '-움'이 결합하고, 여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이다. ⑤ '니르고져'에서 첫소리 'ㅣ' 모음 앞에 'ㄴ'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03 'ᄠᅳ들'은 체언 'ᄠᅳᆮ'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이어 적기가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랏 말ᄊᆞ미'의 현대어 풀이는 '우리나라의 말이'이다. 이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일 자리에 'ㅅ'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中듕國귁에'의 현대어 풀이는 '중국과'이다. 이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 '과'가 쓰일 자리에 '에'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홇 배'의 현대어 풀이는 '하는 바가'이다. 이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ㅣ'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스믈여듧 字ᄍᆞᆼ롤'의 현대어 풀이는 '스물여덟 글자를'이다. 이를 보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 '를'이 쓰일 자리에 '롤'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음 조화를 따른 표기이다.

04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현상이다. 현대 국어인 '뜻을'에서도 모음 조화 현상은 지켜지고 있다. 'ᄠᅳ들'을 '뜻을'과 비교하면 중세 국어에는 어두 자음군('ㅺ')이 사용되었다는 음운상 특징과,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를 하는 표기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미'는 '말ᄉᆞᆷ'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이어 적기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말씀이'로 끊어 적기를 한다. ② 'ᄉᆞᄆᆞᆺ디'는 'ᄉᆞᄆᆞᆺ-'에 '-디'가 결합된 것으로, 8종성법에 따라 받침이 'ㅊ'에서 'ㅅ'으로 바뀐 것이다. ④ 'ㅸ'은 현대 국어에 없는 음운이다. ⑤ 중세 국어에는 'ㅺ'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으나, 현대 국어에 와서 'ㄲ'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었다.

05 '어린'은 15세기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으나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이므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경우이다(㉡). '어엿비'는 15세기에는 '불쌍하게'의 의미였으나 오늘날에는 '예쁘게'라는 의미이므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경우이다(㉣).

오답 해설 ㉠('말ᄉᆞᆷ')은 '일반적인 말'을 뜻했으나 현재는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놈')은 '보통 사람'의 의미였으나 오늘날에는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쓰이므로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경우이다.

06 ⓐ의 '나리'는 '날 + 이'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경우이다. ⓓ의 '아ᄃᆞ리'도 '아ᄃᆞᆯ + 이'로 자음 다음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경우이다.

오답 해설 ⓑ의 '太子(태자)'에는 주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이다. ⓒ의 'ᄃᆞ리'는 'ᄃᆞ리 + ∅'로 모음 '이' 다음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의 '孔子ㅣ(공자가)'는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인, 'ㅏ' 다음에 주격 조사 'ㅣ'가 나타난 경우이다.

07 ㉠은 '소ᄂᆞᆯ'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고, 앞말에 받침이 있어 목적격 조사 'ᄋᆞᆯ'이 실현되고 이어 적기한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은 'ᄠᅳ들'로,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고, 앞말에 받침이 있어 목적격 조사 '을'이 실현되고 이어 적기한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은 '부텨를'로,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고, 앞말에 받침이 없어 목적격 조사 '를'이 실현된 경우이다.

08 ㉡ 'ᄇᆞᄆᆡ'는 체언 '봄'과 조사 'ᄋᆡ'를 본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앗'의 현대어 풀이가 '안의'임을 볼 때, 'ㅅ'이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석ᄃᆞᆯ'의 현대어 풀이가 '석 달을'임을 볼 때, 'ᄃᆞᆯ'은 현대 국어 '달을'과 달리 모음 조화를 지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ᄃᆞᆯ'에 양성 모음('ㆍ')이 사용되어 목적적 조사로 양성 모음인 'ᄋᆞᆯ'을 쓴 것이다. 이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ㅏ') 뒤의 조사에서 음성 모음('ㅡ')이 사용되고 있다. ④ '니셰시니'에서 'ㅿ'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다. ⑤ 'ᄡᅳᄂᆞ니라'에는 'ㅄ'이라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난다.

09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퍼서', '펐다'는 '푸-'라는 원래의 형태가 아니라 소리대로 표기를 한 것이므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먹어'와 '먹은'은 [머거]나 [머근]처럼 소리대로가 아니라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킨 ㉡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② '굳이'와 '같이'는 [구지], [가치]처럼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에 해당된다. ④ '미덥다'와 '우습다'는 어간 '믿-'과 '웃-'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의 사례이다. 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한자 '老'를 '노'와 '로'로 다르게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형태소의 본 모양대로 고정시켜 적는다면 '로'로 통일되어야 한다.

10 ㉠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은 것이고, ㉡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는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과 관련된다. '해돋이[해도지](해 + 돋- + -이)'와 '옷걸이[옫꺼리](옷 + 걸- + -이)'는 둘 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고 있으므로 ㉠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설거지[설거지]'와 '거름[거름]'은 둘 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꽃나무[꼰나무]', '얼음[어름]', '일찍이[일찌기]'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표기한 것이고, '구름'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11 〈보기 1〉에서 '이[齒]'가 합성어에서 '니'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어근의 의미 유지와 관계없이 '니'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합성어인 '사랑니'의 경우 어근인 '이[齒]'는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니]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랑니'로 적은 것이다.

12 '이따금'은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제5항-1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③ '산뜻'은 'ㄴ' 받침 뒤에서, ④ '담뿍'은 'ㅁ' 받침 뒤에서, ⑤ '엉뚱'은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다.

13 제5항의 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싹뚝'은 '싹둑'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ㅙㅆ'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괬다'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③ 제5항의 다만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깍두기'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④ 제6항에 따르면 '굳이'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⑤ 제11항 [붙임 1]에 따르면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했으므로 '출생률'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14 제5항-2에 따르면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를 적는다고 했으므로 '듬뿍'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제35항 [붙임 2]에 따르면 '돼서'는 '되어서'가 줄어든 말이므로,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고칠 필요가 없다. ② '눈곱'은 '눈'과 '곱'의 합성어이므로 제5항의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눈곱'으로 써야 하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③ 제6항에 따르면 '닫혀서'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고칠 필요가 없다. ⑤ 제11항의 [붙임 1]에 따르면 '성공률'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고칠 필요가 없다.

15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하루 만에'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우리밖에'가 맞는 표기이다. ②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느낀 바를'이 맞는 표기이다. ④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연습한 대로'는 맞는 표기이다. ⑤ '송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열 송이로'는 맞는 표기이다.

16 '안개꽃 밖에'의 '밖에'는 조사로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제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너만큼'에서 '만큼'은 체언 뒤에서 조사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③ '원'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짜리'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④ 문맥상 '줄'이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 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따라서 '7 연구실'과 '7연구실' 모두 적절하다. 이는 제46항이 아니라 제43항과 다만에 따른 것이다.

17 ㉡과 ㉢에 사용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뿐이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큰'과 '형'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②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③ ㉡의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의 '뿐'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이해해'는 본용언이고 '줄'은 보조 용언으로,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18 ㉡의 '쏜살같이'에서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의미를 갖는 조사이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런데 ②에서 격 조사 '과' 뒤에 쓰이는 '같이'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의 의미를 가진 부사이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쓰지 않고 띄어 써야 한다. '부모님과같이'가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로 써야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사장'은 관직명이나 호칭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과 띄어 써야 한다. ③ ㉢에서 '-듯이'는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인 어미이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과 붙여 써야 한다. 다만 '뛸 듯이'처럼 앞말이 관형사형 어미로 끝날 때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이때 '듯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다. ④ ㉣에서처럼 '만큼'이 체언과 결합할 때에는 조사가 된다. 따라서 '너만큼'도 붙여 써야 한다. ⑤ 앞말이 관형사형 어미로 끝나면 이어지는 단어는 띄어 쓴다. 서로 다른 두 단어이기 때문이다.

19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①에서 '세'는 관형사이고, '살'은 단위 명사이므로 '세살'을 '세 살'로 띄어 써야 한다.

20 (다)에서 '뿐' 앞에 있는 '그것'은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한다. 〈보기〉의 답변에 의하면 '뿐' 앞에 체언이 올 경우 '뿐'은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쓴다고 했으므로 '그것'과 '뿐'을 띄어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며,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나'는 대명사로서 체언이며 '대로'는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못해'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⑤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21 '어이없다는듯'에서 '듯'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한 단어이며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은 '어이없다는∨듯'으로 수정해야 한다.

22 제38항에 따라 '보이어'는 '보-' 뒤에 '-이어'가 어울려 '뵈어' 또는 '보여'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봬어'로는 줄어들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제35항에 따라 '꼬았다'는 '꼬-'에 '-았-'이 어울려 '꽜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② 제35항 [붙임 2]에 따라 '쇠었다'는 '쇠-'에 '-었-'이 어울려 '쇘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③ 제35항 [붙임 2]에 따라 '괴어'는 '괴-'에 '-어'가 어울려 '괘'로 줄어들 수 있다. ⑤ 제38항에 따라 '트이어'는 '트-' 뒤에 '-이어' 가 어울려 '틔어' 또는 '트여'로 줄어들 수 있다.

23 '지붕(ⓐ)'은 명사 '집'과 접미사 '-웅'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 규정에 따라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고, '마감'은 '막다(ⓑ)'의 어간인 '막-'과 접미사 '-암'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 규정에 따라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다.

24 ㉣은 '넘다'와 '가다'의 합성어로, '넘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 어법에 맞게 '넘어가다'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사라지다'는 '살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사라지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몹시'는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② '꽃이'는 체언 '꽃'과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꼬치]로 발음되더라도 어법에 맞게, 즉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③ '밤을'은 체언 '밤'과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이므로 발음대로가 아니라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④ '넘어가다'는 '넘다'와 '가다'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앞말인 '넘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25 ㉠은 책을 두고 온 곳, 처소에 해당하는 '집' 뒤에 붙는 것이므로 처소의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은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는 것이므로 '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은 받침이 있는 체언인 '학생' 뒤에 결합하는 것이므로 '이에요'가 들어가야 한다.

26 어미 '-(으)ㄹ게'는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먹을게요'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②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넉넉치'는 '넉넉지'로 표기해야 한다. ③ '어떻해'는 '어떻게 해'를 잘못 줄여 표기한 것이다. '어떻게 해' 또는 '어떡해'로 표기해야 한다. ④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어야 하므로 '하던지'는 '하든지'로 표기해야 한다. 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아'가 결합할 때 'ㅏ'가 탈락하여 '바라'로 표기해야 한다.

27 '봬요'는 '뵈어요'의 준말이므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되었다.

오답 해설 ①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따라서 '돼어'는 '되어어'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돼'나 '되어'로 표기해야 한다. ② '김치찌게'가 아니라 '김치찌개'로 표기해야 한다. ④ '던지'는 과거의 일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이다. 문맥상 선택의 의미가 들어 있는 '-든지'로 표기해야 한다. ⑤ '웬일'의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갖는다. 따라서 '웬일'이 맞고 '왠일'은 잘못된 표기이다.

28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매체 자료가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매체 자료에 사용된 복합 양식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자료 생산자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④, ⑤ 매체 자료에 담긴 정보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 ③ 매체 자료의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

29 '다' 후보의 그래프 높이를 '가' 후보와 비슷하게 제시하여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짜 뉴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다' 후보의 그래프는 '나' 후보의 높이보다 조금 높아야 하는데, 지지율이 훨씬 높은 '가' 후보의 그래프 높이와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여론 조사를 한 기관을 '한 언론사'라고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나', '다', '라'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정보의 출처도 '어떤 저명한 소식통'이라고만 불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문자 언어와, 그래프와 후보자 얼굴 등을 표현한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결합해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④ '단일화된 '다' 후보가 유리한 상황으로 전세가 역전될 것이다.'라는 문장과 '다' 후보의 그래프 높이를 과장하는 것과 같은 구성을 통해 선거에서 '다'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편향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30 ㉡은 선수로서의 실력이나 성과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잘생긴 얼굴'이라는 말과 '미남 검객'이라는 자막 등 선수의 외모만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외모 지상주의적 사고로 볼 수 있다. ㉢은 '그녀 앞에서는 누구도 고난과 좌절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양팔을 잃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은' 등과 같은 표현에서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심지어 백스핀까지 해냅니다.'에서 선수의 기술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은 선수들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화면으로 제시된 장면 또한 보도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제4회

본문 225~232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⑤	05 ⑤	06 ⑤	07 ④	08 ④
09 ⑤	10 ⑤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④
17 ⑤	18 ⑤						

01 이 글은 인공 지능 창작물의 한계를 강조하며 이를 인간 예술과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 지능의 기술적 성취나 장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인간의 예술과 인공 지능 창작물을 명확히 구별하며, 인간의 예술이 지니는 가치를 강조하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 ③ 3문단에서 인공 지능의 창의성이 인간 예술가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④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삶과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인공 지능 창작물과 인간의 예술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⑤ 인공 지능의 한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기술적 수준을 일부 인정하며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02 글쓴이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단순한 완성도가 아니라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이 반영된 희소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도 창작자의 삶이 담겨 있지 않으면 진정한 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의 창작 활동이 자동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글쓴이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작품 자체의 완성도에만 두지 않고,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이 결합된 희소성에 두고 있다. ③ 인공 지능이 인간보다 우수한 창의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④ 인공 지능 창작물이 예술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03 사진술이 등장한 이후에도 회화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화풍을 창조하며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술이 회화를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글의 논지와 맞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인간 예술이 변화하고 적응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진술 이후의 회화 발전을 예로 들었다. ③ 사진술을 활용한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다는 점을 통해 기술 발전과 예술의 확장을 연결 짓고 있다. ④ 사진술 이후에도 회화가 변화하며 발전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사진술 이후에도 예술로서 회화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04 글쓴이는 오비어스의 그림이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건을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인공 지능 창작물이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을 통해 인간 예술가들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인간과 인공 지능의 예술적 경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여전히 인간이 창작한 예술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인공 지능 예술의 시대가 열렸다는 기대가 언급되고 있지만, 글쓴이의 입장은 그 기대를 경계하는 쪽에 가깝다. ④ 미래 예술을 인공 지능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은 확인할 수 없다.

05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오비어스의 그림은 팝 아트 거장인 앤디 워홀의 작품보다 약 여섯 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다.

오답 해설 ① 오비어스의 그림은 가상의 남자를 묘사한 것으로, 실제 인물을 섬세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다. ② 작품에 철학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오비어스가 독창적인 화법을 개발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초상화를 창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 오비어스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서양화 초상화를 학습한 것이므로 특정 화가의 화풍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다.

06 이 글은 인공 지능 창작물이 인간 예술 작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어렵다고 보면서 창작자의 삶과 정신을 중시한다. 반면 〈보기〉는 인공 지능도 우연성과 데이터 결합을 통해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그 예술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인간과 인공 지능의 창의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창작물과 인공 지능 창작물은 구별되어야 하며, 인간의 예술만이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을 담을 수 있다고 본다. 〈보기〉 역시 인간만이 창의적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인공 지능에도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인공 지능이 인간의 예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예술이 인공 지능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다. 〈보기〉는 인공 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예술 작품과 완전히 동등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인간 예술이 여전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이 글은 인공 지능 창작물의 기술적 완성도를 강조하기보다, 예술 작품의 본질은 창작자의 삶과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보기〉는 정서적 표현을 중시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인공 지능 창작물이 인간 예술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창작물만이 희소성과 아우라를 가지며 진정한 예술로 인정받는다고 강조한다. 〈보기〉는 인공 지능 창작물에 예술적 가능성이 있음을 긍정하지만, 결과물이 인간 예술과 완전히 동등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07 8문단에서 인공 지능은 기존의 음악이나 그림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확률론적 프로그래밍(우연성을 발생시키는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공 지능은 자율적 사고를 통해 창작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에 의존한다. ② 인간 창작물과 완벽히 동일한 예술성을 지향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인공 지능은 인간 창작 활동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작한다. ⑤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고 볼 수 없다.

08 글쓴이는 존 케이지가 우연성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예술에 도입함으로써 현대 예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상상 풍경 4」와 같은 작품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예술의 일부로 끌어들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케이지가 고전 양식을 부정하고 전통을 거부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케이지는 통제된 사고보다 우연성과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였다. ③ 케이지는 연주자의 통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연주자도 우연성에 맡기도록 했다. ⑤ 케이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09 이 글의 글쓴이는 창의성의 조건으로서의 우연성이 단순한 무작위성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우연성은 지식과 생각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며, 단순한 무작위 사건의 조합만으로 창의성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우연성은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② 인간과 인공 지능 모두에서 우연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우연성은 기존 지식이나 생각을 결합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우연성은 무작위성과 달리 인지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이 글은 인공 지능 창작물은 예술적 가능성은 있더라도 인간 예술과 완벽하게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여긴다. 〈보기〉는 더욱 명확하게 인공 지능 창작물은 진정한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인간의 예술과 인공 지능 창작물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관점이 일치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인간 창작 활동도 '사물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인지하는' 복잡한 지적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한다. 반면 〈보기〉는 인간 예술 작품이 창작자의 삶과 정신에 기반한다고 강조하지만, 순수한 영감만으로 창작된다고는 하지 않는다. ② 〈보기〉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감상자의 평가에 두지 않고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한다고 본다. ③ 이 글은 인공 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보지는 않는다. ④ 이 글은 인공 지능 창작물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11 (가)는 고르기가 아니라 아끼기를 실천해야 하며, 고르기(선택)만으로는 환경 보호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 면 에코 백의 사례를 통해 겉으로 친환경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반환경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사실과 속사정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에서 학생들은 아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잘못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바로잡는다. 즉,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끼기와 정확한 정보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고르기를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보다는 소비 자체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기술 혁신만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와 (나)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에서 "공포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고 얼어붙게 해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잖아."라는 성호의 말과 "환경 파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은 우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처럼 느껴져."라는 재우의 말을 통해 공포는 무력감을 유발해 오히려 친환경 행동을 방해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무조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에서 경계하는 태도이다. 면 에코 백 사례처럼 단순한 구매가 오히려 환경 효율이 낮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2 (나)에서 학생들은 (가)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포 메시지가 친환경 행동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성호는 "공포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고 얼어붙게 해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공포 메시지가 친환경 행동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우도 "환경 파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은 우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처럼 느껴져."라고 덧붙여, 공포 메시지가 무력감을 조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답 해설 ① 재우는 "나는 '고르기'보다 '아끼기'가 중요하다는 책의 내용이 기억에 남아."라고 말하며, (가)의 핵심 주장인 '아끼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을 밝히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면 에코백을 7,100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 비닐봉지보다 환경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재우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면 에코 백을 살 것이 아니라 일회용 비닐봉지를 찢어질 때까지 쓰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원희는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 에너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서 좋았어."라고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에너지를 소비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재우는 고르기만으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로운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끼기를 실천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어."라고 말하고 있다.

13 (나)에서는 학생들이 (가)의 책을 읽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원희는 처음에 공포 메시지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나, 성호와 재우의 설명을 듣고 희망과 효능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나)에서 모든 학생이 처음부터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회 통합적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읽고 (나)의 학생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사회적 독서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② (가)는 사회적 독서를 위해 학생들이 선정한 도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적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 문제 해결 의식을 키우고 있다. ③ (나)에서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독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인식을 나누며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4 (가)에서는 '고르기'보다 '아끼기'를 강조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에너지 아끼기'이다.'라며, 에너지 절약이 환경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에너지 요인이 온난화 문제의 90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여 에너지 사용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끼는 것이 에너지 사용을 줄여 기후 변화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문단에서 다양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 자체를 줄여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에코 백 사례를 통해 친환경 제품이라고 무조건 환경에 이로운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고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의 예일 뿐, 아끼기를 강조하는 근본 이유로 볼 수 없다. ③ 소비 금액을 늘리는 것은 탄소와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④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1~2문단에서 강조하고 있다.

15 발표자는 청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퀴즈를 활용하고, 면 에코 백을 7,10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소비 정책의 연혁이나 법률을 정리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기업 등이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에 관해 배웠습니다."를 통해 지난번 수업 내용을 환기하고 있다. ② "그때 우리가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선생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죠."를 통해 청중의 관심도를 언급하며 발표 주제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④ "면 에코 백을 세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번 약 60년 동안 써야 하네요."와 같이 일상 사례를 통해 절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청중에게 "면 에코 백을 사용하시나요?", "면 에코 백을 사용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던지며, 시각 자료와 퀴즈를 활용해 청중들이 발표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16 발표자는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막연한 행동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친환경 엽서는 퀴즈 상품으로 언급되었을 뿐, 직접적인 발표 주제가 아니다. ② 학급 누리집 자료 공유는 시간 관계상 해당 내용을 모두 언급할 수 없어 공유로 대신하겠다는 것일 뿐 발표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③ 발표자는 7문단에서 "고르기만으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며 오히려 고르기만으로는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⑤ 면 에코 백 사용 횟수(7,100회)는 사례로 제시되었을 뿐 발표 전체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17 발표자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외 친환경 행동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중이 이를 요구하거나 기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발표이고, 청중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언급이 있다. ② "전체 소비 금액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와 오염 물질의 양은 거의 비슷하기에, 아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죠."에서 친환경 행동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청중이 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로 청중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업 시간에 환경 문제를 배운 경험이 있다는 내용은 처음에 '지난 시간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에 대해 배웠던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청중 3이 "오늘 발표가 아주 유익했습니다."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맞지만 발표자는 "책의 정보가 잘 정리된 블로그 주소는 시간 관계상 발표가 끝난 후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즉시 공유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발표자는 《침묵의 봄》이라는 도서를 추가로 추천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아끼기의 한 방법'이라며 실천 중인 친환경 생활 습관의 예로 제시하여 성실히 답하고 있다. ③ 청중 1의 요청에 따라 발표자는 덴마크 환경 식품부 연구 자료와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자료라며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④ 청중 2의 질문에 대해, "온라인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합니다."라고 답하며 자신의 아끼기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